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은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6호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조계종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계종 "차 대통령 즉각 퇴진"

12월 6일 종단 첫 입장 표명… '범불교시국회의' 출범도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조계종이 마침내 죽비를 내리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기성 종단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불교시민사회 단체 33곳도 '범불교시국회의'를 발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즉각 퇴진만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중앙종회 의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성타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 스님 등 종단 지도부가 사실상 전원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대통령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작금 상황서 조건 없는 즉각 퇴진만이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현 사태의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심을 바로 본다 하되 바로 보지 못했고, 국가를 위한다 하되 그러지 못했다"며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마지막 기대가 대통령 탄핵에 있는 만큼 눈앞의 당리당략에 따르지 말고 민심을 올곧이 받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적인 촛불집회로 자랑스러운 해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촛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미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명령했다.

불교계 "즉각 퇴진" 한 목소리
8일엔 국회 앞서 탄핵 촉구해
"국민과 함께 광장에 서 겠다"
정치권 '당리당략 경계' 경고도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 오로지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말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 물러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선 "정치적 계산이나 흥정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하다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헌법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탄핵을 진행하라. 특히 새누리당은 당을 해체하란 민심의 뜻을 무겁게 읽고,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협조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작금의 사태가 야기될 때까지 침묵 · 방조한 데 대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우리 불교도 내부의 성찰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 혁신시키고, 국민들 뜻을 받들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은 시국의 엄중함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종교를 포함한 우리사회 적폐 해소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그물코처럼 연결돼 광장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범불교시국회의는 첫 행보로 12월 8~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범불교시국회의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도철 스님 등이 박 대통령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시민 촛불집회에 동참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린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즉각 사퇴'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2면〉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제14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추대

추대회의서 만장일치, 임기 5년

제14대 조계종 종정으로 진제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22명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성타 스님 등 총 25명이 참석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2012년 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14대 종정으로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추대회의에서 종정으로 추대된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3년 해인사에서 석우 보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8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에 매진했다. 1967년 향곡 선사와 법거량을 통해 깨달음을 인가받고 33세에 경허 · 혜월 · 운봉 · 향곡 선사로 이어진 선맥을 이었다.



전법에도 활발히 나서 1971년 부산 해운대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금모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선학원 중앙선원 조실,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으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 등을 맡고 있다.

진제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대법회에서 초청 법주를 맡았으며 2009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백고좌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제13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와 간화선 대법회 등을 열기도 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전 스님은 종정추대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차기 종정으로현 종정 진제 스님께서 추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며 "고불식은 연임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며, 13대 임기 만료에 맞춰 재추대 의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 종정 스님은 수행자의 표상이고 종단 내 위상도 높아 종단 원로 스님들께서 논란없이 재추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원로회의 사무처는 진제 스님의 임기는 내년 3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의 임기는 5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송광사 오불도' 본래 자리 찾다

일정 당겨 8일 한국으로 환수
2~3일 美서 기증식 · 심포지엄


송광사 일화 스님과 현봉 스님이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 전시 중인 '송광사 오불도'에 예를 올 올리고 있다. 도난문화재인 '송광사 오불도'는 한국으로 12월 8일 반환했다.

내년 상반기 환수 예정인 도난 문화재 '송광사 오불도'가 일정을 앞당겨 한국으로 환수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포틀랜드 박물관에서 기증행사를 통해 현 소장자 인 마티엘리 부부로부터 '송광사 오불도'를 기증받았다"고 12월 6일 밝혔다.

송광사 오불도 기증식은 현지시간으로 12월 2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소장자 로버트 마티엘리와 송광사 일화 스님, 현봉 스님,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인수인계 서명식이 진행됐다.

기증식 직후 일화 스님은 "오늘 기증받은 오불도는 53불을 그린 7폭의 불화 중 한 폭으로, 송광사 불조전에서 봉안하고 있던 그림"이라며 "이번 환수는 송광사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이번 일을 바탕으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불교 문화재들의 소식을 알 수 있는 큰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송광사와 오불도에 대한 심포지엄이 포틀랜드박물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가 '송광사, 그 역사와 수행자의 삶'을, 마야 슈틀러 캔자스대 교수가 '삶과 죽음의 참회, 송광사 화엄사상의 복합성'을 각각 강연했다.

기증 행사 이후 12월 5일 송광사 오불도는 한국으로의 반환을 위해 포틀랜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시켰으며, 7일 시애틀 공항을 떠나 8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환수 이후에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해 오불도 상태 확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 오불도 공개는 14일 기자브리핑과 함께 이뤄진다.

이번 환수에 대해 조계종은 "외국에 소재하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적극 환수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난 불교문화재 기증자 및 해외박물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7년 상반기에 송광사성보박물관 개관에 맞춰 불조전에 오불도를 봉안하며, 봉안식에 마티엘리 부부와 포틀랜드 박물관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광사 오불도는 '오십삼불도' 중의 하나로 〈관약왕약상이보살경(觀藥王藥上二菩薩經)〉을 근본경전으로 조성한 불화다. 이는 송광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만 전해져 희소성이 매우 높다.

신성민 기자



승가청규 보급 '눈앞', 교육·法개정 목소리 높아

결사추진본부 2일 포살본 시연…"자발적 동참 필요" 지적

지난해 9월 승가청규를 발표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보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1월 24일 포살본 5차 개정을 거쳐 12월 2일 중앙승가대서 시연법회를 연 것이다. 이런 승가청규 포살본 보급을 앞두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포살본은 '승가청규 보급' 방편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이하 결사추진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앙승가대 육화당에서 100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청규 포살 시연법회를 봉행했다.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포살본은 예경과 찬탄, 포살의 취지 등 기본적인 포살의식과 함께 수행 · 생명 · 평화 · 나눔 · 문화 등 '5대의 장'과, 의식주 · 소유소비 · 의례의식 · 일상위 · 소임실천 등 '5대 문화'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5대 문화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이 특징이다.

의식주에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멋을 부리지 않는다' '고급차(茶), 고급

검박한 의식주 생활 강조
"제도 정착 위한 관심 절실"

과일을 삼간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돼 있다.

소비문화에서는 법계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분류했다. 말사주지와 국장의 기본자격인 승랍 10년 이상의 중덕 · 정덕은 소형 1500cc이하를 사용하며, 20년 이상의 대덕 · 혜덕은 중형 2000cc이하를 사용하도록 했다. 25년 이상의 종덕 · 현덕은 대형 3000cc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명의 부동산 소유나 사행성 투기, 신도간 사적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각종 생활에서 은어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경어 사용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다비식 등 의례의식도 검박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지속적인 승가 교육 필요해"

이번 포살본을 접한 스님들은 환영의 사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 사찰 현장의 첨삭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연법회에 참석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승단의 기성세대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어렵더라도 긴 시간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 젊은 세대들이 성장해 승단의 해이한 부분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서는 사찰 현실에 맞아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첨삭이 가능하도록 청규 제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중 동참 위한 교본 보급 필요

이와 함께 대중용 교본도 마련해 전반적인 불자의식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승가청규 포살본에는 대중용 포살본도 약식으로 포함됐지만 출가대중용의 5대 문화와 같이 세세한 사항은 빠졌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불자대중들이 왜 계를 안 지키는 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계율이 우리 생활과 맞지 않아서이며, 둘째는 대중 전반의 계율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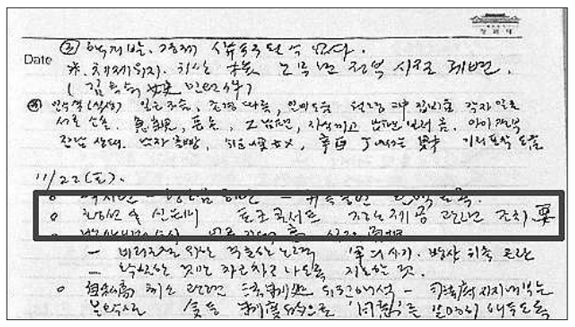
박 교수는 이어 "우리는 깨달음, 수행을 강조하며 때로는 계율을 극복대상으로도 여긴다. 대중들의 경우 5계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포켓북 등으로 지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승가청규 포살본의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조계종 현행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이다. 결계포살법 제6조 5항은 포살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6항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승가청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결사추진본부 관계자는 "종단 내 부실장회의에서도 범망경 보살계본 외에 승가청규 포살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의결시 법 개정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청와대, '조계종 뒷조사' 의혹 파문

故김영한 비망록에 '자승 스님 조치' 문구 기록



비망록 11월 22일(왼쪽 사진) 부분에는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와 11월 25일(오른쪽 사진) 부분에는 '조계사-황선 장소제공-경위조사 후 조치(자승)'이라고 쓰여있다.

청와대가 조계종 등 불교계에 대한 사찰(査察)과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故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본지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11월 22일 '황선&신은미 토크콘서트 장소제공 관련 조치 要'이라는 내용과 3일 뒤인 11월 25일 '장(長)'이라는 표시와 함께 '조계사-황선 장소제공-경위 조사 후 조치(자승)'이라고 쓰여진 내용을 확인했다. '장(長)'은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발단인 '황선&신은미 콘서트'는 2014년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행사다. 하지만 이들의 콘서트는 종북 논란이 가열되며 장소를 대여한 조계사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집중됐다. 비망록에 기록된 11월 22~25일은 종북 논란이 집중된 시기와 맞닿는다.

비망록에 의해 불거진 의혹에 대해 조계종 측은 12월 8일 현재 관련자료 파악 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신은미 콘서트장 대여 발단
불교계 전반 査察 정황 증거
"1970년대 공안 통치로 퇴행
정교분리 위반, 헌정 유린해"

불교계는 이미 2012년 정부의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범불교도대회 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규탄했다. 당시 중앙종회는 불법사찰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주요소임자와 주요 사찰 주지에 대한 계좌추적 등으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교계 승가 및 시민단체들은 모두 공분했다. 현재 구성된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대응도 계획 중이다. 실천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청와대 회의에서 조치를 요구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교계를 기망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협업미래센터소장은 "이는 1970년대 공안통치의 모습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한국 사회를 감시 · 통제하려는 가장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불거진 의혹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사찰과 외압은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계 전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종교계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망록에서 '신부-뒷조사/경찰, 국정원 Team(팀) 구성 → 6급 국장급'이라는 8월 7일자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청와대가 특정시각으로 종교계를 좌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이런 대응 자체가 정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교계도 청와대와의 조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함께 종교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태고종 내년 예산 58억 2040만원 결의

126회 정기회 승인…새 호법원장에 지현 스님 선출

한국불교 태고종 2017년도 예산이 58억 2040만원으로 결의됐으며, 호법원장에 前 경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12월 7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총무원 청사서 재적의원 52명 중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6회 정기회'를 열고 내년 세입 · 세출예산안과 호법부장 선임 등을 안건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번 중앙종회서는 2년에 결친 종단 사태의 단초가 된 신임 호법원장 선거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후보로는 지현, 법진, 혜성 스님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지현 스님이 당선됐다. 신임 호법원장 지현 스님은 "태고종이 현재의 내홍을 계속 겪게 된 것은 종단의 기강 확립에 가장 앞장 서야 할 호법원이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못한 것이 가장 크다"며 "친분과 문중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종도들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호법원 운영을 통해 종단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산 스님도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지만 종단의 안정과 종도화합, 그리고 추락한 종단 위상 강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재정 확보 방안도 꾸준히 논의해 차기 집행부가 원활하게 종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법계에 따른 분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분담금징수법'과 총무원 직제 개편을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또한 총무원 부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안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임명 동의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부산서부 종무원서 추천한 종숙 스님 원로의원 추대는 만장 일치로 통과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부정 의혹 동국대 교수들 징계위 회부

동국대 이사회서 의결… 11개 안건도 처리

안채란 이사 광고 호소문엔
"이해와 설득으로 대응키로"

제자 성추행, 장학금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 교수들이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는 12월 7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306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등 안건 11개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성타 · 법산 · 지원 · 세영 · 일관 · 정념 · 승원 스님과 김선근, 김기유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교 측이 중징계를 요청한 교수는 서울캠퍼스 소속 6명으로, 이들은 제자 성추행 등으로 일반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징계위원회는 의결 후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임기 만료된 이연택 이사 후임이사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됐으며, 9월 임기 만료된 감사 덕문 스님은 재임됐다.

정관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위원 1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경주부총장 호칭을 경주캠퍼스 총장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도 승인됐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채란 이사가 영석고 내에 자신의 기념관 설립을 요구하며 일간지 광고로 게재한 호소문에 대한 학교 입장과 대응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는 논의를 통해 안 이사가 광고를 통해 종단과 동국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영석고를 학교에 기부한 뜻을 높이 사 최대한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이러려고 사찰음식 전문위원 됐나”… 사임 강요 논란

불교문화사업단, 예고 없이 일방적 전화통보
“대중화 앞장선 스님들 내몰아선 안 돼” 비판

사찰음식 대중화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들이 위촉 1년 만에 사업단으로부터 일방적 사임을 강요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사업단장 교체 이후 전문위원과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던 데다가 사임 요청 사유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찰음식 전문위원은 교육 체계에 대한 자문과 레시피 정리, 교재 편찬 등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현 전문위원들이 사찰음식문화 보급과 관련해 오랜 기간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찰음식 대중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위촉 1년 만에 사임 요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사업단 측은 12월 6일 현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 5인 전원에게 12월 20일까지 사표 제출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는 사업국장 원경 스님이 전문위원 스님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원들에게 확인결과 해당 스님 모두 사임 요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으며, 대부분 스님들은 “의욕과 사기가 꺾인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위원 A스님은 “전문위원을 전임 단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현 단장인 성효 스님이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이 의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하지만 새로 임명할 때 (현 위원 중) 누가 포함되고 빠질지는 모른다고 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스님은 “성효 스님은 올 초 단장 취임 후 전문위원들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명확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실무자를 시켜서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해당 전문위원 스님들 대부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위원을 현 단장 명의로 재위촉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이고, 일언반구 없이 위원을 교체한다면 밀실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A스님은 “직원들도 현재 사표를 낸 채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들도 함께 사표를 내라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해해야될 지 모르겠다. 그동안 사찰음식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한 노력이 헛수고가 된 기분”이라고 비통한 속내를 내비쳤다.

“필요할땐 임기 2년?” VS “규정 없어”

사찰음식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前 사업단장 진화 스님이 사찰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교재편찬위원으로 참여한 스님과 재가자를 위촉, 자문단 형식의 체계적 운영을 꾀한 것이다. 현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후학을 양성해 2기, 3기로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전문위원 스님들은 이런 자신들의 임기를 2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본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스님들의 증언대로라면 위촉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난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단 측은 임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내부서 (임기를) 2년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꼭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화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단 측 설명에 전문위원 스님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B스님은 “처음 위촉할 때는 종단이 필요로 한다면서 모시러 오더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조계종단이 관심 갖기 전부터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선 스님들을 이런 식으로 내몰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위원을 위촉한 前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임기가 기억나진 않지만 규약이 있을 것이다. 정식 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며 “당시 임기 없이 전문위원을 위촉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 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전문위원 스님들은 사표를 내라는 문화사업단 입장에 속앓이를 하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배경을 잘 알지 못했다. 실제로 사업단 실무자에게 전문위원 스님 외에 재가전문위원도 사임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재가전문위원은 교수 등 4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재가전문위원은 “사표를 내라는 사업단 연락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임 논란’에 대한 사업단 공식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실무자에게 연락했지만, 실무자 C씨는 “단장 스님 의중을 확인 못 했다. 현재로썬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조만간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이에 단장 성효 스님의 정확한 해명을 듣고자 사업단 측에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 승려복지에 쓴다

조계종 11월 30일 결의
대표적 불교계 수익사업 활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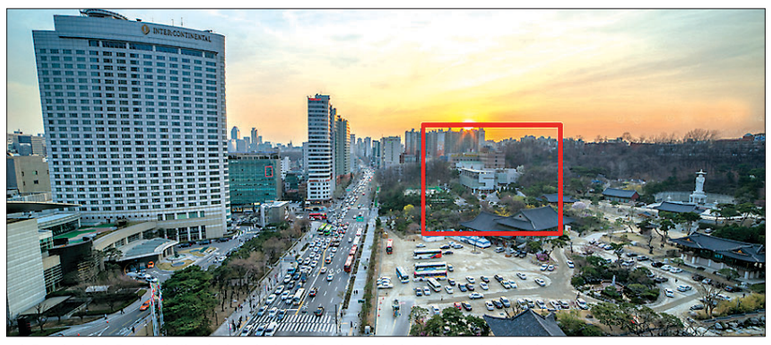
조계종이 서울 강남 봉은사 옆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을 승려복지에 쓰기로 했다. 이번 강남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의 승려복지 활용은 대표적인 불교계 수익사업 활용 선례로 평가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30일 종무회의에서 2016년 10억원에 이어 2017년부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중 매년 10억원 씩 3년간 30억원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봉은문화센터는 지난해 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남 총무원’ 발언 당시 총무원 이전 후보지로 언론에 회자된 곳으로 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5,600여 평에 서울 강남 핵심부인 코엑스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봉은문화센터는 봉은사 토지에 대우건설이 총 306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한 건물로 10년간 운영권을 가진 뒤 이후 봉은사로 귀속하기로 한 건물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미비로 상호 감사 등을 거쳐 운영계약이 연장돼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완전 귀속됐다.

조계종은 그동안 이 건물의 임대수익의 활용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봉은문화센터 건물은 웨딩홀 명목으로 보증금 70억원에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연 30억 원,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연 35억원의 임대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 일대 전경. 사진 붉은 네모 안이 봉은문화센터다.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귀속
웨딩홀 임대, 연간 30~35억 수익
매년 10억원 승려복지기금 활용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사찰 수익은 사찰 경상비에 쓰이지만 직영사찰인 만큼 승려복지란 승단 전체에 대한 기여란 판단이 종무회의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복지회계 적립 10억원과 종단 목적기금 적립 2억원이 사용되며 나머지는 사찰특별회계로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사찰특별회계는 임대계약 종료 후 반납해야 할 보증금 70억원에 대한 부분으로 3년 추가 계약 만해도 69억원이 적립된다.

승려복지제도는 이번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 지원으로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려복지제도는 그동안 수익사업과 스님과 불자, 사찰의 승보공양 후원 운동, 종단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기금이 적립돼 왔다. 2011년 승려복지 최초 시행 당시 만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스님들만을 대상을 의료비 지원 등을 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대폭 확대됐다. 2015년에는 2014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수는 8.2배, 지원금액은 5.7배 증가한 상황이었다.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제도가 자리잡으려면 이외에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일부의 승려복지특별회계 적립이 계기가 돼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 미르재단에 GBC인허가 대가 기부”

조계종 12월 5일 의혹 제기… 현대차 측 “서울시와의 별개 문제”

조계종이 현대차 GBC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이 민원 해결 대가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KD코퍼레이션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회사에 총 201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12월 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으로 “한전부지 매입관련 8000억원의 세제 혜택과 신사옥 건립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대가로 현대차 그룹이 재단법인 미르 등에 총 201억원을 헌납했다”며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조계종은 옛 봉은사 경내인 한전부지 내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 건립을 두고 105층, 553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서울시 인허가가 불과 2년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 등에 의한 재벌 특혜이자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은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대자동차 그룹의 201억원 헌납이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대가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6일 진행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한전부지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역개발 기준 하에 입찰한 것으로, 모든 개발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공개도 촉구한 상태다.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차는 서울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GBC건립과 관련된 많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재)선학원 고위직, 성추행 파문 확산

선학원 “불순세력 음해” 해명에 불교여성 · 시민단체 규탄 이어져

선학원 고위직 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 일부 언론은 선학원 고위직 A스님이 12월 2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음을 보도했다. A스님은 지난 8월 초 30대 여직원 B씨와 강원도 속초에 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숙박업소에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학원 측은 12월 5일 “보도 배후에는 선학원을 해치려는 불순세력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법 절차에 의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선학원 측의 해명에도 불교계 여성인권단체들은 같은 날인 5일 성명을 통해 A스님을 규탄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교와젠더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개인적 사건으로 치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학원 내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이하 선미모)도 6일 성명을 내고 “해당 스님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범계 사실이 확인될 시 징계해야 한다. 한 스님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재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도 12월 7일 성명서를 통해 당사자 스님이 직접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제4차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수행 단체입니다.

업(業)과의 전쟁

▶ 일 시 :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 장 소 : 깨달음 산문(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문 의 : 1899-9532

깨달음 山門

일 주 문



성역화기금 7천만원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기금 7천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기탁했다.



해양경본 법당 이운

종연 인천 수미정사 회주 스님은 12월 15일 오전 11시 인천해양경비안전본부 해인법당서 증축법당 이운법회를 봉행한다.



다문화가정 초청 김장

탄웅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12월 8일 경내서 결혼이주여성 20여 명을 초청해 '행복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선학회장 연임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은 12월 3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 별관서 열린 한국선학회 총회서 회장에 연임됐다.



불교음악인 한자리 "가릉빈가 재림"

불교음악상 시상식 및 신작찬불가 연주회

상상의 새 가릉빈가(迦陵頻伽)의 소리로 불음을 퍼뜨리는데 공헌한 불교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정안)은 12월 7일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제3회 불교음악상 시상식 및 신작찬불가 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불교음악상 시상식서 △최우수상 안승철 작곡가 '우란분재' △우수상 이윤정 작곡가 '팔상성도 이야기' △장려상 박이제 작곡가 '반월성에 뜨는 달' · 최선기 작곡가 '바라밀 범종소리' · 강주현 작곡가 '그리움으로 보내는 사랑' △노랫말상 곽영성 작사가 '반월성에 뜨는 달' 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승철 최우수상 수상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신심으로 펼치려고 작곡하던 중 까치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께서 '까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 며 작곡을 독려해 좋은 음악이 탄생했다"며 "국제포교사 21기를 수료하고 앞으로 불음으로 포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올해의 불교음악인상은 이종만 좋은벗풍경소리 기획실장에게 돌아갔다. 이 기획실장은 1976년부터 42장 불음 앨범을 발표, 특히 매년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음반을 제작해 찬불가 보급에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다.

신성민 기자

"평생 영광이자 빚… 초심으로 정진"

Interview

제1회 법계문학상 대상 신이산 씨 소설 '푼다리카'

비구니 대강백 명성 스님의 불교문학 발전과 작가 발굴 원력에 의해 제정된 법계문학상의 제1회 대상 수상작으로 신이산 씨〈사진〉의 장편 소설 '푼다리카' 가 선정됐다. 가작 수상작으로는 김민혁 씨의 장편소설 '49일' 과 엄현주 씨의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 이 이름을 올렸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지심)는 12월 5일 "공모를 통해 장편소설 13편, 장편동화 7편이 응모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이산 씨의 장편소설 '푼다리카' 가 대상으로 김민혁, 엄현주 씨의 작품이 가작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푼다리카' 는 환속한 승려의 아들로 태어나 청각장애자가 되어 절에서 자라며 불화를 배운 주인공이 마침내 '아미타내영도' 를 완성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다소 고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불교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차분하고 정제된 문장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수상 소감으로 신 씨는 "불교에 대한 글을 쓸 때면 늘 그렇듯 또 다른 구업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 면서 "법계문학상 수상은 평생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빚이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을 쓰는 것도 상을 받는 것도 모두 부처님 가피임을 알고 있다. 독자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한 폭의 변상도와 같은 소설' 을 쓸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가작엔 김민혁 · 엄현주 씨 선정
절서 태어난 청각장애 화공의
'아미타내영도' 완성과정 그려
12월 15일 운문사서 시상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두산동아에 재직하며 부사장까지 지낸 신 씨는 소설가로는 신인이다. 2008년 퇴직 후 평소 염원했던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푼다리카' 는 자료 조사와 집필까지 약 2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다. 불교미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직접 3년 과정의 대학 불교미술학과에 입학해 수학하기도 했다.

신 씨는 "불교미술을 1년 정도 배웠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탱화, 불화 등 시각적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작으로 선정된 장편소설 '49일' 은 강원도 고성의 무당 선녀 씨가 죽은 뒤 49재를 지내기까지의 이야기를 복잡한 가족사와 연계해 다룬 작품으로, 문장이나 사유의 깊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소설은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며 "수행하듯 끊임없이 읽고 쓰리라 약속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같은 가작 수상작인 장편동화 '산을 품은 아이들' 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산골마을 종점슈퍼에 맡겨진 7살 여자아이와, 고아로 절에서 자란 8살 사내아이의 순수한 우정, 그리고 주지 스님과 이웃들의 자비를 다룬 동화다. 소재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을 어린아이의 맑은 눈과 생각으로 드러내려 한 점을 인정받았다.

엄 씨는 "법계문학상은 글쓰기에 지친 나를 위하여 특별히 부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라 믿고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법계문학상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2시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작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가작에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작은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초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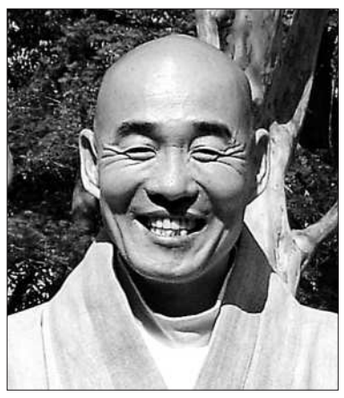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세 약해도 '나눔행' 으로 전법"

신임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장 보명사 주지 성안 스님

"불교세가 매우 약한 인천 지역서 불법(佛法)을 널리 펼치기 위해선 '나눔행' 이 필수라 생각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의 본뜻을 이어 소외계층을 보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제16대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성안 스님(인천 보명사 주지 · 사진) 취임 법회가 12월 5일 인천 남동구 인천불교회관 2층서 진행됐다. 성안 스님은 이날 자리서 인천 곳곳의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할 것을 포부로 밝혔다.



성안 스님은 "평소 결손 · 한부모 · 조손 가정에 공양미를 나누고, 탈북민 학교를 지원해왔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연합회 차원서 더욱 적극적이고 폭넓은 자비행을 펼치겠다. 역량이 된다면 복지관 위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문화 포교에 대해선 "지난해 인천지역서 처음으로 '미추홀 연등문화축제' 가 열렸다. 지역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불교총연합회와 협력할 것"이라며 "인천에 불교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 관리도 성심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성안 스님은 양산 통도사서 정우 스님(現 서울 구룡사 회주)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통도사 보광선원 · 수덕사 능인선원 · 백양사 운문선원 · 김천 수도암 등서 수행에 매진했다. 2009년부터 보명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15대 인천사암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총동림동문회, 어르신 경로잔치

남양주 먹갓경로당서 문화공연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는 12월 6일 남양주 먹갓경로당에서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스님들의 하모니카와 기타 공연에 이어 총동림동문회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돋보기를 선물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성사, 자비의 김장담그기

12월 3일 1200포기 성당동에 전달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화산)는 12월 3일 경내 서원당 지하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행복 나눔 자비의 김장담그기' 를 개최했다. 이날 대성사는 김치 1200포기를 담가 전경태 성당동장에게 전달했다.

주지 화산 스님은 "김치 받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까지 담아 좋은 인연들을 지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기협, 불교기자상 시상식

12월 5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는 12월 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보현실서 '불기2560년 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법보신문 남수연 기자의 '국립중앙박물관~' 보도가 대상을, 본지 '출가 자유를 향한 길' 과 불교TV '불교, 경제를 품다' 가 각각 기획해설 ·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윤호섭 기자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12월 8일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 청년식당서 봉사자들이 청년들에게 손수 마련한 음식을 배식하고 있다. '광주 고시촌'으로 통하는 대의동에 자리한 청년식당은 20~30대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매주 목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정안사 신도들이 음식을 차린 뒤 활짝 웃고 있다.



취재 당일 취준생에게 제공된 식단.



현재 많은 청년들이 식당을 애용한다.

취준생 한줄기 희망 '엄마표 집밥'

광주불교계, 학원가 청년들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일대. 흔히 광주의 고시촌으로 통하는 이곳은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위해 학원과 고시원서 청춘을 보내는 청년들의 고단함이 짙게 배어있는 곳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부터 대기업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원을 찾는 대학생, 그리고 학비를 마련하고자 각종 아르바이트에 나선 이들까지 꿈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청춘들로 가득하다. 꿈과 희망, 좌절 등 복잡한 청춘의 일상이 펼쳐지는 이곳에는 엄마의 정성이 담긴 '집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청년식당이 있다.

청년식당은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인 (사)자비신행회와 증심사가 설립해 운영하는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이하 체험관)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식당이다.

겨울 절기 중 하나인 대설(大雪)이 지난 12월 8일 오후 3시. 대의동 체험관은 인근 학원가 청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손길로 분주했다. 엄마들이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날 메뉴는 돼지고기주물럭과 야채오징어전.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직접 담근 김치와 나물 그리고 후식으로 준비한 과일이 함께 차려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삼삼오오 청년식당을 찾기 시작한 취업준비생들은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개인접시 위에 메인 요리와 반찬을 가지런히 담아 식사를 시작했다. 삼각김밥, 컵밥, 라면 등 평소 학원가에서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청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청년들은 감사인사를 전하며 밥값을 대신했다.

흔히 무료식당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이날 청년식당을 찾은 취업준비생들은 여느 영업식당을 가듯이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며 들어섰다. 지난 연말 개점한 이후 1년 남짓 봉사자들의 섬세한 배려 덕분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청년들의 밥집이 된 것이다.

2년 전 목포에서 올라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청년(30)은 "매번 사먹는 음식이 질릴 때면 엄마가 손수 해주는 집밥이 종종 그립다"며 "공부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면서도 마치 친엄마의 손길이 닿은 것 같은 음식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광주지역은 고시원에 개인 냉장고를 구비한 곳이 없어 김밥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이 많다. 이에 자비신행회와 증심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청년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 저렴한 음식을 찾아 전전하는 고시생과 대학생 등 타지서 객지생활 하는 청년들에게 엄마들의 정이 담긴 따뜻한 집밥을 선물하고 싶은 배려에서다.

지역상권 배려한 자비행

매주 수·목 저녁식사에

조미료 안 쓴 건강식 대접

인기 높아져 100인분 확대

후원·봉사자 자긍심 'UP'

국고지원 없이 자립 운영

사찰·신행단체 연계 모범

"취업소식이 제일 기뻐"

당초 청년식당은 자비신행회와 증심사가 공동으로 매주 수요일 60여 명분의 저녁식사를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 3월부터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정안사가 힘을 보태면서 매주 수·목요일로 청년식당 운영일을 확대하고, 식사도 100여 명분으로 늘렸다.

대상은 대학생과 고시원 학생 등 20~30대 청년층으로 국한시켰다.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대신 일주일에 두 차례 저녁만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건강을 생각해 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사찰신도들로 구성된 한 가정의 엄마들이다. 배식 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매주 청년식당을 찾는다.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어느 봉사자는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봉사자들은 단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구했을 때 청년식당에서의 아름다운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은 "자원봉사자들은 학생들이 어느 날 시험에 합격해 식당에 나오지 않으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집밥으로 청년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꾸준히 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식당은 불교 봉사활동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릴 적 불교유치원을 다닌 한 청년은 "엄마에 의해 다녔던 불교유치원이라 아직까지도 불교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우연히 들른 청년식당을 통해 불교를 새롭게 보게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고 한다. 그 후 "지난 초파일에 절에 다녀왔다"는 후일담은 스님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연이었다.

청년밥상은 광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무료 청년식당이자, 전국적으로도 불교계에서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식당운영에 관공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불자들의 후원과 사찰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 때문에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도 남다르다.

봉사자로 참여한 정안사 김영란 신도는 "한 달 메뉴를 미리 작성해 준비한다. 메뉴는 청년들의 영양을 고려하고, 주변식당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다"며 "내 자식을 먹이는 마음으로 음식준비를 한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제철과일을 많이 먹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 취업난 해결은 이제 한국사회서 가장 큰 화두다. 어려운 취업 준비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불교계가 마련한 따뜻한 밥상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청년식당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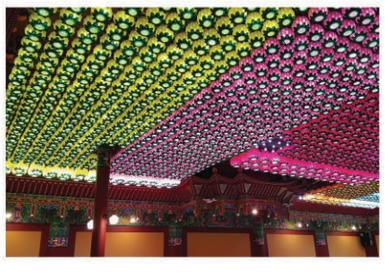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운 아버지와 추억 '한 권 노트'에…

종로노인福무악센터, 12월 7일 '나의 엔딩노트 이야기'

"아이가 생긴 걸 알렸을 때 당신은 '정말? 잘 됐다. 나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할게' 기뻐하며 말해주었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벚꽃나무 가로수 아래를 지나 집으로 돌아왔던 그 날. 내가 가장 행복했던 날."

김성희(75) 어르신이 시인 시바다 도요의 시 '추억'을 읽자 강의실 내 분위기도 회상에 잠긴 듯 차분해졌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 속에 묻어난 인생 희로애락에 흠뻑 빠져들었다.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무악센터)가 진행한 '나의 엔딩노트 이야기' 강좌를 찾았다. 이날 1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은 △내가 기억하는 공간 △공간지도 그리기 △기억 꺼내기 △글쓰기 실습 등 함께하며 자서전을 써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시시해 글을 쓰는 게 창피합니다."

김경진(79) 씨가 용기 내 던진 한 마디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다. 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걱정을 했다는 듯 공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강사로 나선 노항래 은빛기획협동조합 대표가 긴장된 공기를 환기시키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엔 나 하나뿐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입니다.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일은 재미를 떠나 유일한 이야기를 남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에 김경진 씨는 "내 인생이 참 보잘



종로노인복지관 무악센터는 12월 7일 '나의 엔딩노트 이야기' 1강을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총 6번 강좌서 자서전을 쓰고 지난 인생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종로노인福 자서전 강좌 시작
목표는 "어르신 삶 가지 재확인"
'적을 거리 없다'는 어르신들에
"유일한 인생, 나눌만해" 독려

것 없어서 글쓰기가 망설여졌는데 강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강의 시작 전엔 그저 유언장을 쓴다는 생각으로 참석했지만, 마음을 바꿔 가족에게 전하는 참회록을 쓸까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글쓰기를 낯설어하는 수강생들 사이서 연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노 대표의 '돌아가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귀를 세우고 집중했다.

"잡지사 기자로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 일해보고 싶단 생각에 자서전을 제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사래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반기시며 '한 번 적어보자'고 하셨지요. 그러다 완성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노 대표가 쓸쓸한 표정으로 마른침을 삼키자 어르신들이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그래도 그냥 돌아가셨다면 몰랐을 아버지의 다사다난한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 남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부모님의 희생을 되돌아보니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군요. 어르신들도 인생의 굴곡을 꼭 글로 남기길 바랍니다. 특별한 인생 이야기가 아니어도 어르신은 물론, 주위에 뜻하지 않은 힘이 될테니까요."

노 대표가 진심어린 부탁을 전하자 '자서전에 자신 없다'며 침묵했던 어르신들이 마음을 움직였다.

김성희 씨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다니 우리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학교에 입학해 성장하며 겪은 여러 일들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3살 되던 해 귀엽던 아이들을 글로 남기고 싶다"며 "쓴 글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분명 좋아할 거란 생각에 벌써부터 뿌듯하다"고 웃었다.

이처럼 자서전에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힘들었던 과거 속 그리운 사람을 그려보고 싶단 사람도 있었다. 아버지를 주제로 택한 정용숙(71) 씨가 그랬다.

"전하고픈 이야기가 많지만 내가 몸을 많이 다쳤을 때 이야기를 써볼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아프실 때 시골서 변변한 약이 없는 와중에 어디서 청개구리가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나무 위에 청개구리를 발견하고 올라가다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그리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쓰다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어 정 씨는 "이번 수업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풍부하게 표현해보고 싶다"며 덧붙였다.

노 대표는 정해진 1시간이 훌쩍 넘은 오전 12시가 되어서야 수업을 마무리했다. 노 대표는 어르신들을 배웅하며 연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독과 다작, 그 중에서도 많이 써보는 것만큼 좋은 글쓰기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 주 강의도 꼭 참석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글 쓰는 재미를 나눴으면 합니다. 어느 새 멋진 자서전 한 권이 완성돼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강의 노트를 소중히 품에 안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노트엔 '꼭 글을 마무리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쓰겠다'는 다짐이 적혀있었다.

한편 이번 강좌는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 은빛기획협동조합이 어르신들의 힐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종로노인무악센터는 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강의 '나의 엔딩노트 이야기' 강좌를 진행한다. 이승희 기자


서울 인사동 쌈지길 앞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팥죽을 나누고 있는 조계사 스님과 신도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계, 국민에게 세시풍속 冬至 알린다

종단협 비롯 전국 각지서 동지맞이 행사 예정

한 해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작은 설' 동지(冬至)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동지는 총림 4절(여름결제 · 해제, 설날)에 포함될 정도로 사찰서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동지 전날 밤에는 젊은 스님들이 은사스님과 스승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에 대한 감사인사를 올리기도 한다. 이 같은 세시풍속을 알리고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을 확대하고자 12월 21일 동짓날에 전국 각지서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가 열린다.

한국불교계 주요종단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는 이날 오후 2~5시 서울 내 6곳을 비롯해 전국 112곳에서 '세시풍속,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나눔'을 실시한다. 26개 회원종단과 소속사찰이 참여하며 시민에게 나눌 팥죽 용기만 17만개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서울에서는 △탑골공원(노인) △광화문(세월호 유족) △인사동(관광객) △시청광장(직장인) △노량진역(취업준비생) △종각(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 팥죽을 나눌 수 있도록 장소를 선정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주지 지현)는 아침부터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에게 양말을 나눠주고, 법당서 어르신들에게 버선을 신겨드리는 '동지헌말(冬至獻襪)'을 진행한다. 동지헌말은 본래 집안 며느리들이 시할머니나 시어머니 등에게 버선을 지어 선물하는 세시풍속이다. 이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은 동지법회를 봉행하고, 고령의 여성불자들에게 직접 버선을 신겨드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동지 21일 특별기도를 진행 중이다. 12월 1일 동지 특별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으며, 21일간 새벽예불(대웅전) · 사시기도(법왕루) · 저녁예불(대웅전)서 동지기도를 올리고 있다. 회향하는 동짓날에는 이웃과 동지팥죽을 나누며 동지기도 회향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해 경찰서 · 소방서 · 주민센터 · 경로당 · 요양병원 등 곳곳에서 2000여 회원사찰과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연다.

전북서는 **금산사 · 선운사 · 참좋은우리절 ·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뜻을 모았다. 오후 2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옆 주차장서 열리는 '국제교류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작은 나눔, 큰 행복'은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연말연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한옥마을 내방객에게 새알만들기 체험 기회가 주어지며, 팥죽을 나누면서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을 모연한다. 윤호섭 기자

"자살예방상담, 서양상담 보완할 三法印 자각이 핵심"

황선정 소장,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세미나서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한의 심리적 고통에 처한 내담자들에게는 그 생각을 바꾸려는 상담자의 시도가 무모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 현상의 내용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과정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불교의 삼법인(三法印)이 서양 상담심리학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한다."

황선정 마음여행심리상담연구소장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자살, 불교상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주관 자살예방세미나에서 서양 상담심리학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법인을 꼽았다.

황 소장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상담기법적 접근'이라는 발표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불교와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심리상담은 삼법인 원리가 적용될 때 다각도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다고 봤다.

황 소장은 "서양 심리상담은 심리적 문제를 고정불변의 실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치료적 변화를 위한 개입 또한 그 실체를 변경하려는 데 역점을 둔다. 하지만 삼법인은 내담자 자신을 자각하고 관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삼법인 원리가 상담에 적용되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는 관점(인간관),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보는 관점(병인론), 심리적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치료론)에 대한 조망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법인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면서 부정적 모습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자신의 핵심 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서 상담자가 보여준 지지와 공감이 점차 내담자에게 내면화되면서 '자기수용'을 하게 된다. 그간 위축됐던 마음이 풀어지고 자존감이 생겨날 때 삼법인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긍정적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난다. 이때 자신을 휩싸고 있던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본질을 본다는 것은 내담자의 괴로움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통은 생명을 가진 존재 누구나 겪는 현실이란 것, 또 '나'라는 정체성이 실체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불교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서양상담은 이를 효율적으로 일구어가는 방편을 제시해준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경전 · 선어록으로 中道정신 닦자

불교인재원, 12월 말부터 13주 과정 강좌 열어

재가불자를 비롯해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의 불교공부를 돕는 불교인재원이 중도(中道)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전 · 선어록 강좌를 신설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12월 26일부터 13주간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서 '불교경전과 선어록을 통한 중도정신을 함양하는 강좌'를 연다. 이 강좌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전과 주석서인 논서, 조사어록 중 핵심이 되는 것을 선정해 공부하는 시간이다. 불교인재원은 이번 13주 강좌(1차)를 시작으로 총 10차 130회에 걸쳐 연강할 계획이다.

1차 강좌는 △아함부경(조준호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 △반야심경(박희승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사업단장) △능가경(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신심명 · 증도가(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등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12만원(교재비 별도). 1661-1108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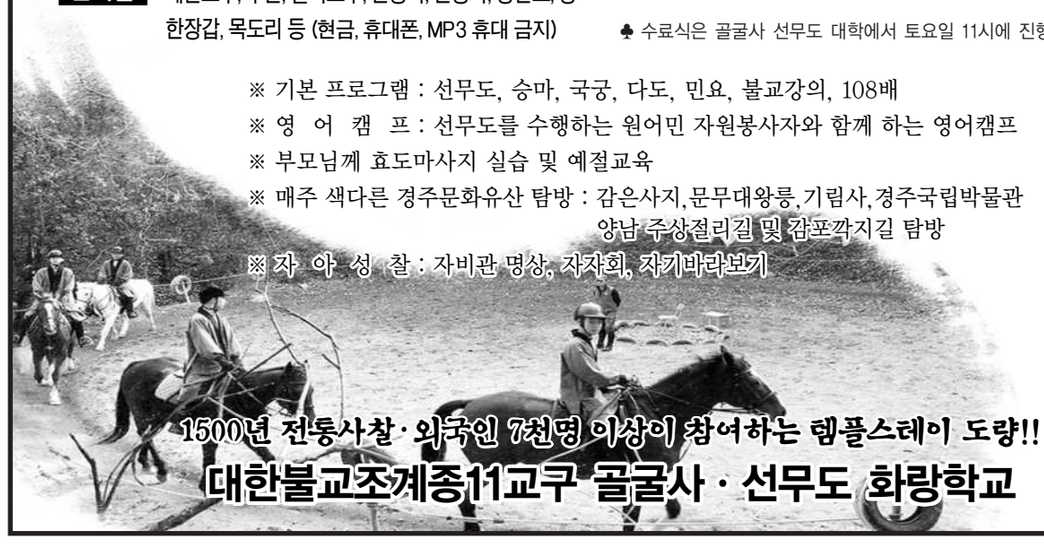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0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2016년 12월 25일 ~ 2017년 1월 14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방한모, 방한장갑,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 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진행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 어 캠 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 아 성 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분노 성찰이 곧 '상구보리 하화중생'

붓다 빅 퀘스천 부처님의 감정수업… 분노는 나의 스승

김정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불교와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지혜들로 가득하다. 이 때문에 불교와 심리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힐링' 열풍에 휩싸인 현대인들은 두 분야로부터 마음 속 분노와 우울을 사라지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12월 3일 붓다 빅 퀘스천 부처님의 감정수업 '분노는 나의 스승' 강연서 "우리 마음속 동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내 감정에 대한 성찰과 이해로부터 인생의 행복과 사회 변화가 시작된다"며 분노가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 김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자.

정리=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김정호 교수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와 심리학 박사를 수료했다. 前한국건강심리학회장과 前대한스트레스학회 이사장, 前한국심리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덕성여자대학서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챙김 명상 매뉴얼〉, 〈생각 바꾸기〉,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즐거움〉 등이 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짓는다

여러분들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부처님 가르침에 익숙할 겁니다. 만물은 모두 마음이 짓는다는 〈화엄경〉 핵심 사상이 일체유심조입니다. 심리학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구성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상태가 내 마음과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구성주의는 우리 경험이 내적인 조건에서부터 만들어짐을 강조합니다. 불교든 심리학이든 '밖조건'인 환경보다는 '안조건'인 나에 초점을 둔 설명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밖조건에 의해 우리 경험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우리 자신의 내적 마음가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게 받아들여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밖조건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바라보고 성찰하도록 조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학이나 불교나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심리학이라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부처님께선 교리를 강설하기보다 "와서 봐라, 그게 맞으면 실천해라"고 경험적으로 이해·체득 되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다른 이웃종교와 달리 심리학적 측면이 있지요.

화(火)를 바라보는 관점도 비슷합니다. 심리학과 불교 모두 화를 외부적 조건과 내부적 조건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작용으로 화가 만들어지는지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선 역설적 가르침이 많습니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가 미혹함과 해탈을 같은 것으로 본 것처럼 〈분노는 나의 스승〉이란 오늘 주제도 역설적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화의 경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고, 또 성찰을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노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분노는 억압하거나 부인할 게 아니라 반가워해야 하는 스승이 아닐까요.

몇 해 전 애니메이션 〈개미〉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개미들은 '물폭탄'이 떨어진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우리들이 보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개미의 입장에선 사실 물폭탄과 다름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객관적 진실은 주체의 관점에서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다른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 의해서 나온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지요? 화 또한 우리가 경험을 의미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동기상태이론은 스트레스와 웰빙을 '동기상태'로 간주해 동기가 좌절되거나 좌절예상인 상태를 스트레스로, 충족된 상태를 웰빙으로 정의합니다. 욕구가 없다면 아마 스트레스는 없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욕구를 없애면 될까요? 여기서 딜레마는 욕구를 없애면 웰빙 또한 잃는다는 겁니다. 욕구를 줄이면 고(苦)를 없앨 수 있지만 락(樂)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화 내기보다 '관찰'해야

그러나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내면에는 매우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핏 꼽아 보아도 많은 욕구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미래에 관해, 상사와 관계 등 정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욕구를 잘 이해하고, 욕구 중에서도 어리석거나 불건강한 욕구가 있다면 제거·약화시키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가치·의미 있고 건강한 동기가 뭔지 생각하는 데 전력하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정서는 우리 욕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동기가 좌절된 경우 분노나 우울을 경험하게 되지요. 동기좌절을 경험할 때 이를 외부상황, 다시 말해 남을 탓하면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와 달리 동기좌절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면 우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존재로 보지 말고 여러 명의 '나'들로 구성 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불교적 관점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내 속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생각이 유용합니다. 그러면 일반화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단정 짓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 중 보스인 내가 어떤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옛날 주인이 머슴에게 했을 법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자신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개인주의적 관점이 지배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모자라다며 자책하곤 합니다. 불교가 다시 대두된 것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만연하면서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불교 가르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동기좌절로 경험한 우울·분노
삶 성찰하게 하는 긍정 작용해
감정 관찰 후 욕구 파악하면
나와 사회 바꾸는 지혜도 생겨

무한경쟁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떤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 모두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나 스스로 강요하고 옥죕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놀아도 죄책감에 시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개발서를 많이 보는 이유도 남의 강요가 아닌 나 자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루저(looser,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 우리 자신에게 혹독하게 야단도 치고 응징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패보다 어떤 동기에서 화가 만들어지고, 그 동기가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결국 우리 바쁜 삶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나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는지, 그 욕구가 내게 정말 필요한 욕구인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동기라면 현명하게 추구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분노관리는 예방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와 분노의 표현을 구분하길 바랍니다. 흔히 '화를 낸다'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분노는 경험과 표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경험은 동기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적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매우 고통스럽기에 사람들은 문제라고 느낍니다. 분노의 표출 단계는 크게 2가지, 앵거아웃(anger-out)과 앵거인(anger-in)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직자 중에 분노표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정서를 느끼는 능력을 퇴보시킵니다. 감정 자체를 못 느끼게 돼 사람들과 교우하기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억압으로 분노를 관리하다보면 감정전체 체계가 와해됩니다. 따라서 분노를 느끼는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과정이 내 이해의 단초가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 나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를 통해 환경, 사람, 사회, 자연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너머에 있는 내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곧 상구보리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사회 부조리를 해소하려 행동하는 게 하화중생이 아닐까요. 이런 과정 전반이 우리의 성장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분노관리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수행을 하려 해도 하고자하는 욕구가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삶을 자각하는 것도 건강한 동기를 위해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면서 1000년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분노관리는 예방입니다. 동양에선 아직 발병하지 않은 병을 치료하면 최고 의술로 여깁니다. 성직자, 심리학자, 멘토들이 다 의사입니다. 평소 나에게 즐거움, 행복, 재미 같은 긍정 정서를 많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챙김 수행은 최근엔 종교를 떠나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는 수행입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화가 일어나려는 순간 자신을 관조하면 화가 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처에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늘 즐겁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공 고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신임회장단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는 그동안 제반의 사정으로 인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신임회장단 선출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 회원은 물론 향후 연합회의 대의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신규회원(각 종단 총무원장 및 각 불교 단체대표)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 래

■ 일 시 : 불기 2560(2016)년 12월 26일 (음, 11/28)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내 교육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효창동 255 / 02-799-3400)
■ 문 의 : 이사장 송산 010-8930-1578. 031-262-0606

※ 신규 회원 (각 종단 총무원장 및 각 불교 단체대표)은 현장 접수(신청자 비치), 사전 접수를 통해 당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이사장 송 산

우수 학술저자에게 듣는 '나의 불교학'

한국불교학회, 19일 동계워크숍 개최

우수 학술서적 저자들에게 자신의 저서 내용을 듣고 대중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2월 1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학'을 주제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힌두교와 불교〉를,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저서 〈불교를 철학하다〉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사회는 한성자 조선왕조실록 영문 번역위원이 맡는다.

김호성 교수는 인도와 대승, 일본불교에 대한 다수의 학술논문, 〈대승경전과 선〉,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등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며 학문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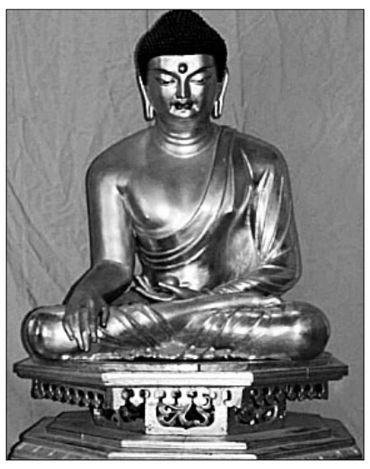
이진경 교수는 〈철학자와 굴뚝청소부〉, 〈맑스주의와 근대성〉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작가이기도 하다.

〈불교를 철학하다〉는 11월 3주째 종교 관련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일반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청량사 건칠약사여래 가치 조명

14일 학술대회 개최



최근 보물로 지정되며 한국 최고(催告) 건칠불로 인정받은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사진〉의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봉화 청량사(회주 지현)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용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팀장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조사경위'를, 정은우 동아대 교수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시기 재검토'를,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다라니와 전적자료'를,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가 '청량사 건칠불의 보존과학적 연구'를, 김이순 홍익대 교수가 '근대기 건칠조각'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에는 임남수(영남대),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손영문(문화재청), 이화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높이 90㎝, 어깨 너비 54㎝, 무릎 너비 72㎝ 크기이며, 1560년과 1715년에 중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신성민 기자

완주 송광사 역사 학술적 고찰

동양미술사학회, 16일 국립중앙박물관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소됐다가 벽암 각성 문도 스님들에 의해 중창됐던 완주 송광사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동양미술사학회(회장 최성은)는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의 창건과 조선후기 불교계의 동향'를, 김용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조선중기 벽암각성의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의'를, 한지만 명지대 교수가 '조선후기 선종사원 완주 송광사 가람 구성의 의미'를, 송은석 동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제존상과 무염파(無染派) 조각승'을, 엄기표 단국대 교수가 '완주 송광사 석조미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손성필 한구고전번역연구원 연구원, 이종수 순천대 교수, 한동수 한양대 교수,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 정성권 동국대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20년 後 한국불교 초고령화… 대책 시급"

이범수 교수 〈불교평론〉 '고령사회와 불교' 특집서 주장

20년 뒤 한국불교는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없을 경우 큰 위기에 봉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에 기고한 논문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초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베이비붐 이후 신노인층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도 차안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통계청 인구센서스와 조계종 연령별 승려 통계 등을 분석해 10년, 20년 뒤의 승가와 재가의 연령분포 값을 도출했다.

조계종의 경우 2015년 13,078명이 종단 소속 승려로 등록됐고, 65세 이상 수행자가 2,140명으로 고령화율은 16.36%이다.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이를 토대로 이 교수는 출가자 증가폭, 평균 사망률, 10년 뒤 고령인구 편입자 등을 계산해 10년 뒤 조계종의 고령화율이 36.1%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같은 방법으로 20년 뒤를 계산한 결과 고령화율은 54.8%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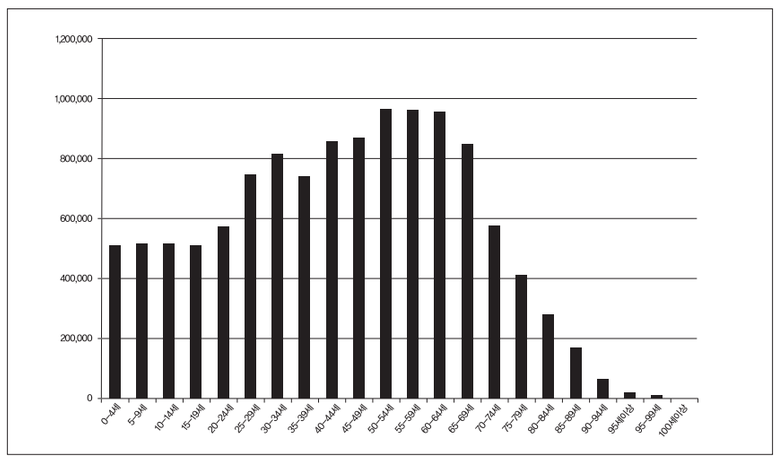
이 교수는 "한국불교는 2015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약 20년 뒤에는 승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가 신도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05년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불교 인구 수는 전체 인구의 22.8%인 1천72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통계청은 2025년 인구를 5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불교인구는 1천184만 명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고령화율을 환산하면 그 수치는 36.3%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하는 2025년 고령화율 29.4%보다 7%가 많다.

2035년 출가자 54% 고령
10년 뒤 재가고령율 36%
젊은 층 유입없으면 '위기'
신노인층 활용 차안 제시
'고령화 특별법' 제정 요구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25년까지 젊은 재가자가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5년에는 고령화율이 54%에 달하는 승가와 비슷해질 수 있다"면서 "한국사회의 고령화 비율보다 높아지는 재가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종책 등은 종단 차원에서 연구되거나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예상 불교인구 수와 연령별 비율 예상치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젊은 층들이 불교인구 편입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뾰족한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장차 노인층에 편입될 신노년층 불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종단 지도부에 주문했다.

신노년층 포교를 위해서 이 교수는 신노년층을 위한 복지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수행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범불교계 차원의 '고령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신노년층 활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해 다방면의 준비가 착오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 고령화 대책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가 복지는 현 시대에서 승가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었으며, 이를 받쳐주는 복지법이 제정돼 종단 내 많은 영향을 주며 꾸준히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령화 특별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 창작곡, 수명 연장이 급선무"

양영진 학예사 연등회 포럼서 최근 43곡 창작… 활용도 낮아

"2010년 이후 제작된 연등회 창작곡 중 대중율동곡으로 활용되지 못한 악곡이 20곡에 달한다. 이전 악곡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창작곡의 활용도는 행사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기에 '악곡 부르기 대회' 등 사업을 전개해 곡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연등회 음악의 수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는 12월 5일 서울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열린 '연등회 음악과 연희율동 포럼'에서 현재 연등회 음악 저변확대의 한계를 '부족한 활용도'로 꼽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등회 음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양 연구사는 대중율동곡의 변천시기를 △가요와 민요 · 창작곡의 혼재기(1997~2003) △내실 있는 창작이 이뤄진 안정기(2004~2009) △다작(多作)의 지속기(2010~2015)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지속기에 많은 곡이 만들어졌음에도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서 대중율동곡에 맞춰 단체율동을 선보이는 연희단.

양 연구사는 "지속기에 제작된 곡은 최대 7~9차례 걸쳐 재사용된 이전 악곡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곡이라는 많은 창작이 이뤄졌지만 이에 반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중율동곡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중율동곡의 발전방안을 국악학적 관점서 찾았다. 국립국악원이 198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창작국악동요제'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양 연구사는 "그간의 창작국악동요제 수상작이 300여 곡에 달하고, 총 25장의 앨범과 악보집을 발간했다. 전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국악동요를 발굴 · 보급하기 위한 목적은 연등회 대중율동곡 창작 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불교는 전통음악인 염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선율을 사용한 창작에 작곡의 방점을 둔다면 전통성을 훌륭히 내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창작국악동요제 수상작은 다방면에서 불린다. 창작 주체가 대부분 일선 교사들이고, 이 중 11곡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렸다. 또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사업으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면서 "연등회 '오늘은 좋은 날' '축제' '길 떠나자' 등의 악곡은 수차례 대중율동에 사용된 만큼 기존 창작곡 주제 선율을 활용한 공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면 이음사운드 대표는 "연등회의 전통성과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전통적인 리듬구조와 음색을 어떻게 현대적인 곡에 반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작곡자가 지닌 장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작곡자들이 고르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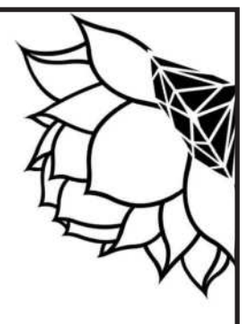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대강백 지안 스님, 扶宗樹敎 환희의 법석

〈부종수교〉

12월 3일 통도사 반야암 전강법회 열어

지안 스님, 전강 게송 전달
부처님 교법 영겁에 잇길 당부
제자 금강·한북·명오·대진 스님
"佛法 수호자 될 것" 존경 표해



12월 3일 '요산지안 대강백 강맥전수전강식'이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대진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교수), 한북 스님(대구 보성선원 주지), 대강백 지안 스님,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명오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대강백 지안 스님이 법좌에 앉았다. 인생을 회향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며 법문을 시작했다. 인생의 마지막 시점을 언급했지만 스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비친다. 부종수교(扶宗樹敎)는 '부처님의 법을 잇는다'는 승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안 스님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듯 전강게를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12월 3일 통도사 반야암서는 특별한 법석이 마련됐다. 지안 스님의 강맥전수 전강식이다. 전강식은 교가(敎家)에서 강맥을 전수하는 불가(佛家) 전통으로, 전법 의식 가운데 하나다. 또한 제자의 역량을 확인한 스승이 전강식을 통해 강맥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 청출어람 발군의 인재로 불법문중의 큰 동량이 될 것을 당부하는 자리다.

전강 제자는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 한북 스님(대구 보성선원 주지), 명오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교수), 대진 스님(동화사 승가대학 교수)이었다.

지안 스님은 먼저 금강 스님에게 설창(雪窓)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 법은 항상 어디에서나 설해진다.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고 돌이켜 비춰 보는 것이 참된 경을 보는 것"이라며 "마음을 밝혀 경안이 밝아질 것"을 당부했다.

한북 스님에게는 각송(覺松)이란 법호를 내리며 "온갖 방편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무량 인연을 따라 한량없는 중생을 해탈케 해주는 장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에 맞는 포교법으로 정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명오 스님은 석연(石蓮)을 법호로 받았다. 지안 스님은 "연꽃은 아시다시피 진흙 못에 자란다. 불가에선 연꽃을 비유해 법을 고찰하고 설해왔다. 불법의 핵심대오를 연꽃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깨달음을 얻으면 석연이 만공에 향기를 품을 것"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대진 스님에게는 문해(文海)라는 법호를 내리며 경전 공부에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다. 지안 스님은 "원래 법은 문자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을 깨닫는데 문자를 떠날 수 없다"며 "경전을 보는 사람들은 경전 글자 하나하나를 법신사리로 여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안 스님은 법문서 "오늘 전강 제자들을 오랜 시간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제자들이 강맥을 후대에 전달하고 부처님 법을 지켜나가, 불법을 융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강 제자들은 헌향, 고불문 봉독, 인사말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북 스님은 인사말서 "스님께서는 강사로서 학인을 가르치는 방법과 자세까지 세밀하게 일러주셨을 뿐 아니라 계정혜 삼학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며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했다.

전강법사인 지안 스님은 1970년 통도사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선 후기 대강백인 백파 긍선 스님과 근대의 대강백인 한영 정호 스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전수 받은 월운 해룡 스님을 법사로 강맥을 전수 받았다. 이후 통도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 직지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반야불교문화원장을 맡고 있다. 지안 스님은 2006년에 7명, 2008년에 3명의 스님들에게 강을 전했으며 이번이 3번째 전강식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직지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흥선 스님,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장 선지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차 공양으로 세계 평화 기원합니다"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차 공양을 올렸다. 12월 2일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주최한 '다문화와 함께하는 세계차문화 평화 한마당'에서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부회장 정현 스님·총무 도선 스님, 박차귀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천도교 공동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엔 베트남·몽골·인도네시아 다문화 다도팀 등이 함께 했으며, 다도시연 및 전통문화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더욱 풍성했다. 하성미 기자

'얼쑤!' 사물놀이로 나눔과 화합을

불광사, 12월 2일 풍물패 '불라다(佛羅多)' 창단 공연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의 '라오의 산들바람(회장 이복희)'이 풍물패 '불라다(佛羅多)'를 창단하고 기념공연 '땅울림'을 12월 2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서 개최했다.〈사진〉

'불라다'는 부처님 불(佛), 라오스의 라(羅), 다문화 가족의 다(多)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가정과 라오스에 부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겠단 취지로 창단됐다.

공연은 모든 참가자들의 복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시작해 불무도와 무당당검, 도량청정을 위한 경교, 모듬북, 영남사물, 판굿 등으로 진행됐다.

보광 스님은 "오늘 이 자리서 기쁨을 가득 채우고, 그 기쁨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기 바란다"며 "소리에 맞춰 어깨춤도 추고, '얼씨구나' 추임새도 넣어가며 함께하자"고 말했다.

'라오의 산들바람'은 무료급식 및 매월 경로당 및 장애인 시설 급식을 진행하고, 다문화 가족 장학금과 라오스 학교 건립 및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파라미타, 20주년 청소년 예술제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이하 부산 파라미타)는 20주년 맞이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한다. 12월 17일 오후 2시 부산정보고등학교 체육관서 열린다.

청소년 예술제는 부산정보고, 금정중, 해동중, 성심보건고, 학산여중 등 분회원 학생 300여명이 참가한다. 예선을 거친 10팀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춤과 노래, 연극 등 다양한 무대가 경연으로 펼쳐진다. 대상·금상·은상 각 1팀과 동상 2팀, 입상 5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된다.

백명숙 부산 파라미타 협회장은 "20년의 긴 시간 동안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격려했다. 이번 예술제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기량을 펼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051)513-4306 하성미 기자

부산 불교, 추위 나눔으로 녹이다

무료 급식소 및 복지관, 나눔실천의 장 열어



백운사 무료급식소 우담 자비원은 12월 7일 급식소서 사랑의 일일 찻집을 열고,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차가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산 불교 복지관과 무료급식소가 나섰다.

부산 반송 백운사(주지 마나)가 운영하는 우담 자비원이 사랑의 일일 찻집을 열었다. 12월 7일 우담자비원 급식소서 처음 개최된 '사랑의 일일 찻집'은 무료급식 뿐 아니라 겨울 용품을 지원해 더욱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찻집으로 모은 성금은 반송 지역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 용품으로 회향된다.

사랑의 일일찻집에는 경담 스님(전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장)을 비롯해 백운사 신도, 지역민 및 새터민 봉사자까지 참여해 나눔에 동참했다.

마나 스님은 "6년 동안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눔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담 자비원은 2010년 9월에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로 문을 열어 매주 금요일 급식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051)542-4630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구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혜정)은 12월 7일 부산 괴정 한 식당서 쪽방어르신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먹거리 장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 뿐 아니라 복지관 관계자들이 동참,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눔을 실천한 훈훈한 자리였다.

이혜정 관장은 "추운 겨울 쪽방 어르신들을 위한 많은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복지관 식구들과 지역민들 그리고 불교계 많은 분들이 보여준 관심은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051)263-3045

위드아시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독거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정, 장애인세대를 위한 '사랑의 겨울 나기'를 진행 중이다. 사랑의 겨울나기는 김장김치 및 방한용품, 보일러 기름, 난방용품, 담요, 이불 등을 후원받아 지원하는 행사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며 "추운 겨울 온 종일 차가운 바닥서 지내야하는 분들을 위해 많은 후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후원금과 물품 모금은 12월 30일까지 진행한다. (051)628-6737 하성미 기자

해운정사, 송년회 및 산사음악회

주지 청명 스님,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자"



대구 달서구 해운정사(주지 청명)는 12월 4일 '제7회 해운정사 송년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 문수암 월오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 대응공사 도경 스님 등 도반 스님들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명 스님은 "올 한 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보단, 무엇을 이루고 무엇 때문에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며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니 행복한 사람임을 알겠다. 오늘 자리를 통해 소중한 불자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더욱 행복한 수행정진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조태흠 신도회장은 "늘 부처님 전에 감사하며, 뜻 깊은 올 한 해도 수고한 임원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도심 속 가람서 근심 걱정을 다 놓아버리고 좋은 인연들을 맺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소원을 이루는 크리스탈 칼라 테라피

소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실하지 못한 동기(부족함 때문)
②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엇을 바라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달라진다.

8주완성

(색) 칼라의 힘

■ 1교시 :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칼라공부
붉은색 :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노랑색 : 예전의 두려움, 전생부터 짐져온 불안 초조
■ 2교시 : 정확하고 재미있는 아주 쉬운 숫자로 보는 사주
■ 3교시 : 다가올 건강을 지적해주고 성형을 지적, 상담해 줄 수 있는 관상학

자기 자신을 먼저알고 자신의 기운을 먼저 바꾸고 상담해 주는 당신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상담문의 : 010-5658-2657

정읍 일광사,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점안



전북 정읍시 일광사에 십일면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나투었다.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는 12월 5일 십일면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김제 은적사 도일 스님, 익산 관음사 정수 스님,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을 비롯해 마하연승가회 스님들과 김생기 정읍시장, 정인택 前대불청 전북지구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새로 조성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에 경전과 다라니 등의 복장을 봉안하는 복장의식과 생명을 불어넣는 점안식은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주지 승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조성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진리로 이끄는 보살이다. 일광사가 불자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고 기도와 정진을 멈추지 않는 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전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은 약 3m 높이의 통나무로 제작됐으며 십일면 부처님을 상두로 49수지와 천수천안으로 광배와 좌상을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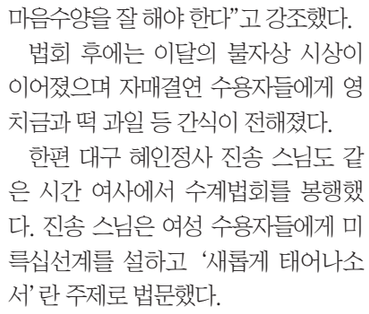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치 깨달아 모든 걸 내려놓다"

불교무용가 박준희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불교무용창작극 '인생별곡'이 12월 1일 조선대 해오름관서 펼쳐졌다. △1장 세상살이 △2장 악몽 속에서 △3장 가느다란 추억 △4장 깨달음의 길에서로 구성된 공연은 욕망과 증오 가득한 세상서 이치를 깨닫고 내려놓음을 통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담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교도소 수용자 "참회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영어의 삶을 살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이 지난 잘못을 참회하며 불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전주교도소 불교반위원회(위원장 진성)는 12월 1일 전주교도소 강당서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익산 대인사 지오 스님, 전주 황방사 지호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불자들이 참석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을 수계법사로 200여 명의 수용자들이 동참한 수계법회서 수용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연비를 받았다.

승천 스님은 "수계자들은 미륵십선계를 받은 뒤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마음수양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 후에는 이달의 불자상 시상이 이어졌으며 자매결연 수용자들에게 영치금과 떡 과일 등 간식이 전해졌다.

한편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도 같은 시간 여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진송 스님은 여성 수용자들에게 미륵십선계를 설하고 '새롭게 태어나소서'란 주제로 법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구본사 중심 지역사찰 유대 강화"

윤중근 광주전남포교사단장 12월 3일 전진대회서 취임



단기를 전달받은 윤중근 신임 광주전남포교사단장.

조계종 광주전남포교사단이 새 단장 취임에 따라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지역사찰 간 유대강화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주전남포교사단(단장 윤중근)은 12월 3일 광주 수자타에서 '불기2560년 광주전남포교사전진대회 및 단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200여 광주전남지역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례에 이어 연혁보고, 단기 인수인계, 이취임식, 시상, 격려사, 축사, 법문 등이 진행됐다. 전진대회는 한 해 동안 활동한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행사와 더불어 김정연 전임단장의 일신상 사퇴로 인해 새로 선출된 윤중근 신임단장의 취임행사도 함께 열렸다.

제9대 윤중근 신임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단장님께서는 깊은 불교적 수행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단 포교사의 사표가 돼주셨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단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 △수행과 정진으로 포교에 진력하는 포교사 상을 세우도록 노력(정기연수, 정기법회 참여 독려, 포교활동팀의 전문화 교육실시) △환희와 생동감 넘치는 지역단 운영(포교사 개인의견 수렴, 단장과 팀원들 함께 활동) △지역 중심의 효율적 운영(포교사들의 조직개편과 교구본사 중심으로 지역사찰 유대강화) △나눔행사 활성화(사회약자 돕는 봉사활동 확대, 농어촌지역 봉사활동 실시) △화합하는 지역단 운영(포교사간 대화와 친선모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1년간 우수한 포교활동을 펼친 포교사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 자리서 총재상 조기남 포교사를 비롯해 포교사단장상 오양례, 지역단장상 이창욱 · 박숙아 · 손화자 · 송기진 · 김종미 · 양경행 · 김기정 포교사가 수상했다.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려운 국가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마음가짐이다. 불자들은 불교적 수행을 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포교사들은 지역포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찰, 불자들과 함께 늘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군법당 수계법회 잇달아

선운사 · 송광사, 훈련 지친 장병들 위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 참석한 장병에게 연비하고 있다.

전북지역 사찰들이 잇달아 군법당 수계법회를 봉행하며 불자장병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2월 3일과 4일 각각 육군 논산훈련소와 임실 제6탄약창을 방문해 불자장병들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위문공연을 펼쳤다. 호국연무사 큰법당에 5,000여 명의 훈련병들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을 비롯해 재무국장 수찬 스님, 학인스님들, 불교어머니회, 대전충청포교사단 포교사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수계법사로 등단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건강한 군생활과 안전하고 즐거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우 스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다녀와야 하는 것이 군대"라며 "억지로 하는 군생활보다는 전우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군생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훈련병들은 계를 지키고 신심 돈독한 불자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맹세하는 연비의식을 통해 바른 군생활을 기원했다.

법회 후에는 댄스그룹 '소울 퀸'의 무대공연이 이어져 연이은 훈련에 지친 병사들을 격려했다. 또 선운사는 훈련병들을 위해 먹을거리와 볼펜, 수계첩, 합장주, 세안제, 만자 펜던트 등의 선물을 후원했다.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에서는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이 계사로 등단해 장병들에게 계를 설했다. 170여 장병이 동참한 수계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미륵십선계를 설하고 "추운 겨울 병사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행복한 군생활을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영 스님은 장병들을 위해 간식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율 스님 광주서 첫 개인 콘서트

노래하는 스님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가 12월 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지역 불자들의 성원 속에 열렸다.〈사진〉

'불교계의 프리마돈나'라 불리며 국내 · 외 여러 무대서 음성 포교를 하고 있는 정율 스님은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3배와 5분 명상을 시작으로 마하가섭중창단과 함께 2560년 전 인도 여행을 떠나는 노래 '띠사라나(삼보께 귀의하는 노래)'를 들려줬다.

콘서트에는 정율 스님 외에 광주지역 연합합창단과 108인 부다스합창단 등 대규모 인원이 무대에 올라 '꽃 피울 때까지' '희망의 나라로' 등을 합창하며 화합을 기원했다.

정율 스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 우리는 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지혜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인연으로 행복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사찰식품연합회 영평사서 현판식

대한전통사찰식품제조연합회가 12월 2일 세종 영평사에서 현판식 및 대표이사 취임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수행' '노동' '전법' 3대 원력의 가치 아래 열린 현판식 겸 취임식에서는 초대회장에 산청 천평사 대전 스님, 연합회 감사에 영평사 환성 스님, 대표에 하철권 씨가 취임했다.

환성 스님은 "이익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단순한 식품 제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전통사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화 선원사 성원 스님, 하동 상선암 보성 스님, 상전녹사 보전 스님이 동참했다.

박장선 충청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 라 밀 예 술 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수만 가지 방편도 깨달음 외길 위한 것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㊻ 진리에 가까워지는 현장법사



그림 · 최주현

부처님 땅에 도달해서 만나는 갈림길…. 낡은 통나무로 된 아득한 외나무다리, 밑바닥 없는 배. 이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도달한 현장법사 일행을 끝까지 괴롭히기 위한 시험?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면 다시 요괴를 등장시킨다던가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갈림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득한 외나무다리는 깨달음에 이르는 마지막 외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네요. 수만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외길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방편을 통해 깨달음을 지향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한 외길 하나뿐이라는 것이지요. 수만 갈래의 길, 그 길이 겉으로는 다른 길일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겠지요. 또 수만 갈래의 길을 통해서 오지만 결국 하나의 부처되는 길로 합해질 뿐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박차고 뛰어오르지 않으면 어찌 그 지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일상적인 삶에서 누릴 거다 누리면서 슬슬 해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다지셨던 각오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혜가 스님이 팔 한쪽을 잘라서 바치던 그 마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일상의 안일함을 떨치는 분심이 있어야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요, 그런 길의 마지막 고비는 역시 여기 나오는 아득한 외나무다리처럼 힘든 외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아깝게 생각지 않고 그 외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채찍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심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현장법사도 태생적인 두려움만은 어쩔 수 없는지 "죽어도 못해!"가 되니 어쩐다지요? 현장법사도 죽어도 못 건넌다는 다리가 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은 어쩌라구요! 죽고 죽고 몇 번을 죽는대도 못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외나무다리 건널 중생은 몇이나 될까요? 부처님 처소에는 결국 아무도 못가고 마는 것 아닐까 걱정되네요.

그래서 삼쾌선생은 과감하게 다른 해석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교계에서는 무식한 도깨비라는 말씀 드렸지요?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몰라본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부적 몰라보는 무식한 도깨비인 삼쾌선생, 불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과감한 주장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 아득하고 아찔한 외나무다리는 부처님 나오시기 이전, 친절한 안내 없던 시절에 건너던 옛길이라는 해석이지요. 그렇게 아찔하고도 아득한 외나무다리를 건넌 마지막 분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건너는 사람 없는 길이고, 이제는 이미 그 길을 건너 목적지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 닦아주신 편안한 새 길이 있다는 거지요. 하하, 어떻습니까? 삼쾌선생의 참신하고도 발랄한 생각이……. 에구구, 참신한지 발랄한지 모르겠다구요? 특히 발랄이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멋에 혼자 취해버렸군요. 생각해보니 참신한 생각 전혀 아닙니다.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수많은 조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수많은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방편을 취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부처되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야 홀로 그 길을 여시노라 참으로 고생을 하셨지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신 부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고생 좀 해 보거라"하는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부처님'이라는 칭호에 어울리지 않지요. 당연히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고생을 중생들이 거듭 겪지 않도록 수많은 탈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대승이다 소승이다 할 때의 승(乘)이 무슨 뜻입니까? 험하고 먼 길 쉽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탈것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크게 대승 소승 하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탈것이 있습니까? 자신의 근기와 취향에 맞는 탈것을 잘 골라 타기만 하면 우리는 편하게 부처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기리고 높이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삼쾌선생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신하다느니 발랄하다느니 하는 생각을 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외나무다리는 깨달음 의미
강물의 시체는 육신 초탈
목숨 건 도전이 곧 수행

늘의 우리 불교계가 부처님이 마련해주신 그 많은 좋은 방편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부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많은 탈것을 팽개치고, "나는 부처님처럼 고생 고생해서 깨달을 거야!"라고 외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양 극단을 다 겪으시고 그것을 지양한 중도의 길을 보여 주셨는데, 그러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중도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고 부처님 하셨듯이 양 극단 다 겪어보고 스스로 중도의 소중함을 깨닫고야 말겠다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은가 싶구요. 그렇게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가 아득하고 아찔한 외나무다리에 목숨 걸고 도전했다가 비극적인 추락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길 걷는 분들은 그래도 용기가 참으로 장한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은 열정 자체만은 참으로 고귀하다 할 수 있고, 그 열정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큰 성취를 이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런 열정도 없이 명색이 부처님 문중에 있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마련해 주신 탈 것 아예 쳐다도 안보고, 그저 일상적인 안락에 탐닉하고, 오욕락의 삶에 몰입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만을 바라는 수많은 불자들이 또 있지 않은가요? 이런 불자들은 아찔한 다리고 편한 다리고 아예 찾으려 하지 않지요.

오늘의 불교에는 이런 두 부류의 불자들이 너무도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삼쾌선생의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이 늘 있다 보니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자상하게도 말씀해주셨던 것을 마치 참신하고도 발랄한 생각이라고 내세웠던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삼쾌선생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라셨던 분들도 오늘의 불교를 걱정하는 삼쾌선생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용서해주셔유.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마련해 놓으신 수많은 탈것들에 올라타서 부처되는 길을 질주하는 신명나는 불교를 이룩하는데 힘을 보태주셔유!

다시 서유기로 돌아가 볼까요? 삼쾌선생의 무식한 도깨비 해석을 밑받침해 주듯이 서유기에 바로 쉬운 탈것이 등장하는군요. 밑바닥 없는 배입니다. 밑바닥이 없다는 점에서는 황당하지만, 그래도 아득, 아찔한 외나무다리처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상징적으로 이 배를 모는 사공의 정체가 바로 접인조사(接引祖師)입니다. 중생을 부처님 나라로 맞아들이는 조사님이지요. 부처의 화신입니다. 사공으로 화신하여 중생을 고해로부터 부처 땅으로 건네주는 부처님이 바로 접인조사지요. 그러니 그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힘입어 마지막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아득하고 아찔한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부처님 땅에 도달하게 해주는 탈것, 그것이 바로 무저선이라는 방편이지요. 그러니 무저선이야말로 반야선입니다. 지혜의 배입니다. 우리들이 늘 읽는 천수경이 생각나네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지혜의 배에 타게 하소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고해를 건너게 하소서." 이걸 서유기 버전으로 바꾸면 "이 마음 그대로 무사히 부처님 나라에 도달하여, 접인조사님 띄우시는 밑바닥 없는 배 타고 거센 흐름 건너게 하소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하.

그런데 여기서 좀 풀어봐야 할 것이 생겼네요. '밑바닥 없는 배'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여기서 삼쾌선생이 유식함을 자랑한다면…. 어험, '손오공이 기가 막혀' 연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요. 그래서 그 유식함을 최대한 절제하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멍 없는 피리', '줄 없는 거문고', '바닥없는 바릿대' 같은 말 들어보셨지요? 밑바닥 없는 배라는 것은 바로 그와 비슷한 계열의 비유입니다. 근원적인 진리에 바탕하여 모든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그렇지만 그 근원적인 진리는 말로 표현되기 힘듭니다. 말로 표현되는 순간 말의 제한성 때문에 가려지게 마련이지요. 모든 것이 그것에 의존한다는 측면과 그것이 언어나 기타 방편으로 표현되기 어렵다는 측면 두 측면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위와 같은 비유들입니다. 피리로부터 소리가 나오는데, 정해진 구멍이 있으면 한정된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문고도 마찬가지지요. 한정된 줄이 있으면 한정된 소리밖에 나오지 못하지요. 중생을 이익되게 해주는 밥을 담는 밥그릇, 그것에 바닥이 있으면 그 이익됨도 한정됩니다. 구멍 없고, 줄 없고, 바닥없음…. 그것은 언어적 표현을 뛰어넘는 궁극적 진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비유적 표현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지요. 지금 이 대목은 부처님의 땅으로 건너가는 방편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배라는 상징을 택한 것이지요. 바닥이 없다는 것은 한정된 방편의 제약을 넘어서는 자재로운 방편을 통해 모든 중생을 모두 건네줄 수 있는 궁극적 방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땅에 가기 위해서 타는 마지막 배, 그것이 바로 무저선입니다. 지혜의 배입니다. '손오공이 기가 막혀' 읽으시는 모든 분들, 함께 무저선 타고 부처님 나라 유람체험 해 보실까요? 예약 받습니다. 일찍 하시는 분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이크, 헤매니즘 중지! 빨리 제자리 찾기입니다. 빨리 현장법사 일행 배로 건너드려야지요. 그런데 건너는 중간에 조금 이야기거리가 생겼네요. 강물에 시체가 떠내려오네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목구비 뚜렷한 현장법사 시체로군요. 그런데 "에구, 끔찍해라!"가 아닙니다. 요즘 말투, 아니 조금 시대 지난 말투로 "감축 드리옵니다!"입니다. 손오공 표현으로는 "스승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육체를 벗어나셨군요!"입니다. 현장법사가 육체적 구속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는 것을 강물에 시체가 떠내려 온다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불교에서도 육체적 구속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특히 도교적인 관점에서는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거짓된 이 몸을 벗고 영생하는 참된 몸, 신선의 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법사가 드디어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현장법사는 속된 몸을 벗지 못해 구름도 못 타거든요. 이제 구름도 탈 수 있습니다. 구름 부르는 도술은 못 익혔지만 탈수는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바로 코앞이지만 뇌음사까지는 구름타고 쌩~ 달려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뇌음사에 도착해 있겠지요?





敎·密 종파 시원… 동아시아 불교 발전사 담다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⑤ 지상사·화엄사·흥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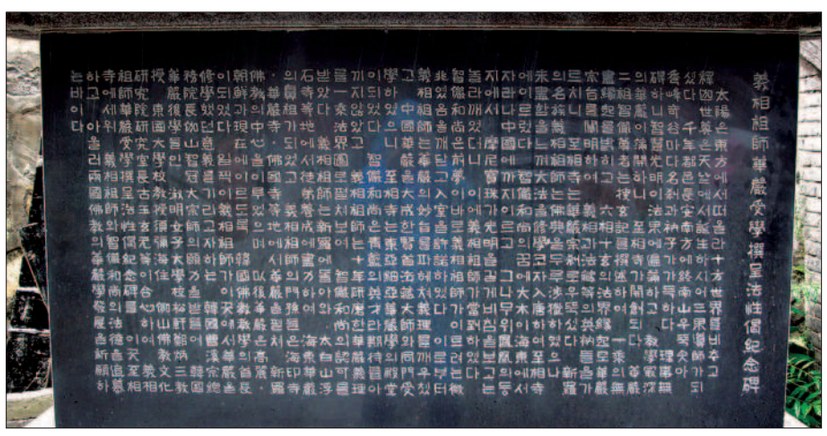
신라 의상 스님 머문 지상사
지엄 스님에게 화엄사상 배워
귀국 후 '해동 화엄' 길 열어
中 화엄종 본산 화엄사 '눈길'

흥선사, 中 밀교의 발원된 곳
신라 혜초 · 日 쿠카이도 수학
동아시아 불교 교류 단면 확인


중국 서안 지상사 대웅보전 전경. 지상사에서 의상 스님은 화엄종 2조 지엄 스님을 만나 화엄 사상을 배웠다.



의상 스님의 진영. 해동화엄 초조로 숭앙받고 있다.


지상사에 건립된 의상 스님이 화엄을 수학했음을 알리는 기념비.


흥선사의 자안지장왕보살. 서안 시민들이 복덕을 기원하는 장소다.

'해동 화엄'의 뿌리를 찾다

지상사는 중국 화엄종의 조정(祖庭)이자 발상지로서 실질적인 화엄종의 종찰로 손꼽히는 사찰이다. 수나라 문제 개황 초년 동연 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당나라 시기에 전성기를 맞는다. 당대 고승들이 많이 주석했는데 화엄종 초조 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등이 지상사에 주석하면서 화엄종을 전파했다.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과 찾은 지상사는 최근 중창불사를 거쳐 완연한 사격을 갖추었다. 현재 사찰에서는 의상 스님이 주석하며 화엄을 배웠던 것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는 2007년 12월 조계종이 건립한 것으로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등이 글을 썼다.

의상 스님은 이곳에서 지엄 스님에게 화엄 사상의 요체를 배운다. 최고의 화엄 학승에게 수학한 결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668년 저술한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화엄일승법계도〉는 7언 30구 210자로 화엄 사상의 핵심을 도인(圖印)으로 나타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엄일승법계도〉의 게송(偈頌)들은 4개의 '회(回)' 자 모양의 도인(圖印)으로 구성돼 있는데, 첫 글자인 '법(法)'과 마지막 글자인 '불(佛)'이 가운데에서 다시 만나 이어진다. 특히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라는 구절은 모든 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연기(緣起)를 나타낸다.

의상 스님은 중국 화엄종 3조인 법장 스님이 화엄종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에게 보낸 서신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법장은 서신에서 "상인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 화엄경을 개연천명해 법계무애연기를 선양해 겹겹의 제망으로 불국을 새롭게 하여 크고도 넓게 이익을 끼치신다고 하니 기쁨이 더욱 더하고 이로써 부처님 멸후에 불법을 빛내고 법륜을 다시 굴려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하는 이는 오직 법사임을 알았습니다"라고 상찬했다.

18세 연하였던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을 사형이자 멘토로 모셨던 것은 분명하지만, 의상 스님은 671년 신라로 귀국했다. 귀국 후에도 법장은 신라 유학승을 통해 의상의 안부를 묻고 서신을 보내곤 했다.

의상 스님이 신라로 급히 귀국한 것은 신라와 당 사이에 전운이 돌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는 의상 스님이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의상 스님은 676년 왕명에 따라 영주 부석사를 건립하고 그 곳에서 화엄의 교리를 널리 전파했다. 그의 명성은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지며 '해동(海東) 화엄(華嚴)의 초조(初祖)'라고 불리게 됐다.

의상 스님이 한반도와 일본에 화엄을 전파할 수 있던 시작은 중국 서안 종남산 지상사에서 지엄 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유학생 의상의 그릇을 알아보고 그에게 화엄의 요체를 가르쳤던 지엄 스님의 혜안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한 것이다.

중국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은 지상사 이외에도 화엄사가 있다. 803년 지어진 화엄사는 작은 동굴들을 법당으로 사용한 사찰이었다. 과거에는 제법 큰 규모의 사찰이었으나 쇠락을 거쳐 지금은 한창 도량 정비 불사가 진행 중이다. 순례단이 찾은 날에는 내렸던 비로 인해 가는 길이 모두 황토 진창으로 변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현재 화엄사에는 화엄종 초조부터 4조까지의 사리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청나라 시기 산사태로 인해 초조 두순과 4조 징관의 탑만이 남았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

앞선 두 사찰이 교종(敎宗)의 중심이었다면 서안 시내에 위치한 흥선사는 밀종(密宗)의 시원이다. 흥선사 정문에 들어서면 '국토장엄(國土莊嚴) 이락유정(利樂有情)'이라는 문구가 눈의 띈다.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문구에서 흥선사가 가지는 위치를 알 수 있다.

현재 흥선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관광객, 순례객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사찰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향을 사르고 불보살에게 복덕을 기원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젊은 커플들이 부처님께 참배를 드리며 데이트를 즐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흥선사가 창건된 것은 서진 무제 시기인 265년이다. 수 · 당 시대에는 이곳에 역경원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인도 출신 외국인 승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주목해야 하는 스님은 스리랑카 출신 불공 스님이다. 그는 인도어, 자바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해 남들이 12년 걸리는 번역을 6개월만에 끝내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불공 스님의 법을 이어받는 8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혜초 스님이다. 그는 흥선사에서 역경하고 천복사에서 금강지를 만나 밀교를 배우기도 했다.

당나라 국사의 자리까지 올랐던 다른 제자 혜과 스님은 신라승 혜일과 일본승 쿠카이(空海) 스님에게 밀교의 법을 전했다. 특히 쿠카이 스님은 귀국 후 일본에 밀교 진언종을 전파했다. 흥선사에는 쿠카이 스님 동상이 있고, '자각대사(慈覺大師) 기념당'도 건립돼 있다.

종파 불교와 관련된 사찰을 순례하면서 놀란 것은 당나라 당시 장안의 다양성 · 개방성이다. 실력있는 신라 · 일본 유학승들에게 자신들의 종파 교리 요체를 전달해주는 것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일불제자'라는 상호 가치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나라 시기 불교의 개방성은 민족 · 이념 등으로 나눠 갈등과 반목하는 현재의 우리가 반성하고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중국 서안= 신성민 기자




희소식
뱃살로 고민하십니까?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두통으로 고통받습니까?
뱃살 → 일주일 무료치료
효과 없으면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두통으로 1년에 몇 번씩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 이상은 빙의에 접신되어 시달리는 것입니다. 전화만 하셔도 2분내로 고쳐드립니다. 단, 몸 자체에서 일어난 두통은 침으로 무료치료 해드립니다.
소납은 마음 먹으면 영의세계인 사차원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수행을 40여년간 노력하여 완공한 결과 하늘세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능력의 도를 이루었고 우연히 달마대사를 가르치신 영적 스승인 사부님을 만나게 되어 특이한 신통 묘용을 전수 받았기에 모든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원칙과 진리의 정법 도량입니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을 수 있는 도의 영적제자가 되고 싶은 분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절대로 사이비가 아닙니다)
청주본산 청심사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83-4 Tel. 043)252-6771
서울법당 주연정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3-41 Tel. 02)3392-2489
상담전화 010-3176-345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번뇌 괴로움 알아야 깨달음 이어진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⑪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이츠키 히로유키(五木寛之, 1932~)는 일본에서 문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 받는 인기 작가이다. 왕성한 필력으로 많은 소설과 수필을 집필했고,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작사 작곡도 하는 등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다.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본인이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또한 그의 베스트셀러 작품들이 영화, 드라마, 연극 등으로 제작되어 흥행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미 문학 작품을 번역했고 그 번역서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게만 보면 이츠키는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성공한 작가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의 인생초반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순탄치 못한 그의 과거가 우리나라의 암울한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츠키가 갓 난아기 때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일제치하에 놓여있던 한국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오게 되고, 이츠키는 서울과 평양에서 유년기와 소년기 시절을 보내며 자랐다. 어떤 면에서 그의 실질적인 고향은 한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마비되자 이츠키의 가족은 난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평양에서 패전을 맞은 그들은 곧바로 이어진 남북 분단과 소련군의 남하로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죽음, 같은 일본인끼리의 배신 등 처참하고 비인간적인 경험을 겪게 된다.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47년이 되고 나서였다.

이때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했는지 이츠키는 "자신이 체험한 비인간적인 일을 쓰는 것은 자기 고백이나 참회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하늘에게 해야 할 일이지 공표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의 일을 밝히기 꺼려했고, 실제로 자신의 귀환 과정을 글로 쓴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이츠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갔다. 훗날 명문 와세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 결국 제적당했고, 아버지는 끝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어두운 젊은 시절을 보낸 이츠키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시점에서 불교에 심취한 것도 이러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츠키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릴 적 난민생활과 참혹한 전쟁 경험, 특히 어머니의 죽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상당했던 탓에 본인 스스로가 종교를 통한 치유와 구원을 강하게 열망했던 것 같다. 그의 후반부 활동 대부분이 불교관련 작품 집필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불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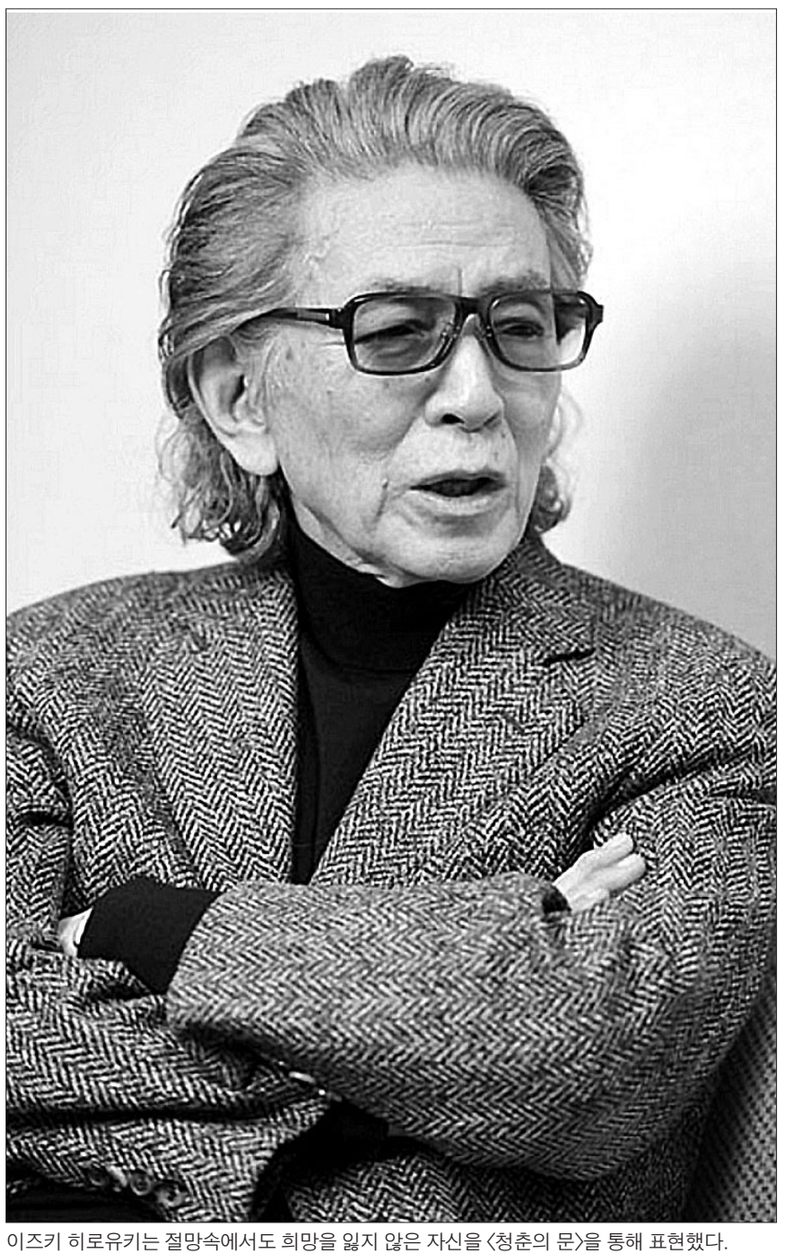
그래서인지 이츠키의 작품에는 절망과 분노, 인간의 무력함이 도사리는 가운데 치유와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군상의 모습이 많이 표출되어 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작품 중 이 모든 것을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담아낸 대표작이 〈청춘의 문(青春の門)〉이다.

〈청춘의 문〉은 1969년 〈주간현대〉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 1993년까지 계속 이어진 대하소설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2,200만부에 달한다.

이처럼 〈청춘의 문〉이 오랜 세월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격동의 시대,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소설 속 주인공 이부키 신스케(伊吹信介)의 외침이 시대를 초월해

한국전쟁서 난민생활 경험
종교를 통한 치유·구원 갈망
〈청춘의 문〉에 사상 투영


이즈키 히로유키는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자신을 〈청춘의 문〉을 통해 표현했다.

강한 울림을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청춘의 문〉은 패망직전 일본을 배경으로 어린 주인공 신스케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하지만 소설은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해가며 전인적인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내용과는 다르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신스케의 갈등과 욕망, 내면의 심리상태는 번뇌에 괴로워하는 중생의 모습 그 자체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탄광 광부였다. 하지만 탄광사고로 갱내에 갇힌 징용 조선인들을 구하고 죽음을 맞는다. 어머니는 신스케를 낳는 과정에서 산고로 목숨을 잃고, 새어머니 다에(タエ)의 손에 자라게 된다.

일찍 부모를 여읜 주인공은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여기서 겪게 되는 성장통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구도의 길일 수도 있다.

신스케는 삶이라는 고해(苦海) 속에 던져진 채 홀로 허우적거린다. 부처님이 설하신 고제(苦諦)의 모든 것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다. 고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고의 종류를 여덟 가지로 통찰하셨다. 먼저 생(生)·노(老)·병(病)·사(死) 네 가지가 고통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물건 등 애착을 일으키는 대상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愛別離苦]이 고통이다. 원망하고 증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怨憎會苦]이 고통이다. 너무나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求不得苦]이 고통이다. 물질과 감정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우려는 욕구[五蘊盛苦]가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사고팔고(四苦八苦)라고 한다. 이 사고팔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이다.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작은 성과 하나를 내려 해도 인내 속에 노력해야 한다. 멋진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성공은 영원히 성공으로 머물러있지도 않다.

주인공 신스케의 삶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고해 속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신스케는 어떠한 것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에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부모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고, 가난을 벗어나기도 힘들었다.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신스케에게 고통만을 남겼다.

소설은 〈청춘의 문〉이라는 제목답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성문제에 고민하는 주인공의 심리를 세밀한 문체로 표현했다. 성(性)에 눈뜨기 시작한 주인공은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만큼 여성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하지만 호기심을 넘어 성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은 오온성고(五蘊盛苦)에 빠진 채 끝 모를 허무함 속에서 괴로워할 뿐이다.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사랑에 괴로워하지만 한편으로 영원한 사랑에 집착했던 신스케는 결국 '얻을 수 없는 것은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겹게 성장통을 치러낸다.

〈청춘의 문〉은 단지 신스케의 성장과정만 담긴 소설이 아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제국주의에 희생양 됐던 한국의 역사는 물론, 전쟁의 참혹함과 민족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전쟁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물이다.

"국가라는 건 말이야, 여차하면 국민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다고.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 만주를 생각해봐. 알몸이나 다름없는 개척민의 아녀자들이 소련군 전차 앞에 누더기처럼 내던져졌잖아. 처음에는 신천지 개척의 의용군 어쩌고 하면서 치켜세우며 가난한 산촌에다 떠들썩하게 선전해서 식민지로 보내놓고는 전쟁에 지니까 모른 척 해버리잖아. 몇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중국에 버려졌다고. 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알아! 돈에 팔리거나 먹을 것과 맞바꿔져서 그쪽에 남겨진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야."

(청춘의 문, 도전편 p.474)

소설 속 신스케와 니시자와(西沢)의 대화이다. 만주에서 일본으로 생환에 돌아온 니시자와라는 인물이 신스케에게 들려주는 참혹한 내용의 사실이었다.

이 부분은 작가 이츠키의 체험이 녹아든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츠키와 그의 가족들이 소련군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평양을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이후 본토인들은 동정은커녕 냉담한 시선으로 이츠키와 생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본토에서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식민지에서 지배자처럼 잘 지내왔으니까 당연한 인과응보가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츠키는 "만주와 한국에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본토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츠키의 국가관을 엿볼 수 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비도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약 일본으로 강제 징용되어 왔다가 죽은 조선인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자신들의 피해 체험만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어딘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일종의 죄의식이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자국민에게서도 모멸 당했던 이츠키는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의지처는 어디인지 강하게 모색했을 것이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불교'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1969년 연재를 시작해 1993년까지 이어온 〈청춘의 문〉은 사실 아직 완결 되지 않은 소설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소설은 미완의 작품인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청춘의 문〉 집필 기간이던 1981년, 교토에 있는 류코쿠대학(龍谷大學)에 청강생이 되어 불교사를 4년간 학습한 점이다. 이츠키는 이때부터 많은 불교작품을 집필하기 시작했으며, 비록 작가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집필된 〈청춘의 문〉도 불교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측된다.

〈청춘의 문〉은 조만간 새로운 연재를 앞두고 있으며 이츠키의 열렬한 독자들은 그의 관록과 불교적 사상을 녹여내 작품을 완결시키리라 기대하고 있다.

결국 〈청춘의 문〉은 작가 자신을 투영시킨 주인공 신스케의 방황과 성장과정, 그리고 시대적 혼돈이라는 복선 속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결정이 내린 참혹한 결과'를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인공 신스케는 고난과 원증회고의 인간관계에 놓여있어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는다. 고해에서 풍랑을 만났지만 희망이라는 방향타를 꼭 쥔 채 악(惡)에 빠지지 않고 선(善)으로 회귀하려는 구도자의 풍모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신스케를 결코 모범적이고 훌륭한 성품의 인물로 그려내지 않는다. 그저 번뇌 속에서 선과 악의 줄타기를 시키며 신스케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작품은 마치 '우리 모두는 어리석으며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청춘의 문〉의 주제는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뇌(煩惱)와 깨달음[菩提]은 둘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번뇌가 곧 깨달음의 인연이 된다는 이 말처럼 번뇌의 괴로움을 자각해야만 비로소 깨달음과 맞닿는 길도 보일 것이다.

근래 〈타력(他力)〉, 〈신의 발견〉, 〈부처의 발견〉 등 불교적 글쓰기를 통해 극복과 치유를 모색하고 이츠키 히로유키의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된다.



주성원(前 불광연구원 연구원)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2.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산문 밖의 禪

정경연 설치미술가 (61 · 홍익대학교 미술대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교수)

장갑으로 佛法 펴는 미술가…



정경연 교수는…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했다. 메사추세츠 컬리지 오브 아트에서 학사를 마쳤고,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섬유 전공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1981년 백상 기념관에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2016년 현대갤러리 '정경연전' 까지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2006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근정포장과 2008년 이중섭미술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Contemporary Fiber Art Korea> <Silk Painting—패션과 미술기법—수잔 로이스 모이어 저, 정경연 역>의 저서가 있다.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함께 하고픈 이의 손을 잡고,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고…. 인간의 '손' 은 인간이 지닌 또 하나의 마음이자 표정이다. 손짓은 언어 이전의 언어로, 학습이 필요 없는 인간 본연의 언어인 것이다. 그 어떤 언어보다 진한 설득력을 가졌다. 미소와 눈물 같은 것이다. 40년 동안 장갑을 오브제로 하여 작품을 해온 미술가가 있다. 아울러 그 오래된 오브제가 만들어낸 작품에는 부처님의 생각이 진하게 배어 있다는 것이 특별하다. 설치미술가이며 섬유회화작가인 정경연 교수(홍익대 미술대학)이다.

수행이 된 예술

서울 삼청동 현대갤러리. 장갑천지다. 울긋불긋한 장갑들이 캔버스에 빼곡하게 붙어있는가 하면, 캔버스에 모인 장갑들이 블랙홀을 만들기도 하고, 쌓아올린 장갑과 장갑 사이에선 다양한 인류의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지나간다. 지난 11월 2일부터 열린 '정경연전' 의 정경연 교수 작품들이다.

40년 장갑 작품, '장갑작가'
유학시절 모친이 보내준 장갑
평생 '오브제' 로, '화두' 로

"제 명제의 '無' 는 무한대,
'색즉시공 공즉시색' 서 왔죠"
작품마다 불교 세계관 배어

그랬다. 그녀의 오래된 오브제인 '손' 의 실체는 장갑이었다. 정경연 교수는 40여 년 동안 장갑을 오브제로 한 작품을 해왔다. 물론 다른 오브제의 작품도 있지만 오늘의 정경연을 있게 한 것은 장갑이다. '정경연=장갑' 이다. 그녀는 '장갑작가' 로 불린다.

전시장에 걸린 그녀의 작품들은 모두 장갑을 오브제로 하고 있다. 한 개의 면장갑을 4개 혹은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염색을 하거나 일일이 물감으로 채색을 한 후, 다시 말리고 찌고 다림질해 캔버스에 붙이거나 설치물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완성한 작품들이다. 장갑을 한 올 한 올 풀어내 다시 핀셋으로 캔버스에 붙이기도 하고, 기둥에 붙여 쌓아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이어 또 다른 작품을 만들기도 하며, 쌓아 올린 장갑들 사이에 동영상을 담기도 한다. 정 교수는 이러한 작업의 과정을 수행의 하나라고 했다. '무제' · '블랙홀' · '어울림' · '하모니' 등 그 수행이라 불리는 그녀의 미술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예술이 된 어머니의 장갑

정 교수와 장갑의 인연은 1976년에 시작된다. 정 교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2학년 재학 중이던 197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어린 딸을 먼 이국으로 보낸 정 교수의 어머니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딸의 손이 걱정스러웠다. 정 교수의 어머니는 정 교수에게 작업할 때 끼라며 면장갑 한 상자를 보낸다.

면장갑을 받아본 정 교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먼 타국 땅에서 새삼 알게 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은 정 교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따뜻한 모정에 대한 고마움이 일었고, 그 고마움이라는 것에서 많은 것들이 피어올랐다. 따뜻한 모정의 정표는 딸 정경연의 마음뿐만 아니라 미술가 정경연의 마음에도 물결을 일으켰다. '따뜻함' 이라는 감동이 침잠되어 있던 작가의 예술적 모티브를 깨우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면장갑은 수십 개의 '손' 으로 다가왔다. 삶의 고난이 담긴 노동자의 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노인의 손, 기도하는 손, 위로하는 손, 안아주는 손 등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많은 이미지로 확장됐다.

정 교수는 우선 장갑으로 어머니에게 드릴 작은 작품 하나를 만들었다. 정 교수는 어머니가 작업할 때 끼라고 보내준 장갑에 자신의 손 대신 미술가의 영감이 불러낸 손들을 넣었다. 장갑에 여러 가지 색을 주고 맞잡은 장갑들을 캔버스로 옮겼다. 장갑은 작품이 되었다. 이를 본 미국인 지도교수는 처음 보는 독특한 정 교수의 작품에 놀라며 극찬했다. 장갑은 미술이 되었다. 어머니의 장갑은 딸의 예술이 되었다. 정경연의 장갑은 이렇게 시작됐다.

정경연의 '무제' 는 '무(無)' 아닌 '무한대'

유학을 마친 정 교수는 1981년,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연다. 그때, 정 교수는 장갑을 오브제로 한 작품 두 점을 선보인다. 그 작품 중 하나에는 정 교수가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만들었던 소품도 한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 반응은 뜨거웠다. 한 마디로 '센세이션' 이었다. 정경연의 장갑을 오브제로 한 작품은 회화와 공예라는 장르의 벽을 허물고 넘나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장갑은 정경연의 확실한 오브제로 기억된다.

정 교수는 본격적으로 장갑을 오브제로 한 작품을 시작한다. 작품의 내연과 외연 모두 확장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 제목은 주로 '무제' 가 많다. 그리고 '어울림', '하모니', '블랙홀' 등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의 작품 '무제(Untitle)' 는 'Nontitle' 이 아니라 '무한한 제목' 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무' 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설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과 공이 하나이듯 저의 '무' 는 '유' 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품으로 확장시키면, 한 작품 안에서 관객들은 다양한 각자의 해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힘들었던 지난날을 떠올릴 수도 있고,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던 날에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손을 떠올릴 수도 있고, 따뜻한 어머니의 손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가능성의 모색을 위해 작품의 제목을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가 정경연의 '무(無)' 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 (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불기 2561년
정유년 시무식
일 시 : 1월 10일 10시
장 소 : 총무원 (불광사)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화두 된 어머니 장갑과 수행 된 예술

미술가 정경연의 대표작과 작업 모습


블랙홀08-45


어울림2016-06


어울림2016-07



오래된 미래, 외조부의 〈금강경〉

'정경연의 무(無)'의 출처를 찾기 위해선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아야 한다. 또 그녀의 오래된 미래를 먼저 보아야 한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우…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강경〉. 독경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사회부장관이었던 전진한(1901~1972) 선생. 정 교수의 외조부이다.

정 교수는 여섯 살부터 아홉 살까지 외가에서 컸다. 정 교수의 본가는 물론이고 외가 역시 불심이 깊은 집안이다. 특히 외조부의 신심이 깊었다. 경봉 스님, 성철 스님 등 많은 선지식과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정 교수의 법명인 관음행은 성철 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외조부의 독경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정경연은 독경소리에 새벽잠을 깨곤 했다. 할아버지의 독경 소리에 단잠을 빼앗긴 손주는 잠이 묻은 눈을 비비며 뜻 모를 〈금강경〉을 듣는다. 그리고 외조부의 어머니이신 외증조할머니한테 얼굴을 묻으며 칭얼댄다.

"할머니, 할아버지 염불 안하면 안 돼요?"

어린 정경연에게 새벽마다 들려오는 뜻 모를 독경 소리는 그저 단잠을 깨우는 낯선 언어이고 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뜻 모를 낯선 언어는 자라나는 정경연의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의 또 다른 나이테가 되어갔다. 어린 정경연은 뜻 모를 독경소리에 새벽잠을 깨고 멀어지는 독경소리에 다시 잠을 이루며 하루하루 커간다. 어린 정경연에게 그 독경소리는 뜻이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의 곡조가 어디 간단한 곡조인가. 뜻은 다음 일이다. 비가 오면 우선 산이고 들이고 모두 젖는 수밖에 없는 법이다.

'참나'를 찾아서…정경연의 '무(無)'

1980년, 정경연은 26세라는 나이에 홍익대 미술대 교수로 임용된다. 미술가로서, 교수로서 정경연은 좀 더 자신의 세계에 대한 견고한 책임감과 완성도의 실현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예술이란 확실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구현되는 것이다. 특히나 후학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 교수는 그 길을 불교에서 찾는다.

"'참나'를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 교수는 예술가로서 풀어야 하는 삶의 궁극적 의문들이 있었다.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정 교수는 문득 늘 가까이에 있었던 불교가 떠올랐다.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에 찾아보려 하지 못했던 것이다. 새벽마다 〈금강경〉을 독송하시던 외할아버지, 방마다 좌선에 들어계신 외할아버지 형제와 이모들, 비에 젖은 땅바닥에서도 삼배를 망설이지 않던 어머니의 신심, 불명을 주신 스님. '왜 그들이 그토록 불교를 가까이했을까' 생각하니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랬다. 정 교수는 정작 불교를 가까이 두고도 불교를 잘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정 교수는 불교학생동아리 지도교수를 맡게 된다.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밝히자 불교반 학생들이 정 교수를 찾아온 것이다. 정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후 정 교수는 25년 간 홍익대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맡았다.

"경전을 읽고 절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을 집으로 모셔 개인교습을 받았어요."

정 교수의 본격적인 불교 공부는 그렇게 시작됐다.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그 옛날 뜻 모르던 외조부의 〈금강경〉을 다시 만난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를 찾아가는 길은 정경연에게 새로운 길이었다. 아니 인간으로서, 미술을 하는 예술가로서 당연히 모색해야 하는 길이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절을 찾는 일과 법문을 구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다. 그녀의 의문

외조부 독경 들으며 유년 보내
'참나' 찾기 위해 불교공부
25년간 홍대 불교동아리 지도
불교여성개발원장 소임은 '회향'
"어머니가 주신 장갑화두로 정진"

은 하나하나 부서지기 시작한다. 정경연의 '무제'는 'Nontitle'이 아닌 확실한 정체를 가지게 된다. 정경연의 '무(無)'의 출처는 불법(佛法)이었다.

정경연의 불가적 시선

정경연을 가리켜 '장갑작가'라고 부른다. 이는 그가 무려 40여 년 동안 장갑만을 오브제로 작품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 교수가 한 가지 오브제로 오랜 세월 작품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정 교수가 자신의 작업을 '수행'의 하나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세계를 단순히 장갑이라는 오브제의 축적에 의한 아상블라주 정도로 단정한다면, 정경연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의 작품세계에 대한 보다 여법한 가치부여는 그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독특한 회화적 세계와 그 속에 녹아 있는 불교적 세계관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정경연이 말하는 '무제'의 '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어울림' 속에 들어 있는 상생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먼 우주의 '블랙홀'이 갤러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하모니' 속에 들어있는 '너'와 '나'를 허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언어 이전의 언어인 손의 또 다른 얼굴, 장갑을 통해 역시 언어 이전의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색채로 표현된 모노톤의 장갑은 버리고 버려서 얻어진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정경연의 시선으로, 그녀의 켜켜이 쌓인 나이테 끝에서 뻗어 나온 불가적 시선의 다름 아니다. 검정과 흰색,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중간색들이 보여주는 스펙트럼은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사상을 도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반복되고 겹쳐지는 개체의 이미지는 개체가 모여 전체를 이루고, 전체는 다시 하나하나로 돌아간다는 불가적 시각의 상징화이다. 이는 하나의 형태 안에서나 반복된 형태에서 창조의 시작과 끝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역시 '시종일여'의 불가적 시선이라 할 수 있겠다.

화두 된 어머니의 장갑…아름다운 회향

"작업은 나의 화두이며 도반입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해온 자신의 작업을 '화두'라고 했다. 그리고 도반이라고 했다. 예술가의 궁극은 예술을 통해 진리의 구경(究竟)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학시절에 고국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장갑이 정 교수에게 화두가 된 셈이고, 그녀는 그 화두를 치열하게 참구해온 것이다.

정 교수는 2013년부터 2년 간 불교여성개발원장을 지냈다. 처음 원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그녀는 선뜻 수락하지 못했다. 대중을 아울러야 하는 자리였다. 자신보다 자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원장직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았다. '미술가 정경연'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99%의 주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99%의 주변은 부처님의 가피에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온 인연, 즉 불교여성개발원장 소임의 이유를 가피의 회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장직을 받아들였고, 소임을 수행하는 동안 여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단 창립, 다문화가족법회 시행, 불교기관과 업무 협약 등 불자로서 많은 일을 했다. 일이 많아졌지만 '정경연'은 오히려 힘들지 않았다. 미술가 정경연으로서의 삶도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주변을 좀 더 많이 본다는 것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40년 전 어머니의 선물이 평생 화두가 되어 오늘의 정경연을 만들었듯이, 그녀는 주변이 곧 '나'라는 생각을 했다. 아름다운 회향이다. 오늘도 정경연의 손엔 장갑이 들려있다. 그리고 그 장갑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이 들어있다. 오늘도 정경연은 그 아름다운 화두 앞에 앉는다. 그 옛날 어머니가 주신 화두를 안고 또 다시 정진을 이어간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기신론이 제시한 믿음의 해석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제목에 들어 있는 기신(起信) 곧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범어로는 'sraddha', 팔리어로는 'saddha'이다. 몰랐던 사실을 알고 났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수긍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로 인한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믿음(信)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경론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설명된다. 〈보살본업경〉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信者令心淸淨)"이라 하였고 〈구사론〉에서도 영심징정(令心澄淨)이라 하여 비슷하게 설명하였다. 〈대승의장〉에서는 "삼보 등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於三寶等 淨心不疑 名信)"이라 하였다. 〈성유식론〉에는 "무엇을 믿음이라 하는가? 사실과 공덕과 능력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좋아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본성으로 한다(云何爲信 於實德能 深忍樂欲 心淨爲性)" 하였다. 소개한 말들 가운데 공통으로 들어 있는 말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심정(心淨)이다.

〈화엄경〉 '현수품'은 믿음의 공덕을 설해 놓은 품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信爲道元功德母)/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長養一切諸善法)/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을 벗어나(斷諸疑網出愛流)/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여준다.(開示涅槃無上道)"

기신론에서의 믿음은 네 가지 믿음(四信)으로 설명되는데 첫째 근본을 믿을 것(信根本)을 먼저 밝히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근본이 진여(眞如)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즐겨 생각하는 것이 근본을 믿는 것이라 하였다. 이 근본에 대한 믿음이 확립된 다음에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믿는다.

진여는 곧 참되고 한결같은 중생의 마음이다. 동시에 이는 만물의 근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마음에 의해 의식되고 대상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미혹에 의해 만물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생길 뿐 근본에 돌아가면 이러한 차별의식은 저절로 소멸된다.

원효 스님은 이 진여가 중생의 모든 행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본이라 한다 하였다. 삼보의 믿음에 대한 설명으로,

信, 이해로 의심이 사라진 상태

근본이 眞如임을 아는 게 첫걸음

부처님을 믿는 자로서의 태도는 우선 진여의 마음을 회복한 부처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서 항상 친절히 가까이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공경하며, 착한 마음씨를 일으켜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야 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실천하면 큰 이익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언제나 덕을 베푸는 행위인 바라밀다의 실천을 염원해야 한다.

그리고 승가(sangha),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바른 수행을 한다고 믿어야 한다. 승보는 부처님 외에 보살들도 이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본래 참모습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원효는 그의 기신론 소에서 믿는다는 것을 진여의 이법(理法)을 두고 체대(體大), 상대(相大), 용대(用大)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체(體)는 진여자체의 이법으로 현상계 배후의 본체계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로 중생의 마음이 부처라는 등식을 세울 때의 심불(心佛)의 자리이다. 상대라는 것은 이법이 갖추고 있는 본성의 공덕이 중생을 훈습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상대가 훈습함으로써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에 무궁한 공덕의 작용이 일어난다. 이 작용에 의해 일체의 선근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삼대의 믿음에 의해 무상도(無上道)에 이를 수 있다하였다.

"중생 대신해 이 몸이 고통 받으리라"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㊾몸을 버린다는 것은

捨陰受陰品第十一(사음수음품제십일)

阿羅漢捨後邊身得涅槃樂。不及菩薩為眾生捨身時樂。阿羅漢得解脫。不如菩薩為眾生故受身時樂。菩薩生念我以不取涅槃為眾生故得受是身。是最為妙。菩薩念言。我捨身命用施。復更受身不入解脫。是為最勝。我樂聞如來濟度眾生功德。我得救眾生悲心氣味不取涅槃。甚愛樂此事。菩薩為眾生捨身施時。雖不證涅槃勝得涅槃者。以不得為眾生捨身氣味故。菩薩受是陰身極是大苦。如為眾生捨身時樂等無有異。世間凡人為貧窮病苦之所纏逼。不能捨離樂欲捨身。眾生厭患陰身不能救濟者欲速入涅槃。菩薩思惟涅槃甚樂。生死陰身極為大苦。我當代一切眾生受此陰身之苦使得解脫。阿羅漢身盡佛亦身盡。身盡雖同不能救濟。佛滅身為善。(아라한사후변신득열반락。불급보살위중생사신시락。아라한득해탈。불여보살위중생고수신시락。보살생념아이불취열반위중생고득수시신。시최위묘。보살념언。아사신명용시。부갱수신불입해탈。시위최승。아락문여래제도중생공덕。아득구중생비심기미불취열반。심애락차사。보살위중생사신시시。수부증열반승득열반자。이부득위중생사신기미고。보살수시음신극시대고。여위중생사신시락등무유이。세간범인위빈궁병고지소전핍。불능사리락욕사신。중생염환음신불능구제자욕속입열반。보살사유열반심락。생사음신극위대고。아당대일체중생수차음신지고사득해탈。아라한신진불역신진。신진수동불능구제。불멸신위선。)

번역

몸을 버리고, 몸을 받는 것에 대한 품 제 십일

아라한이 후에 일체의 몸을 버리고 열반락을 얻는 것이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할 때의 즐거움에는 미치지 못하며, 아라한이 해탈을 얻어도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받을 때 즐거움만 같지 못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반을 취하지 않으리니 중생을 위하여 이 몸을 얻었음이라. 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몸과 생명을 희사하고 보시로 쓰려니와 다시 몸을 받아도 해탈에 들지 않으리니, 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이다. 내가 여래의 중생 제도하는 공덕을 즐거이 들으리니, 내가 중생을 구제하려 자비심의 기운으로 열반을 취하지 않으리라. 이 일이 깊은 사랑의 즐거움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하여 베풀 때 비록 열반을 얻지 못해도 수승한 열반을 얻은 것입니다.

열반을 얻지 못했어도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한 기운과 맛 때문입니다. 보살이 오음(五陰) 몸을 받는 것은 극히 큰 고통이지만 중생을 위하여 몸을 희사할 때의 즐거움 등과 다를 바 없이 여깁니다. 세상의 범부들은 빈궁과 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에 얽매여도 욕락 때문에 몸을 버리지 못합니다. 중생은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싫어하여 구제하지 못하면서 속히 열반에는 들어가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열반은 심히 즐겁지만 생사의 오음으로 이루어진 몸은 심히 고통스럽다.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이 몸의 고통을 받고 해탈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아라한의 몸도 사라지며 부처님의 몸도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같고 구제할 수 없지만, 부처님은 몸이 사라지는 것을 선으로 삼습니다.

해설

범부나 아라한이나 부처님조차도 오음(五陰)으로 이루어진 몸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어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생은 애욕으로 허망한 몸을 붙잡으려 하지만 보살이나 부처님은 이 허망한 몸을 선(善)을 이루는데 쓸 뿐이다. 그래서 열반보다는 차라리 중생의 고통스런 몸을 선택한다. 그래야 또 베풀 수 있을 테니까. 몸과 목숨을 흙덩이쯤으로 여기니 무에 아까우랴. 범부 중생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떳떳하게 당당하게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야겠다.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문화재 보유 사찰에 공문을 보냈는데 기관장이 사찰을 방문 시 사찰 주지는 주차장까지 영접하고 떠나는 기관장한테 사찰측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는 소양댐 부근의 청평사 주지였고 불교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머물 때였다. 아마도 1976년에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이었다. 당연히 도청을 방문해 논리적으로 따지며 도지사의 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당시 불교신문에는 톱기사로 사설까지 동원되었고 강원도청을 질타하는 여론이 TV와 라디오, 일반신문에도 큼직하게 비중있게 보도되었다.

그런데 까마득한 옛날이야기가 그 색깔과 무게만 다를 뿐 일부이긴 하나 아직도 부끄러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에 충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하다
'조어장부'의 뜻에 부끄럽지 말아야

이번에는 중앙정부나 도청이 아닌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관장을 대하는 태도와 몸짓이 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않는 부끄러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부분에서 밝혔듯이 지극히 일부의 사찰 주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일이지만 개운치 않은 어둠의 그림자는 현실 속에서 불가사리처럼 죽지 않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어느 본사 주지 스님과 함께 동남아를 자유여행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출국 전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본사 주지 스님이 면세점에 잠시 다녀온다더니 몽블랑 만년필을 두 개나 사서 보여 주었다. "하나는 내게 주는거냐"고 물었더니 두 개다 도청과 군청의 공무원에게 줄 선물이라는 엉뚱한 대답이다. 큰 건물을 사찰에 새로 신축하게 되었는데 큰 힘이 되어준 도청과 군청의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으로 몽블랑 만년필을 사게 되었다는 징그러운 설명이었다. 몽블랑 만년필 한 개에 면세 가격으로 미국돈 700달러라니, 기가차고 말문이 막힐 만큼 더러운 짓을 본사 주지는 음흉스럽게 내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궤도를 이탈하면 지저분하게 더럽게 망가진다며 승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없으면 주지 감투 내려놓으라고 질타했었다. 그는 머쓱해진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품격도 인격도 내팽개치며 현실 타협에 머무르는 자가 어디 그 본사 주지뿐이겠는가?

자, 이번엔 사자암 주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사자암에는 모노레일이 새 것으로 설치돼 있는데 도의원 세 분이 5,000만원을 마련해 줘 설치하였다. 언젠가 도지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지사님이 퇴근 후 사자암에 가려하는데 죄송하지만 지사님이 모노레일을 탈수 있느냐는 전화였다. 나의 대답은 걸어서 오라는 것이었고 지사님이 몹시 감기를 앓고 있으니 모노레일을 타게 해달라는 거듭된 간청이었지만 나의 대답 "그럼 감기 나은 후 그때 걸어서 오라"는 단호한 거절은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시청의 부시장이 전화로 설명했다. 그는 불교신도였고 도청의 문화체육국장을 거친 후 시청의 부시장으로 온 모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걸어서 오라는 것, 몸이 불편하면 다음에 오라는 것이었다.

사자암 주지는 시장과 국회의원을 시내에서 만나지 않는다. 만남이 필요할 때는 직접 전화해 사자암에서 된장찌개로 식사하거나 작설차를 마시며 사찰 불사를 원만히 해결한다. 해발 380m의 사자암에 수도를 설치하고 전기시설하며 석축 쌓고 요사채, 종각, 주지실 등을 신축하고 주변 정리하는데 정부 돈 25억원 이상으로 마무리했다. 신도 도움 없이 권선문 없이 크고 작은 일을 수월하게 말끔하게 처리했다. 공무원에게 껌 한 개 선물한 바 없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봉지커피 한 개 받은 바 없다.

원칙을 지키고 근본에 충실하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감추고 속이는 것이 없으면 넉넉하고 여유로운 법이다. 법당에서 삼계(三界)의 큰 스승이요 사생(四生)의 어버이임을 외치지 말 일이다. 여래십호(如來十號) 중 하나인 조어장부(調御丈夫)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 일이다.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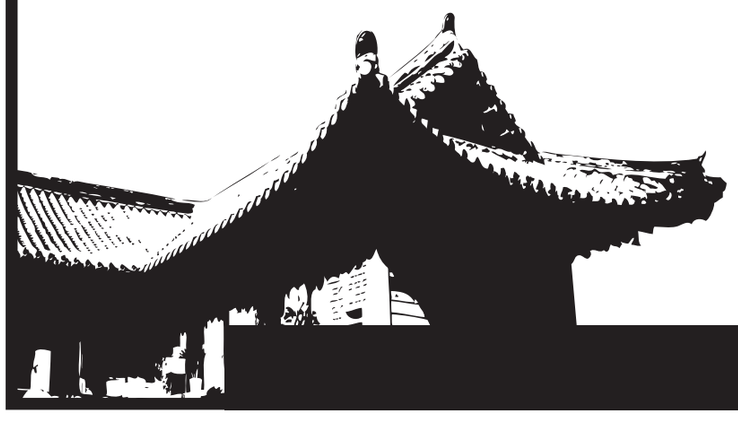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왜란 이후 소실된 불상 복원한 대표 불모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㉓ 영색(英賾)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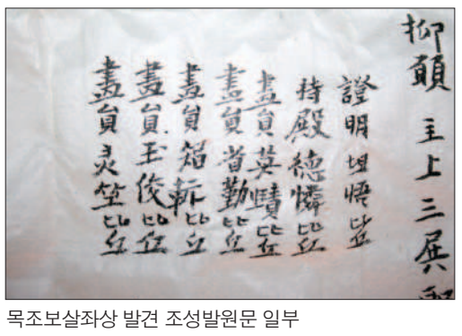






1633년 양주 회암사서 조성된 목조보살좌상(사진 좌, 우)은 현재 파주 보광사에 봉안돼 있다. 사진 가운데는 파주 보광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오존불상 전체모습이다.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목조보살좌상 발견 조성발원문 일부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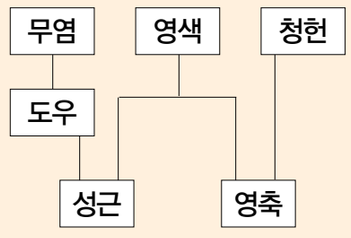
1620~1640년대 불상 제작 주도

조각승 청헌 스님과 사형사제

현진 스님과 청헌 스님과 불상 제작

파주 보광사 봉안 불상에 흔적 남아

영색 스님의 조각승 계보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의 전쟁이 끝나고 사찰의 중창과 중수로 명산대찰(名山大刹)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후, 1640년대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의 복원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인 현진 스님, 수연(守衍) 스님, 인균 스님 등에게 불교조각을 배운 스님들이 수화승이 되어 불상 제작을 주도하게 된다.

1630~1650년대 전국적으로 사찰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100여명의 조각승들이 불상을 만든다. 대형 불상을 제작할 시에는 공동 작업이 행해진다. 이 가운데 근래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이 발견된 조각승 영색 스님이 있다.

영색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사찰의 연혁을 적은 사적기(寺蹟記)를 통해 활동 시기와 내용, 조각승 계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영색 스님은 수화승으로 활동하기 이전인 1626년에 충남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제작에 보조화승으로 참여하였다. 스님은 현진(玄眞) 스님, 청헌(淸憲) 스님, 연묵(衍默) 스님, 회묵(懷默) 스님, 옥정(玉淨) 스님, 도형(道泂) 스님 다음에 7번째로 언급된다.

이 소조삼신불좌상의 본존은 전체 높이가 509㎝로, 조선후기 제작된 초대형 불상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불상의 규모가 커서 여러 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대형불상을 제작할 때는 여러 계보의 조각승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주사 소조불상 제작에 참여한 조각승들이 동일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왕실에서 발원한 불사(佛事)라서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영색은 1633년에 경기 양주 회암사 목조보살입상(현재 파주 보광사 소장)을 수화승으로 제작하였다. 이 보살상은 조성 사찰과 봉안 사찰이 다르지만, 조선후기 사찰의 폐사(廢寺)로 인하여 불상의 이운(移運)이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 사적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후 1636년경에 영색 스님은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청헌, 인균, 응원 등과 함께 제작하였다. 이 삼신불은 얼굴의 인상이나 대의 처리 등이 달라서 계보가 다른 여러 조각승이 각각의 불상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색 스님은 부화승(副畵僧)으로 수화승 청헌 스님과 1639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사보살상(四菩薩像)을, 1645년에 경북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제작하였다.

이제까지 밝혀진 영색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26년부터 1645년까지로 보은 법주사, 양주 회암사, 구례 화엄사, 하동 쌍계사, 상주 남장사 등에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작가임을 알 수 있다. 조각승 영색 스님은 현진 스님, 청헌 스님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지만, 대부분 청헌 스님과 같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영색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임진왜란 이전에 태어났다. 1626년에 현진 스님과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소조삼신불좌상을 조성할 때, 조각승 17명 가운데 7번째 언급된 것을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30대 중반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633년에 수화승으로 양주 회암사 목조보살입상(파주 보광사 봉안)을 만든 후, 1636년경 수화승 청헌 스님과 전남 구례 화엄사 대웅전 삼신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청헌 스님과 1639년에 하동 쌍계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사보살상을 만든 후, 1645년에 상주 남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제작하였다. 현재까지 밝혀진 영색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26년부터 1645년까지이다.

영색 스님이 어느 스님 밑에서 불상 제작을 배웠는지 알 수 없고, 스님의 계보는 청헌 스님(-1626~1643-) → 영색 스님(-1626~1645-) → 성근 스님(-1633~1657-), 영축 스님(-1633~1641-)으로 상호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영색 스님과 청헌 스님의 활동 시기가 비슷하여 사제(師弟) 사이가 아닌 선후배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청헌 스님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전반부터 중반까지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던 작가들이다.

영색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유일한 불상은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고령산(高靈山)에 위치한 보광사는 대웅보전, 지장전, 영산전 등의 전각을 갖춘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의 말사(末寺)이다. 보광사는 임진왜란 기간에 소실되어 1602년에 설미(雪眉) 스님과 덕인(德仁) 스님이 법당과 승당(僧堂)을 건립하였고, 1631년에 덕인 스님은 도원(道元) 스님이 3년간 모은 80근의 청동으로 학잠(學岑) 스님과 제자인 지십(智什) 스님 등이 1633년에 범종을 제작하기 시작해서 1634년에 300여 근의 보종(寶鐘)을 완성하였다. 1667년에 지간(智侃, 支干) 스님과 석련(石蓮, 釋蓮) 스님이 대웅보전, 관음전, 만세루 등을 재건 · 단청하고, 1740년(또는 1730년)에 숙종(肅宗)의 후궁으로 영조를 낳은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능(陵)인 소녕원(昭寧園)의 원찰(願刹)로 삼아 대웅보전, 광응전(光膺殿), 만세루 등을 중수하였다

보광사 대웅보전 내에 봉안된 목조석가오존상은 삼세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이 서 있다. 삼세불과 협시보살은 크기와 조각기법 등이 같지 않아 제작 시기와 작가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목조미륵보살입상은 높이가 117㎝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형적인 중형 보살상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 얼굴은 앞으로 약간 내밀고, 신체와 머리(보관 포함)의 비중이 10:3 정도로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크게 강조되었다. 이러한 보살의 신체비례는 조선전기 보살입상을 계승한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목조보살입상(1603년)이나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1605년, 완주 위봉사 북암 조성)과 비교해 보면 머리를 강조하다보니 신체비례가 깨졌다. 머리에 쓴 보관은 화염(火焰)과 보주(寶珠)가 빽빽이 장식되고, 좌우에 커다란 관대가 밑으로 늘어져 있다. 보관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귀를 따라 두 갈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어깨 위에서 둥글게 틀어 묶고, 세 가닥으로 나뉘어 길게 늘어져 있다.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으로 짧으며, 인중이 다른 불상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따로 제작된 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있다. 몸에 걸친 대의는 변형우견편단(變形右肩偏袒)으로 오른쪽 어깨에 사선으로 접힌 옷깃 한 가닥의 끝자락이 가슴까지 늘어져 있고, 나머지 자락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대의자락이 양 손목에 길게 늘어지고, 나머지 자락이 복부에서 U자형으로 무릎까지 늘어져 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한 가닥의 두꺼운 옷주름이 길게 늘어져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목에 대의(大衣) 자락이 둘러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승각기를 묶은 끈이 복부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보살상은 1633년에 경기 양주 천보산 회암사에 봉안하기 위하여 화원(畵員) 영색(英賾) 스님, 성근(省勤) 스님, 지월(智°2) 스님, 옥준(玉俊) 스님, 영축(靈竺) 스님이 제작하였다. 목조보살입상이 조성된 회암사는 1472년에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가 하성부원군 정현조를 시켜 중창한 후, 명종 연간에 문정왕후가 섭정을 할 때 보우 스님을 통하여 불교 중흥을 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사찰이다. 이 사찰에 대해서는 17~18세기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1800년대에 폐사(廢寺)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광사에 봉안된 보살입상은 1630년대 전반에 회암사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나한전이나 영산전이 건립될 정도로 사세(寺勢)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특히, 불상 제작에 증명으로 참여한 탄오(坦悟) 스님은 1623년에 조각승 수연(守衍) 스님이 제작한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 시에도 증명으로 참여한 고승(高僧)이다. 1633년에 회암사의 주지(住持)는 도오(道悟) 스님이고, 사찰에 덕연(德衍) 스님, 법탄(法坦) 스님, 일종(一宗) 스님, 신원(信元) 스님, 나기(懶奇) 스님, 후원(後元) 스님이 거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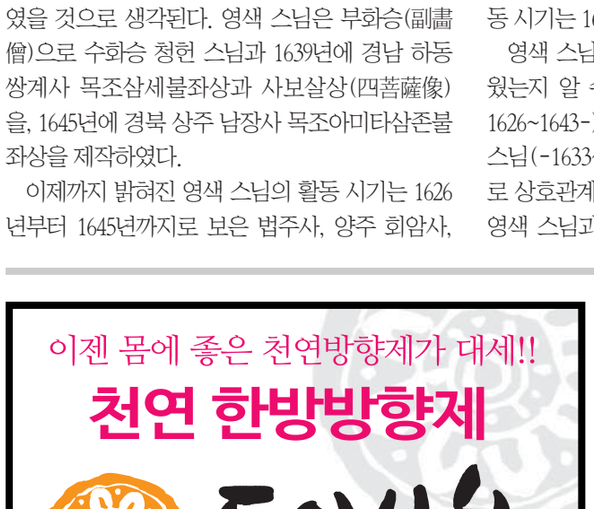
수화승 영색 스님을 따라 회암사 목조보살입상을 제작한 조각승 성근(性勤) 스님, 지월(智°2) 스님, 옥준(玉俊) 스님, 영축(靈竺) 스님 등은 17세기 전 · 중반에 여러 지역의 불상 조성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작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성근 스님은 1657년에 수화승 도우(道雨) 스님과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을, 영축 스님은 1641년에 수화승 청헌과 전북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삼세불좌상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이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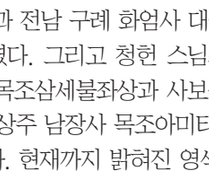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GmSoft GM since 2015 SOFT 천수천안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2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사찰신도수	1~100명	101~200명	201~300명	301~400명	401~500명	501~600명	600명초과
추가사용료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1명당 11원
합 계	19,800원	21,800원	23,800원	25,800원	27,800원	29,800원	〃
할인 혜택	12개월 결제시 1개월 사용료 할인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성탄절엔 '산타 부처' 만나보세요

법련사, 12월 23~29일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展

경내 불일미술관서 전시회
인천교구 문화원 후원으로
양 종교 미술인 6인 참여
'종교간 화합' 메시지 던져
교류 전시회 정례화 추진도

올해 성탄절도 10여 일 남짓 남았다. 이 시기가 되면 불교계는 성탄절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축하등을 점등하는 등 종교 화합에 나선다. 올해에는 특별한 전시가 추가된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들이 합동 전시를 통해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이다.

승보사찰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주지 진경)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 후원으로 오는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내 불일미술관 1 · 2관 전관서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를 성탄절을 맞아 개최한다.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불교 미술인 이해기 · 김창균 · 박명옥 작가와 가톨릭 미술인 안경원 · 임정연 · 서정우 작가 6명이 30여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와 가톨릭 미술인의 만남' 전시회는 2003 · 2004 · 2007년 세 차례 열린 바 있다. 앞선 3번의 전시회는 종단 차원에서 이뤄진 전시회였지만, 법련사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일반 신도와 미술인이 요청해 성사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불일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구담 스님은 "좋은 기획전 테마를 고민하던 중 작가 한 분이 가톨릭과의 교류 전시회를 제안했다"며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했지만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작가와 신도들이 나서서 전시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불교 · 가톨릭 종교인들이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전시 기획 과정을 설명했다.



◀이해기 작가의 작품 '윤회 열반'

양 종교 미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양질의 작품들이 다수 출품된다. 불교 측 미술인인 이해기 작가는 '윤회 열반'을 주제로 연작 시리즈를 선보인다. 어린이 그림을 불화에 콜라주한 그의 작품 중에는 전시 주제 맞는 '산타 부처'도 있다.

작가는 세상과의 시각적 교감을 강조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정각(正覺)에 이르렀음을 성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서정우 작가의 작품 '바뇌성모님'

김창균 한국불교미술협회장은 '연화화생'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행으로 쌓아올린 공덕으로 인해 마침내 반드시 우리는 연화화생에 이르러 극락왕생하게 됨을 강조한다.

페이퍼 아트를 선보이는 박명옥 작가는 '수월관음도' 등을 통해 종이 조각 특유의 멋스러움을 발산하고 있다.

가톨릭 미술인인 안경원 작가는 유리공예를 통해 예수의 은총 속에 살고있는 기독인들의 영성을 표현한다. 이런 영성이 잘 나타난 것이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임정연 작가는 '희생의 어머니, 그리고 탄생'에서 버려진 포도나무를 통해 어머니의 탄생 설화를 재설정한다.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성경의 의미를 확장시킨 것이다. 또한 서정우 작가는 나무 조각을 통해 신과의 소통 · 교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불교 · 가톨릭 미술인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극락정토의 발원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 주제인 이웃 종교간의 '아름다운 만남'처럼 개별 작품들은 이미 훌륭한 발원과 성물이 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장 김선호 루카 신부는 "유사 이래 인간이 창작한 미술의 앞 자리에는 종교화가 자리한다. 종교화를 통해 미술은 발전했다"며 "숭고하고 장엄한 종교 미술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 · 가톨릭 미술인 만남 전시회는 정례화될 전망이다. 진경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가톨릭 인천교구 문화원 · 음악원 측에서 교류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 같은 교류 전시회가 교단 차원의 행사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선사부터 청까지… 中공예 6천년史 '한눈에'

학고재, 중국고문물특별展

청 · 백자 나한 · 보살상 '눈길'
벼루 · 玉器 등 고문물 통해
중국인 일상 생활상 만나

중국은 대국(大國)이다. 단순히 영토만 큰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수 천년 이어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 중국 6000년 역사의 일편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학고재 갤러리는 12월 20일 본관 전시실에서 '함영저화(含英咀華)'를 주제로 중국고문물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인 '함영저화'는 '꽃을 머금고 씹는다'는 뜻으로 진의를 깊이 음미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 고문물이라는 꽃봉오리에 있는 꿀을 관람객들이 맛보길 바라는 전시 기획자의 의도가 주제에 내재돼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전시 규모는 방대하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용된 문물과 공예품들 131점이 전시에 출품된다. 오로지 중국 전통 문물과 공예품만으로 전시를 꾸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고재 갤러리의 중국고문물전시회에 출품된 '남송 · 원 청백유 수골 나한상'(사진 왼쪽)과 '덕화요 백자관음좌상'(사진 오른쪽)

학고재 관계자는 "마치 대만 고궁박물원이나 중국 유수의 박물관 전시를 갤러리 본관에 축소해 둔 듯한 전시"라고 자신했다.

유 · 불 · 선(儒 · 佛 · 仙)이 혼재된 문화 사상을 보여줬던 중국이었던 만큼 불교 유물도 다수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장 입구에 자리한 '남송 · 원대 청백유 수골 나한상'이다. 12~14세기 작품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고된 수행 생활에 몸이 야위어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지만, 형언할 수 없이 평온한 미소는 내면의 법열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앙상한 늑골 위로 자연스레 떨어지는 두루마기의 표현이 인상 깊다. 나한상의 머리 위쪽과 옷깃 부분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 유독 맑은 청백색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자기에 유약을 부분적으로만 바르고 나머지는 백토를 그대로 구워내는 기법으로, 남송 시대와 원대에 특히 유행했다.

17세기 만들어진 백자관음좌상도 눈길을 끈다. 덕화요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10cm가 안되는 작은 상(像)에 관음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세밀히 새기고 빚어냈다.

아득한 고대부터 문인들이 곁에 두고 아꼈던 문방사보와 각종 문방 용구에는 그들의 정신과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인장 재료로 가장 애호됐던 수산전황석과 창화계혈석 등으로 만들어진 인장들과 '송대 단계 반변산석 열수연' 등과 같은 벼루 등은 중국 문인들의 심미안(審美眼)을 알 수 있는 문물들이다.

학고재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우리 전통의 원류인 중국의 옛 문물을 깊이 있고 폭 넓게 살펴보고 시대를 초월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자양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국내에서 선보여질 기회가 적었던 다채로운 중국의 옛 문물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720-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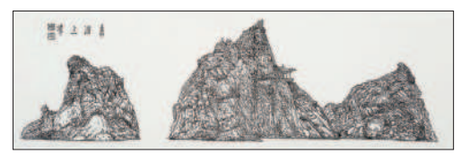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판화공모전 대상, 이상봉 '도담삼봉'

원주 고판화박물관 주최… 25일 시상식

강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전통판화 문화 발전위해 개최하는 제4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대상 문화재청장상에 이상봉 대구미래대 디자인계열 교수의 '도담삼봉'이 선정됐다.

이 교수는 박한샘 동양화가의 수묵화인 '도담삼봉'을 우리나라 자작나무에 한국의 전통 판각법으로 재현했다. 또한 수묵화의 세밀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건 먹을 이용해 탁본기법으로 인출해 냈다. 창작판화 부문 최우수상인 강원도지사상은 홍승혜 작 '진정한 강함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수상인 원주시장상은 이맹희 작 '매화와 대나무', 학생 부문 대상은 김진우 작 '인간'에게 돌아갔다.



제4회 원주 전통판화공모전 대상작 '도담삼봉'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25일 오전 11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수상작들은 2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고판화박물관에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國博, '1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수요일 오후 6시와 7시부터 30분씩 운영한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특별전에 출품된 백제 웅진기와 사비기를 대표하는 문화재 350건 중 큐레이터가 선정한 전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상설전시관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7일 불교조각실),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14일 풍속화실), '도자기에 숨겨진 조상의 지혜와 기술'(21일 청자실), '황복사와 사리장엄'(28일 통일신라실)도 큐레이터와 대화하며 살펴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2.7~2016.12.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샘앤파커스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허암	민족사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니까야로읽는금강경	이중표	민족사
6	불교를철학하다	이진경	한겨레출판
7	붓다아비담마(체계적으로배우는)	멤틴몬/김종수	불광출판사
8	유마경강의(상)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9	안되겠다내마음좀들여다봐야겠다	용수	나무를심는사람들
10	대방광불화엄경강설48(여래십신상해품)	여천무비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高僧 禪詩 통한 치유… "삶에 해답 없지만 현답 있어"

마음활짝

주경 스님 지음 | 마음의 숲 펴냄 | 1만 5천원



"천길 벼랑 끝 나뭇가지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없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결국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림과 비움만이 미덕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최선의 방향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니까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中에서

숲속을 지나가는 청량한 바람 같은, 맑은 샘물 같은 책 한 권이 출간돼 슬프고 우울한 우리 마음을 환하게 씻어준다. 고승들이 쓴 선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꽃피우는 이야기 〈마음 활짝〉이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서산 부석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불교신문사 사장으로 재직중인 주경 스님〈사진〉이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염불과 경문을 배울 때, 한문 게송들을 외우며 그 뜻을 생각하다보면 가슴 뭉클해 질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염불곡조가 종일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났으며, 가슴은 한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웠다"고 고백한다.

어느 시대에나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백성들은 궁핍한 마음에 분노를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때마다 수행 하던 고승들이 시로 마음을 다스리고 슬기롭게 삶을 대처해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은유와 역설로 이루어진 선시에는 고승들의 깨달음이 응축돼 있다. 이 책에 실린 선시들 역시 짧은 시 한 편으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답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즐겨 읽던 고승들의 선시를 모아 이야기를 붙인 선시 에세이이다. 인정하면 깨닫게 되는 순간의 소중함, 비우고 버릴수록 채워지는 행복,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 고되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쉼,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연습,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성찰까지 삶에서 중요한 화두 여섯 가지를 모두 담아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으라고 우리네 등을 토닥여주는 〈마음 활짝〉을 만나보자. 국가와 대통령에 상처 난 마음부터 개인의 웅크려진 마음까지 치유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저는 매일 얼굴과 몸을 씻을 때 마음도 함께 닦아내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화 냈던 마음을 이 물과 함께 씻어내겠다. 너무 욕심이 많고 과한 생각, 혹은 잘못 판단한 것들을 몸과 함께 씻어내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한다.

집안 곳곳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묵은 먼지가 켜켜이 내려앉기 마련이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에도 먼지가 쌓인다. 타인의 시선과 관점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타인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 우리 마음에는 수북이 티끌이



쌓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라고 권한다.

마음에 낀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홉을 갖고도 열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자. 모든 일을 좋다, 나쁘다, 그르다, 옳다 이분법으로 결론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며칠쯤 그 상황과 생각들을 묵혀두자. 지난 일을 잊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면 하나씩 적어보자. 그리고 쓸모없는 나머지 생각들도 하나씩 지워보자.

저자인 주경 스님은 옛 고승들이 쓴 선시를 통해 고단한 삶에 지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준다. 구체적인 실체와 삶의 현장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저자는 책 속에서 강조한다. "불의를 참으며 스스로와 타협하고, 길이 아니라도 참고 건너기 일쑤입니다. 코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념을 버린 적은 없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마이웨이'가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밝은 사회와 건강한 정신으로 향하는 '따뜻한 신념'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책에 소개된 64편의 선시에는 옛 고승들의 깊은 사색이 그대로 농축돼 있다. 선시는 희망의 은유이며 깨달음의 결정체이다. 우리는 선시를 읽으며 고승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고, 그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진리의 꽃을 피운 시대의 스승들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삶과 행복은 물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조언도 함께 전한다.

마음에도 표정이 있다. 그 표정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마음이 찡그린다면 삶은 고단함과 괴로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마음이 활짝 웃는다면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에 저자는 옛 고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선시로 마음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삶에 해답은 없지만 현답은 있다. 그 현답을 지금 책 속에서 만나보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詩 감상 두 편

識淺名高世危亂(식천명고세위난) 아는 것은 얕은데 이름만 높고 세상은 어지럽고 위태롭구나
不知何處可藏身(부지하처가장신) 어느 곳에 몸을 숨겨야할지 알 수가 없네
漁村酒肆豈無處(어촌주율기무처) 어촌과 주막 어디 몸을 숨길 곳 없으리오마는
但恐匿名名益新(단공익명명익신) 다만 이름을 숨길수록 더욱 알려질까 두렵네

〈경허선사〉

春有百花秋有月(춘유백화추유월)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달 밝고
夏有凉風冬有雪(하유량풍동유설) 여름에는 바람 불고 겨울에는 눈 내리니
若無閑事掛心頭(약무한사괘심두)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으면
便是人間好時節(편시인간호시절)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시절일세

〈무문선사〉

꾸준히 염불하면 누구나 왕생

아미타경 핵심강의

정종 법사 법문 | 정전 옮김 | 운주사 펴냄 | 1만 3천원



〈아미타경〉은 예로부터 불문(佛門)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는 것이자 정토불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이 선을 종지로 표방하면서 정토불교가 많이 위축됐으나, 일제강점기까지만 하더라도 정토가 매우 왕성했다. 전국 큰 사찰마다 정토만일염불회가 결성됐고, 〈아미타경〉을 비롯한 여러 정토 서적이 사찰 곳곳서 판각돼 유통되었으며, 염불해 왕생한 사례들도 수두룩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는 현대까지 정토불교가 거의 끊어짐 없이 이어져왔으며, 근래에 와서는 더욱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중국의 웬만한 선종사찰조차 저녁예불에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염불을 하는 곳이 많다. 이는 〈아미타경〉이 불교 내에서 대중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고래로 이 경전의 핵심적인 몇몇 구절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서 해석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아미타경〉서 왕생의 올바른 원인(正因)을 설명하는 단락으로, 주로 '소선근(少善根)' '일심불란(一心不亂)' '심부전도(心不顚)'라는 세 구절에 집중돼 있다. 이 책은 현재 중국서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입각한 순수정토 법문을 왕성하게 펼치는 정종 법사가 이 핵심 단락들을 대중에게 법문한 내용을 엮었다. 그는 철저히 경전과 조사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더불어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비유를 더하여 상세하고 분명하며 간단명료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

이 책은 크게 서론과 본론과 총결의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서론에는 〈아미타경〉의 핵심 경문을 소개하고, 경문을 해석함에 있어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관련 경문과 회통해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며,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의거하여 해석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밝힌다. 잘 알다시피 선도대사는 중국 당나라 초기에 정토종을 창립해 누구나 하기 쉬운 칭명염불을 통한 범부의 극락왕생을 주창함으로써 정토를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전파한 정토종의 조사이다.

이어서 본론을 핵심 경문에 따라 5가지로 나누었다. 이들 각각의 경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일관되게 선도대사의 정토사상에 입각해 해석한 점이다. 이를 위해 해당 경문을 이치와 비유로써 설명하고 다른 경전과 논서, 조사들의 해석, 그리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책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산란한 마음으로라도 꾸준히 염불하면 누구나 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미타경〉의 핵심사상이며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의 본의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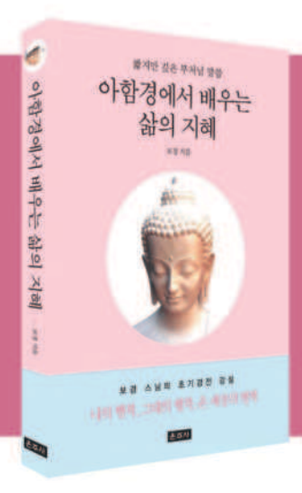
예컨대 '일심불란'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선정의 상태 혹은 염불삼매를 얻어야 일심불란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해석돼 왔다. 만약 '일심불란'이 정말 염불삼매를 얻는 경지라면 소수의 뛰어난 근기의 사람을 제외한 일반 범부는 일심불란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해 설해진 타력문이자 이행도인 정토법문은 오히려 자력의 수행이요 난행도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선도대사의 사상에 입각해, 일심불란이란 선정이나 삼매의 상태가 아니라, 오로지 한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전념하는 데 2가지 마음이 없는 것이며, 이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수행력이 없고 근기가 하열하며, 죄를 지은 범부라도 아미타불의 타력에 의지하여 깊은 신심을 지니고 한결같이 염불하면 누구나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흔히들 정토법문은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고, 현세의 이익이 아닌 사후세계를 위한 법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좀 더 고상한 법문을 찾아다니며 남들이 하기 힘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근기가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범부의 신분으로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의 원음에서 배우는 지혜와 행복의 길!



짧지만 깊은 부처님 말씀

아함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하루에 한 편, 아함경의 가르침을 현대인에 맞게 되살린 보경스님의 초기경전 강설!

선사들의 어록과 일화, 시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고전, 철학과 문학을 넘나드는 사유와 성찰!

보경 저 / 국판 / 372쪽 / 16,000원



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조당집 읽기

『조당집』은 당나라 시대 선의 태동과 전개과정, 선사들의 삶과 어록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전해 내려온다.

이 책은『조당집』에 수록된 중요 문답과 어구는 물론이고, 다른 선어록들을 참고하여 등장 선사들의 전기와 일화, 선어록을 덧붙이고 간략한 해설을 하였다.

정영식 저 / 신국판 / 352쪽 /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日 승려의 제안 "불교도 업데이트 합시다"

후지타 · 야마시타, 〈불교 3.0〉서 불교 발전 컴퓨터 업데이트에 비유



일본 소토슈 종파 소속 잇쇼 후지타와 료도 야마시타 승려는 지난 9월 〈佛教 3.0お 哲學する(‘불교 3.0’을 철학하다, 2016)〉서 불교를 컴퓨터 업데이트에 비유, ‘불교 3.0’이란 개념을 소개하고 활발한 강연 활동 중이다. 사진은 후지타 승려가 나고야 소우가쿠 사찰 좌선 강좌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출처=The Japan Times

컴퓨터처럼 불교에도 업그레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승려들에 일본 불교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 주간지 'The Nation'은 12월 4일(현지시간) 일본 소토슈 종파 소속 잇쇼 후지타(62) · 료도 야마시타(60) 승려의 최근 저서 〈佛教 3.0お 哲學する('불교 3.0'을 철학하다, 2016)〉서 소개된 '불교 3.0'이란 개념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The Nation'에 따르면 후지타 · 야마시타 승려는 지난 2013년 〈Updateする佛教(업데이트하는 불교, 2013)〉를 공동 집필하며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일본 불교 양상을 비유했다.

두 승려는 저서를 통해 불교의 '1.0 버전', '2.0 버전', '3.0 버전'을 제시했다. '3.0' 버전은 이전 버전의 단점을 극복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면목을 되찾아 꾸준히 수행하는 불교를 뜻한다.

후지타 승려는 "한국 · 중국을 통해 처음으로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시기가 프로그램 1.0 버전"이라며 "이 시기는 원시불교와 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탓에 불교 본질을 많이 잃게 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초기 대승불교 시기 일본 불교는 허무주의에 빠져 승려조차도 신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승려, 불교 업데이트 주장에
교계선 "신선하다" 호평
대승 · 소승 단점 보완 후
원시불교 '無我' 수행 역설

이어 "'1.0 버전'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불교 2.0' 업데이트가 진행됐다"며 "'2.0 버전'인 소승불교 대중화 시기는 특히 마음 치료에 집중된 기간"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 대한 반발로 들어온 소승불교 마음챙김 수행 또한 불교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사람들이 마음챙김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기면서 아상(我相)만 커지고 괴로움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야마시타 승려는 "단지 걱정을 제거하는 '2.0 버전' 마음챙김 수행은 효과가 없다. 자아상을 지웠을 때만이 비로소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정신세계와 해석 체계를 바꾸고, 걱정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 승려는 불교가 '3.0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강조했다. 이전 버전의 폐해서 벗어나 완전한 방향으로 일본 불교계가 나아가야한단 주장이다.

후지타 승려는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을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단순히 고통을 소멸하거나 잊게 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를 위해 마음챙김이 아닌 '마음 되돌리기 수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음 되돌리기 수행'은 자아를 강화하는 기존 명상법이 아닌, 자아를 해체하고 각종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원시 불교 시절의 수행을 일컫는다.

한편 후지타 · 야마시타 승려는 현재 좌선 명상 강의와 더불어 승려와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 3.0'에 관한 강연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난 9월엔 청중 100명 앞에서 철학자 히토시 나가이 씨와 함께 토론회를 진행, 젊은 불자들로부터 불교 업데이트 개념에 대해 신선하단 반응을 이끌었다. 이승희 기자

가수 故 레너드 코헨, 30년간 불교 심취

명상과 사찰생활 작품에 많은 영향 미쳐



지난 11월 10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임 유어 맨'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 · 1934~2016)이 선불교에 심취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TreeHugger

지난 11월 10일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임 유어 맨'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Leonard Cohen · 1934~2016)이 선불교에 심취했었던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인터넷 언론 'Quartz'는 "1994년 레너드 코헨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 수행하면서 1996년에 비구로서 삶을 살았다"고 보도했다.

'Quartz'에 따르면 유대인 출신인 코헨은 약 30여 년간 선불교에 심취했다. 20대에 시인과 소설가로 세상에 나와 1956년 시집 〈Let Us Compare Mythologies〉로 등단했고, 1963년엔 소설집 〈The Favourite Game〉을 발표하며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가수로 데뷔한 것은 33살이던 1967년. 이후 50년간 그는 한결같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코헨만의 노래를 발표했다. 사망 직전인 지난 10월 그는 14번째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잔', '아임 유어 맨', '할렐루야', '댄스 미 투 더 엔드 오브 러브', '첼시 호텔 2', '고잉 홈'…. 코헨이 작사 · 작곡하고 부른 노래들은 사랑과 증오, 섹스와 영혼, 전쟁과 평화, 황홀과 절망이 전편에 흐른다. 인간이 주어진 생애를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노래했다.

불교에 귀의한 코헨은 사찰에 머무는 동안 요리와 청소를 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리고 무아(無我)를 체험하기 위해 명상에 몰입했다.

당시 그는 "나는 반복적인 업무에 몰입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헨의 30여 년간의 선(禪)적인 삶은 그의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코헨의 생각과 그의 시는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백만 명의 사상가를 낳았다. 그는 밥딜런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유시인이자 가수였다.

한편 코헨 측은 그의 죽음 후 "그는 전설적인 시인이자 작곡가였으며 예술가였다. 우리는 많은 작품을 남기고 존경받던 한 명의 선구자를 잃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한센인 사실상 감금한 오타니파, 이젠 '든든한 지원군'

아사히 신문, 정토진종 오타니파-한센인 요양소 교류 소개



한센인 최고령자인 타바타 아키라(田端明, 97)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방문자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12월 2일자 기사를 통해 정토진종(浄土眞宗) 오타니파(大谷派)와 한센인 요양소와의 교류사를 소개했다.

'한센병과 정토진종 오타니파(大谷派), 요양소에서의 교류 사반세기'란 제목의 이 기사는 종교단체의 선행을 알리는 기사인 것 같지만, 사실 잘못된 역사의 과오를 되짚는 내용이다.

일본정부는 1907년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강제로 격리시키는 '나병예방법'을 제정했다. 법률시행 이후 오타니파는 정부정책에 협력해 1931년 '오타니파 광명회(光明會)'라는 이름의 한센인 요양소를 설립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요양소에 머무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말로 한센인들을 회유했다. 하지만 이는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나 돌봄의 목적보단 사실상 강제적인 감금과 다름없었다.

이에 오타니파의 뜻있는 스님들과 시민들은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한센병 학습 그룹'을 결성, 한센인 국립요양소 나가시마아이세이엔(長島愛生園)을 정기 방문하며 20년 가까이 교류하고 있다. 오타니파는 1996년 나병예방법 법률 폐지를 계기로, 그해 "무비판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용해 한센인을 격리하는데 앞장선 사실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목숨을 잃어도 요양소를 나갈 수 없었던 한센인 3700여명의 유골이 잠든 납골당서 위령제를 열어 넋을 기리는 한편, 환자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21세 때 요양소에 격리된 후 지금까지 줄곧 요양소서 생활하고 있는 타바타 아키라(田端明 · 97) 씨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1992년 요양소 첫 방문부터 지금까지 참가하고 있는 엔푸쿠지(圓福寺) 주지 스님 가토 히사하루(加藤久晴 · 53) 씨는 "한센병은 옮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센인이 내준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긴장했다"고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한센인들과 친밀해진 가토 스님은 교단의 과거 잘못된 행위와 한센병의 올바른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현재 아이세이엔(愛生園) 요양소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남아 있으며, 평균연령은 85세다. 한센병의 발병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 환자나 다름없다. 주성원 객원기자

하버드대, 불교경전 온라인 무료 강의

간단한 등록절차 후 누구나 이용 가능



하버드대가 개설한 '경전을 통해 배우는 불교' 온라인 강의서 소개된 불교 경전 중 일부. 사진출처=Lion's Roar

불교를 더욱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 하버드대학교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에 접속해보자.

'Lion's Roar'은 1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불교 온라인 강의 '경전을 통해 배우는 불교(Buddhism Through Its Scriptures)'를 개설했다"고 보도했다. 이 강의는 강사와 수강생이 소통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수강생들은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강의 및 보충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강사는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찰스 할리세이(Charles Hallisey) 교수가 맡았으며, 4주차 강의로 구성된다. 할리세이 교수는 불교 경전의 단순한 해석 내용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건설적인 학습을 위해 '열린 해석'과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다.

할리세이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통해 "부처님 생애를 포함해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었던 불교 경전을 다양한 관점서 바라볼 것"이라며 "불교는 이슬람이나 기독교처럼 최고 경전이 없지만, 더욱 다양한 경전과 역사적 사료가 있다. 이것들을 복수적으로 검토하며, 현대인들의 삶에 불법의 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강의는 하버드대학교가 개설한 '각 경전을 통해 배우는 세계 종교' 강의 중 3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박아름 기자

불상, 법당시공 및 철거(퇴불), 개금, 단청, 풍수 인테리어 등

좋은 인연으로 성실하게 마음에 꼭 드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미텍 대표 윤승민 두손모음



도금 소불 6치 7치 분당 15,000 ~ 21,000원

■ 전시장 :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42-167번지
■ 공 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3층 308호 (신길동, 정우벤쳐타운 2)
■ 연락처 : 010-8523-7718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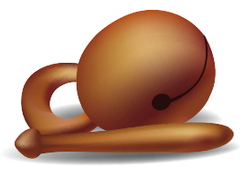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신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 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사찰 화분장 분재공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선설치 후지불
- 100평 기준 70기 유치
- 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www.화분장.kr
010-8458-3310
대표 율평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탱화 제작 수리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 4-1
010-9177-7842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 너 지 힐 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경북 예천군 유천면 하천길 21-73
우체국 012-104-02-185640 김재홍
010-5585-0459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청암달마도를 저렴하게
친필로 그려드립니다.
10매 이상은 사찰명과 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규격 : 40㎝×60㎝ 1매 6천원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달마원

비구스님 모십니다
(60대 전후)
010-5221-589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8721-2198
02)2234-2198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보살님 방사 드립니다
1인 단독 개인방사 드림, 25평형, 방2개, 거실,욕실, 주방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사찰)
010-4640-4747

문두루 기도비법?
원하는 것을 이루게되는 기도이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구성학 + 현공풍수 양택
기본과정 수강회원 모집
● 서울과정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대전과정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 4시(180분) 개강
● 서울 학회사무실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 학회사무실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

천수작법 바라지 하실스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2168-2800

기도스님 (급) 구함
(남원 성림사)
010-2245-177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웅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조계종 스님 (비구, 비구니스님)
● 초기경전 강의 및 수행지도 가능하신 분
● 사천지역의 다양한 주민들에게 상응할 수 있는 학식과 지식을 갖추신 분
● 반드시 보문정사 주지스님과 면담 후 결정됨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137-8번지 2층 보문정사 포교원
연락처 : 총무 010-5654-214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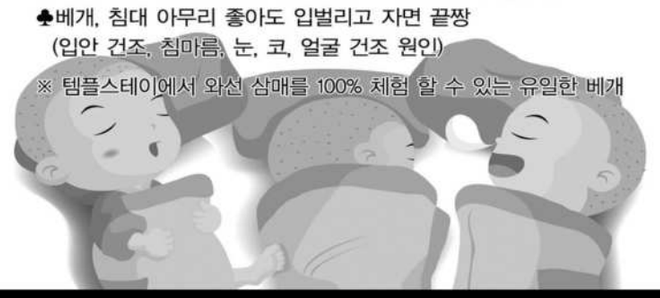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음식과 보물로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으로 인도해야 곧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위치 : 경남 통영 바닷가 근처 전망 최고
- 토지 : 1,600평
- 건물 : 목조법당 24여평, 요사채(최고 신형 주택2층) 건물 2동
- 양도 : 15억

▶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경남 하동
- 토지 : 6,600여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뒷산기암괴석,동백군락지,매실1톤수확,선방 최적지
- 양도 : 11억원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법당 40㎡. 요사채 59㎡. 토지 1,500㎡
- 조용하며 산속토굴겸사찰.지하철10분.저렴한가격임.
- 양도가액 : 3억2천만원. 조정가능(융자1억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경기
◎ 부지 : 80평 ◎ 부지 : 2200평
◎ 법당 : 40평 ◎ 법당 : 60평, 외전각
◎ 요사 : 60평 ◎ 요사 : 100평
◎ 양도 : 6억 8천 ◎ 양도 : 30억 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장유폭포 부근
- 토지: 14,780평, 주차장 완비
- 건물: 건평 80여평, 법당 요사채 등
- 불모산 사찰, 정남향 최고 위치
- 양도 : 몽땅 6억 5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용인시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지하철역10분거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 5층 249㎡ (약 75평)
- 법당 방1실 사무실 주방 엘리베이터
- 가액 : 보1800만, 월 140 시설비4000만 (절충가능)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금정산 외국어대 뒷산
- 토지 : 600여평 점유, 창건 80년
- 건물 : 법당 10여평, 요사채(건축물대장)
- 산신기도 사찰, 해발 300m 동남향
- 양도 : 몽땅 2억 9천만원

010-9906-3631 혜관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각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3억 2천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전망 좋은곳
- 30년 전통, 기와, 단청
- 면적 : 대지 850㎡
- 법당, 삼성각, 요사체
- 도로좋음,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 (전,월세 가능)

010-7169-987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 대지 : 30평
- 1층 : 요사채
  2층 : 법당
- 가액 : 1억 4천만원

010-4137-216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 찰 안 내
(시세이하 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격 협의 가능(현지답사후 협의 요망)

010-8014-7707
010-3832-71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1동 신정시장 부근
- 평수 30평, 0층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5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10-5050-625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남향
- 남향동 대로변
- 평수 : 3층건물 중 2층 38평
- 가액 : 보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집기일체 600만원 (절충가)

010-7314-8732

절터(급)안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4,5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포교원 임대
-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옥상 사용 가능)
- 대도로변 위치 포교하기 좋은곳 주차장 있음
- 가액 : 보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시설 A급 몸만 오시면 됨

010-9908-8017

상가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4 동산아파트 상가 벌어사 90번 종점
- 용도: 사주카페, 불교용품, 소품갤러리
- 가액 : 전세 1천 5백만원 월 40만원 권리금 천만원

010-9394-1480

청정도량 대구 팔공산 자락
- 사찰부지 약1000(측량후) 혹은 2200평
- 꼭 필요하시신분께만 파격가!
- 전기,수도, 사찰 허가 필!
- 대구,칠곡,왜관,구미,군위, 안동,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
- 용도 : 사찰 외 다양
- 주변 환경: 최적(전원마을 조성등으로 개발 활발)

주인직 010-4512-0813

멋진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마산터미널 부근
- 3층 건물에 2층 약 40평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300만, 월 30만 시설비 800만원

010-8548-8608
010-3637-24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 공양간, 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 산신각, 용왕 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마산 교방천 남길
- 2층 건물 2층 21평
- 생활 가능
- 가액 : 전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792-055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257평
- 법당 : 2층건물 2층법당 25평, 1층 30평.1층 대형방2칸, 화장실, 샤워장, 해수관음 다보탑, 삼성각 신축
- 요사채 : 공양간, 창고9평, 화장실 2칸, 방2칸
- 전망 : 앞바다 300m 내려다 보임, 뒷산
- 가액 : 4억5천 (전,월세 가능)

010-7169-987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율옥리
- 총평수 : 545평(자연녹지)
- 가액: 평당 20만원

010-6752-933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시내 중심가
- 1층 법당(약 25평) 2층 (방 3개)
- 가액 : 4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7459-2977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부지 400평
- 목조법당 25평
-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田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양도) 6,000만원(전세)

010-5780-1415
033-762-2494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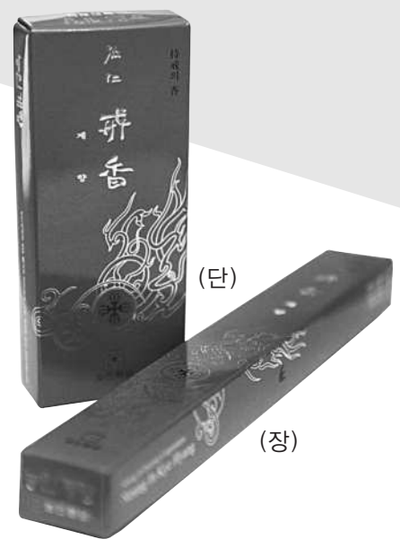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 우리는 왜 명상을 하는가?

명상 성공 '열쇠' … 목표의식 세우기

연일 매스컴에선 '명상의 긍정적 효과'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이에 따라 삶에 지친 현대인들은 명상에 경쟁적으로 매달린다. 비싼 돈을 들여 명상 강좌를 듣는가 하면, 잠을 줄여가며 아침 명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 명상 효과를 도저히 모르겠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40여 년 동안 영성을 공부하고 20여 년을 수행한 샐리 켐튼조차 종종 명상이 잘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한다. 대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상세히 안내한다. 명상에 잘나고 못남이 없음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영적 스승 샐리 켐튼과 함께 명상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자. 정리=이승희 기자



맹목적 효능 기대한 명상은
기대 못 미쳐 좌절하게 돼
참자아 향한 목표의식 내면
간단한 명상으로 효과 체험

무엇 때문에 명상하나?

명상은 수학적 재능이나 예술적 소질처럼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다.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열쇠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면 된다. 내면세계를 맛보고 싶은 열망이 크면 클수록 명상은 더욱 쉬워진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 열망이 클 수는 없다. 시작은 관심의 불꽃이 한 번 켜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우리가 명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다. 명상을 하게 되더라도, 명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점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자기 계발을 위한 전략이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정도일 것이다. 이 책을 구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친구가 자신이 하고 있는 명상수련에 대해 내게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녀는 명상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했다.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했다. 내가 물었다. "명상을 하면 뭐가 가장 좋아?"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한테 명상은 치료법 같은 거야. 명상 자세로 앉아 있으면 요동치는 마음이나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잠해져. 12분에서 20분 동안 만트라mantra(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외는 짧은 말로 된 주문, 진언眞言)를 반복하고나면 마음이 가라앉거든.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거야."

친구는 명상을 통해 중요한 것을 얻고 있다. 명상이 주는 선물, 마음을 비우는 힘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명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뿐이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진짜 명상은 그때부터다. 마음이 평정을 되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광대함과 그 안에 깃든 사랑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녀가 명상이 주는 치유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보다 더 길게 더 깊이 명상 상태에 머물 수 있었을 것이다.

명상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사람들은 대개 명상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명상을 하면, 앉아 있는 시간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다.

반면 명상을 의무감으로 하거나, '이제는 체험을 하겠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나 맹목적인 기대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왜 마음이 빨리 가라앉지 않냐'며 화를 내거나 싫증을 내기 쉽고, 명상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 것이다. 명상이 기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내면의 체험 따위는 지루하게 여기고, 기대만큼 체험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명상을 잘 못해"라고 말한다. 이 모두는 내면의 역동적인 에너지, 샥티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상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명상이 기쁨이 되려면 우선 명상을 잘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사실 명상은 잘한다, 못한다가 없다. 참자아와 연결이 되느냐, 내면에 잠들어 있는 의식이 깨어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명상은 일종의 놀이

나는 놀이를 하듯 명상할 때 명상이 가장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수련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나는 출가수행자요, 인도승려 종단의 강사였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일과 봉사를 수행으로 여겼다. 인도에서는 이를 '카르마 요가karma yoga'라고 한다. 명상의 세계에 뛰어들고 나서 몇 년 간, 치열하고 실험적으로 명상을 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명상은 그저 기계적인 일과가 되어 있었다. 습관적으로 명상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집중할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실 명상은 밥 먹고 잠자는 일상처럼, 나에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수행을 평가해 보고서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나 자신에게 기본적인 것부터 묻기 시작했다. '명상을 왜 하는가?' '명상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명상을 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내가 내놓은 답들은 당혹스러웠다. 명상을 하는 목적이 불분명해서 내 명상은 얕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내게 명상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입심 좋게 "참자아를 실현하려고요"라고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참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영적 수련을 반창고나 강장제로 사용했다.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테크닉으로 영적 수련을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초심자로 돌아가 다시 명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험적인 자세로 매일 수련했다. 특별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열린 자세로 명상에 임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명상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내 의식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가 배운 근본 가르침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겼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았다. 명상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고 자연스럽게 하고자 했다. 명상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했다.

내가 유희하는 기분으로 명상하게 된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의 첫 가르침 덕분이었다. 수행 초기에 내가 존경한 스승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참자아를 모든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가슴에 있는 참자아를 예리하게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다. 참자아, 모든 경험의 이면에 숨어 있는 각성에 의식을 집중하라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이다. 특별한 비결을 쓰는 대신 그냥 앉아서 주의를 내면으로, 내면의 가슴으로 돌리고자 했다.

가슴 센터의 기운을 느낄 때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명상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랑이나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때, 감정의 사연이 아니라 감정의 느낌 자체에 집중하면 감정은 녹아들고, 우리는 기운의 느낌을 따라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그 깊은 내면의 장을 '가슴 공간'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나는 온전히 내 자신에 뿌리를 내린 채, 고요하고 평안하고 감미로운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슴과 연결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은 또렷했고, 가끔 사념이나 의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가슴 공간에 깊이 빠져 있었다.

내 존재의 중심을 세워라

이렇게 수련하면서 몇 개월이 지나자, 딱히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사랑스러운 현존現存을 내면에서 알아차리게 되었다. 언제나 손을 뻗으면 닿을락말락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단 만나면 언제나 포근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그 사랑은 어떤 날은 부드럽게, 어떤 날은 강렬하게 고동쳤다. 마치 내면에 있는 연인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평소에 안 좋게 보던 사람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다정함을 꿰뚫어볼 수 있었다.

명상하는 자세를 점검하고, 즐겁게 명상하는 길을 실험하고, 명상을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아와 현존하는 길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나의 명상 체험을 질적으로 바꿔놓았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대단히 신비롭게 변화시킨다. 내가 깨달은 진리와 통찰에 자신 없어 하거나 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대신 내면세계의 체험, 직관적 느낌과 반응 등을 믿음직한 안내자로 신뢰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내 인간관계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수치심이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명상은 내면을 다지는 초석이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라는 존재의 중심 안에 확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각성된 자신의 의식과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만나야 한다. 내가 아닌 누구도, 무엇도 대신해줄 수 없다.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내면의 존재를 밝히겠다는 명확한 의지로 매일 앉아 있는 것이 곧 명상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목표의식에 달려 있다.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면 간단한 명상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탐험을 통해 당신이 위대한 지혜와 환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당신 안의 위대함과 자신의 깊은 내면을 향해 활짝 문을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

샐리 켐튼은

20여 년 동안 사라스와티 종단서 수도승 생활을 했으며, 40여 년 동안 영성 철학과 명상을 연구 · 강의하고 있다. 1982년 수도승이 된 후 명상 및 영성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성 잡지 〈다샨Darshan〉 편집장으로 봉사했다. 2002년부터 수도승 생활을 잠시 접고, 캘리포니아를 거점으로 명상 · 요가 철학 · 영적 생활 기술을 통합한 워크숍과 TV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탈종공고

• 사찰명 : 표충사
• 법 명 : 천문수(김차화)
• 주 소 : 경북 경주시 황룡동 4-102

위 인과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배종훈의
명상카툰



사랑은 온전히 아름답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내 사랑은 지나고 보면 늘 나 혼자만의 것이었다. 상대에게 끌려 애틋하고 그립고 매일 보고 싶어지면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고, 그 사랑이 영원하길 성급하게 꿈꿨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언제나 나 홀로 낯선 곳에서 찬바람을 맞고 서 있었다. 얼굴과 가슴에 몰아친 흙바람도 사랑을 위한 시련이라 여기며 미련하게 견디며 기다렸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온몸이 모래에 파묻혀 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난 억울하지 않다. 결실을 맺은 사랑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혼자만 영원한 사랑이라 믿고 애태웠어도, 사랑은 온전히 아름답다.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고 설렌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④ 남편이기도, 아들이기도 한

시부모 봉양, 아내 일 아닌 내 몫이다

남자, 시부모 봉양 女 몫이라 여겨
일방적 희생 강요… 고부갈등 시작
시부모-아내 '내가 만든 인연' 명심
책임감 갖고 임하면 아내도 변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종손(宗孫)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종손이란 그 집안의 장남으로만 이어 내려오는 남자의 다른 이름이다. 나의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종손의 위세는 대단했다. 지금이야 명절에 사촌들 얼굴 보기도 어렵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형제 많은 가족의 종손 집에는 차례 지내러 오는 식구들의 수가 40~50명씩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런 문화가 존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부모 봉양의 전통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남이 모시고 살며, 집안의 제사를 도맡는 것이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였다. 이러다보니 다른 형제들은 자신이 일부 부담해야만 하는 부모 봉양의 의무를 장남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 존경과 예우를 표했고, 장남이나 종손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그 집안의 법처럼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 또는 종부(宗婦)라 칭하는 장남의 부인은 부모의 일상사를 봉양하고, 모든 제사와 차례의 제수를 장만하는 것 등으로 평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장남의 동생들은 이 맏며느리에게도 깍듯한 존경과 배려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장남 중심의 가족 구조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 봉양에 대한 자녀들의 갈등 표출이다. 특히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이 이 상속권과 부모 봉양 의무의 상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접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물질 갈등과 별도로 아버지들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다. 즉 아내와의 갈등이다. 우리나라 장남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인데, 문제는 이 마음 때문에 아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반면 아내들은 시부모에 대한 생각이 남편과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아내는 남편과 살기 위해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지,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남자는 시부모 봉양을 여자의 몫이라 여긴다.

시부모 봉양은 제일 큰 일이 식사와 일상사의 시중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부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부양의 가장 큰 노동인 식사와 시중은 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 결국 며느리 몫이라 여긴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부양의 행위는 자기가 아닌, 여자인 아내의 몫이고 남자는 아내가 부모 봉양을 열심히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주면 된다고 여긴다. 이렇듯 고부 갈등은 여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뿌리 깊은 한국 전통사회의 선입관에서 비롯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마음아버지마당 프로그램 중 '가족조각'이라는 코너가 있다. '가족조각'이란 한 명의 참가자가 같은 팀원들에게 평소 자신의 가족 모습과 분위기 등을 설명한 후 팀원들이 부모, 아버지, 아내, 자녀 역할을 맡아 평소 모습을 재연하는 역할극을 말한다.

'가족조각'의 주체가 되는 아버지는 역할을 맡은 팀원들에게 자신의 가족구성원과 같은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사이가 안 좋은 아내가 남편과 등을 지고 선다든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고부간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시부모가 등을 돌리는 등 가족구성원과의 평소 관계를 정지동작으로 재연한다. 이후 각 역할 담당자에게 역할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그 가족의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한다. 바로 '가족조각'은 평소 아버지가 막연히 느끼는 가족의 이야기를 타인의 입을 통해 들어봄으로써 마음을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 중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어느 참가자의 소회가 기억난다. 그는 부모와 등을 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조각 후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아내 역할을 맡은 분에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라는 말을 듣자 '아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단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부모인데'라는 양가감정도 들었다고. 그 모습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있어 나투었다"는 대행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다.

고부갈등과 부모님의 봉양 문제로 발생하는 부부싸움은 부모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기대하지만 여자는 아들인 남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자가 여러 이유로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해"라고 하는 순간 아내의 마음속에서 바로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는 아버지인 '나'가 만든 일이다.

내가 부모를 선택했고, 내가 아내와 결혼해서 가족 관계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인연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내에게 내가 지은 인연을 대신 짊어지라고 하니 아내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도 아내는 속으로 '당신의 인연이니 당신이 해결하시오'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전에 풍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당연히 누군가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혹시 아내가 한다고 할까 싶어 은근히 기대했지만 묵묵부답인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내가 병간호를 자청한 적이 있다. 솔직히 그 당시는 아내를 많이 원망했다. "이런 병간호는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런데 병간호를 하며 나밖에 없는 병실에서 묵묵히 홀로 지내다보니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건 네가 해야 하는 일이다. 네가 선택한 부모요, 네가 지은 인연이니 네가 인연을 녹여야 하거늘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아내에 대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로지 내가 지은 인연을 이 기회에 녹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두 달 간의 병간호를 마쳤다. 한데 아내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당신이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 그런데 지성으로 간호하는 당신 모습에 정말 다시 보게 되었어."

생전 듣지 못한 말에 당황한 채로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는 말을 듣곤 눈물을 흘렸다.





대행 스님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이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개원 1주년 기념으로다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법문 해 주셨습니다. 한마음선원 이름을 지으실 때 어떤 동기로 지으셨으며, 또 한마음이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한마음의 뜻이라는 건요, 우리가 소소한 마음이 아니라, 물론 종지에 담았어도 한 종지죠. 큰 그릇에 담았어도 한 그릇이고요. 그리고 또 한바다만큼 담았어도 그저 한 그릇이고요. 그러나 조그만 거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한 그릇으로 돌아가요, 한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이 마음은 체 없는 무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무의 세계에서 한생각이 유로 나오고 유에서 또 무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 진리…. 여러분의 이 몸만 봐도 여러분이 마음먹는 대로 이 속에서 운행을 해 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맘먹는 대로 이게, 속상하게 생각하면 이 모두가 속을 뒤집어서 나옵니다. 생각할수록 그냥 속에서 이런 게 치밀죠. 여러분이 속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둘로 보는 겁니다, 인제. 그러니 여럿이서 모두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전체가, 삼라대천세계가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사바세계의 그 천차만별로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나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는데 그 가설의 근본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느니라. 그러니 천체가 한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음은 천체를 한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내면세계의 그 생명들 마음들과 내 마음하고 한마음도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별성은 마음을 말하지만 이 혹성은 그 마음을 담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저 한마음 아닌 것이 없어요. 오고 감도 없이 오고 가고 이어 감도 없이 이어가고. 그래서 사과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모두가 둘이 마주 봐야, 천 리라도 마주보지 않는다면 그게 잘 안 열려요. 그래서 벌이 갖다가 자꾸 심어 줘야 열리죠. 그 조화를 어떻게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물리가 다 터집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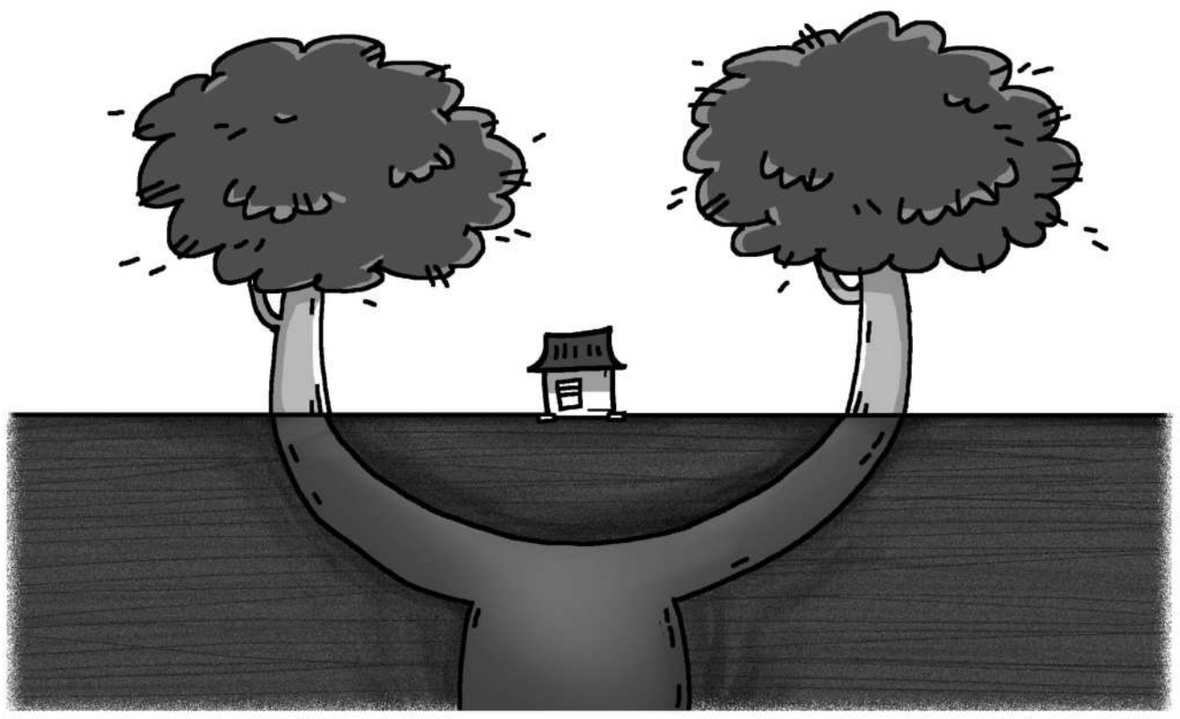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도 남녀가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생산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은 일체 만물만생을 소생시키는가 하면 어머니는 산하대지로서 기르고 가을에 엄마 아빠가 다 씨를 거둬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들은, 비구는 비구니도 아니고 비구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같이 씨를 거둬들일 수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아니, 자기네들 배 속에는 요런 벌레로서 자기가 그렇게 커졌다는 걸 모르고, 벌레도 자기와 둘이 아니거늘 하물며 여자라고 여자, 여자, 여자 이런다면, 자기도 여자 속에서 나왔지 딴 데서 나오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도 분별하는 사람이 어찌 산하대지를 집어먹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져서, 생명 가진 풀 한 포기도 나 아님이 없고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바로 내 모습 아닌 게 없으니,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내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저렇게 모르던 내 모습도 그때 있었다. 그러니 그 모습이 내 모르는 모습이지.' 하고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사람도 착해지고 나도 아주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질문자3(여) 저는 그냥 굉장히 무식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니, 무식해도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팥죽이 뭐 팥죽 솥에 있지 어디 딴 데 갑니까?

질문자3(여) 엄마 입장에서 제가 뭘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큰아이를 여기서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학교에 보내 놓고 가서 잘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로서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놔두고 기도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불교에서는 잘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의 에너지 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으로 도달함으로써 '걔가 잘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지만 그래도 불교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큰스님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어저께부터 여러분한테 말을 했고요, 수없이, 20년 30년씩 이렇게 지금 얘기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상대가 생기죠? 벌써 한 다리 건너서, 공을 딱 쳤을 때에 맞은 자리가 그냥 정통으로 들어가야 공이 힘이 있죠. 만약에 한 번 맞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 보세요, 힘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觀)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처에 놓고 거기 맡기고 지켜봐라 이겁니다. 이게 관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대로 업신여겨서 믿지 않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고 또 부처님 믿는 사람은 '칠성이시여! 독성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고 그 저 땅에 가서 빌질 않나, 용신한테 가서 빌질 않나, 지신에게 빌질 않나. 온통 빌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빌고 돌아다니는 그 미신 행을 하니까 미신이 있고 귀신이 있지 왜 귀신이 있고 미신이 있겠습니까? 예?

달마 대사께서는 양 무제가 그렇게 많은 절을 지어 주고 옷을 해 입히고 시주를 많이 해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공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야. "하나님" 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님이시여! 님이시여! 나의 영원한 님이시여! 수억겁 광년을 거쳐 와도 나하고 바로 당신과 둘 아니게 이끌어 오신 당신이시여! 님이시여!' 하는 겁니다. 그 님을, 내 님부터 알아야 하늘님을 알고 한울님을 알아요. 요 세 가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님!' 지혜입니다, 이게. '한울님!' 통신입니다, 법계. 이게 내 님에서 물리가 터져야 하늘님도 한울님도 다 알게 되는 거죠.

불가에서 말하면 지금 보이지 않는 데의 그 들음, 바다와 같이 넓은 자비, 모두가 그것이 나를 증득하면, 나를 발견해 내면, 즉 말하자면 현재 의식의 자기는 자(子)고 과거의 자기를 지금 끌고 나온 그 무심은, 불성은 바로 부(父)다 이겁니다. "부와 자가 상봉하면 그대로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느니라. 그대로 물리가 터지느니라." 이 소리거든. 육조도 달마도 나를 발견했는데, 둘이 아닌 도리와 그것은 다 알았는데 둘이 아니게 나툴 줄을 몰라서 면벽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분은 6년을 면벽을 했고 한 분은 12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은 좀 더 생각을 넓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연습을 한번 해 보실까요? 집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잘된다 하고 기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갖추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처를 믿고 거기에 그냥 맡기시고 '너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 너만이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또 '너만이 나를, 병을 낫게 해 줄 수 있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거, 어머니라는 거 그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을 켜면 네 마음속에도 불이 들어와. 그런데 어찌 나빠질 수가 있으랴.' 그냥 거기다가 맡기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공부 안 한다는 놈이 스스로 공부하게 돼. 그렇게 연결이 이어짐이 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이어짐이 없이 마음을 전달하고 이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끝 간 데 없이 시발과 종점도 둘이 아니요 이어지는 사이 없이 이어져서 돌아가니까 한마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오온이라고 했는가 하면, 원자! 원자에서 입자가 되고 입자에서 분자가 되고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전부 한마음으로 돌아갑니다

☞ 25면에서 계속

분자에서 그저 그냥 한생각에서…. 보세요. 한생각이고 뭐고 세 가지 네 가지 습이 있다면, 저기 쓰레기통에 뚜껑을 열어 보면 그냥 생명들이 와르르 하고 일어나는 거야. 누가 거기에 생명을 만들려고 생명을 조작해서 거기 넣은 거요? 자연이야, 그게. 그래서 습기가 있고, 이 지수화풍 습기가 있고 원기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 생명이 생기게끔 돼 있어. 그것이 오래 살다 보면 경험을 얻고 경험을 얻고 해서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아주 영리한 인간까지 되지 않았어?

그런데 벌레를 업신여겨요? 남을, 아프다는 사람을 업신여겨?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겨? 왜? 형상은 믿고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부처님 형상은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름도 믿으면서, 그리고 고상도 믿으면서 성모마리아 상도 믿으면서 왜 그거는 안 믿어? 자기! 자기가 지금 살고 말하고 다니면서, 산 부처를 왜 안 믿어요? 아, 자기 산 부처를 왜 안 믿어? 자기 얼굴 더러우면 닦아 주는 산 부처를 왜 안 믿느냐고? 그리고 더우면 시원한 옷 입혀 주지 모두 부처가 해 주는데 왜 안 믿느냐고. 조금 옷이 더러워 봐, 지금. 훨훨 벗어 버리고선 좋은 옷 입혀 주고 아,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형상을 믿을 거예요, 이름을 믿을 거예요? 고깃덩어릴 믿을 거냐고. 그리고 허공을 믿을 거냐고. 그러니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 못났든 잘났든 자기밖에 자기가 믿을 곳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삼합이 틀리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다 가라 이거야. 다 가! 나만 이렇게 하라고 꼬리표 해서 붙인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는 이 자체까지도 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믿는 거는 여러분의 주처, 주인공을 믿고, 이 주인공이라는 뜻은 돌아가니까, 찰나찰나 돌아가, 화해서. 금방 어머니가 되셨다가 금방 할머니가 되셨다가 금방 아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부처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되었을 때 놓고 빌지 말고 아내가 되었을 때 빌지 말고, 지금 불상을 놓으셨는데 부처님을 모셔 놓고 부처님 마음이, 마음을 내면 바로 문수가 되는 거예요, 법신이. 그리고 마음을 냈는데 또 보현이 됐다 이거야. 그 보현은 화신이라. 몸의 움죽거림이라.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세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또는 몸이 움죽거리는 거 셋이 이름은 각각이지만 같이 돌아가는 게 주인공이라. 같이 돌아가니까, 이 내면세계의 모든 생명들도 같이 따라서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자 주인공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한마음 주인공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되놓으시면 바로 거기에서 앞서 짊어지고 나온 그 모두가 무너지고 말아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여기 도량에 제가 없어도요, 이 도량에만 와도, 왔다 갔다만 해도 허리도 낫고 다리도 낫고 다 나아. 뭐, 멀어? 천 리라도 요 문지방 너머밖엔 안 돼. 그러니까 충전이 필요하다. 만약에 가설을 해 놓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덕이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전력이 들어오는 도량은 여러분이 충전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충전! 배우는 동안에 충전할 수가 있다 이 소리지. 본바탕이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저절로, 저절로 충전이 된다니까. 전기에 껴 놓기만 하면 충전이 돼서 그 이튿날 뭐 저런 것도 켜고 그러죠? 내 말이 틀리다면 틀리다고 항의하세요. 나도 여러분한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냥 질문하시는 거를 이렇게 삥 돌려서 얘기했으니 그냥 잘 들으세요.

질문자4(여) 스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요새 제가 느끼고 있는 경험인데요, 많은 것에 이제 거의 화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제가 가끔 화를 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되고 어디서부터 화를 안 내야 되는지 그 선을 못 긋겠어요.

큰스님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건 어떠한 거든지,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모든 것을 여기다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요. 부드럽게, 애한테도 남편한테도 부모한테도 형제한테도 부드럽게 말해 줘요. 그러면 따뜻하게 고여서 당신을 또 따뜻하게 맞아 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 마음은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또는 자기 주처를 믿고 거기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밖엔 해결해 줄 수가 없다 하고 믿어라 이거야, 물러서지 말고. 모든 거, 일체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다가오는 그 생활이 전부 여러분의 공부할 수 있는 재료야. 그러니 아파도, 뭐 어떤 게 닥쳐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솟아올라도 그걸 재료로만 알고 맡겨 놓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거기서 물리가 터지고 거기서 그릇이 돼서 자기 자신이 바로 홀연히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나타나면 둘 아닌 도리 또 배우려고 또 점검을 받고 이러는 거죠. 길잡이도 필요해요. 이 못난 저 같은 길잡이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 무조건 오늘부터 그런 걸 따지고 '요런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여기다 놔야 하고 이러는가?' 이러지 마시고 무조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안되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이날까지 살림했지 누가 딴 사람이 해 줬나? 응? 그러니까 그 살림하는 게 전부 보고 듣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결정 내리고 그러면서 이날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까 결정 내린 그 장본인 자체에, 주처에다가 맡겨 놔라 이거야. 그러면 홀연히 자기가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첫째, 마음이 편안하고, 이 모든 모습들이, 모든 의식들이 '야, 이거 나도 한마음으로서 자기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구나.' 이러고선 그냥 '야, 부처님이 나하고 중생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 주는구나!' 그러고 아주 좋아서, 흥겨워서 콧노래만 부르게 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거든. 그러니 병이 들었던 것도 낫게 되는 거지. 그러곤 무조건 믿어야지,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를 왜 못 믿어요? 응?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까지 오게 한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관(觀)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주처에 놓고 거기 맡기고 지켜봐라.
이게 관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불교를 생각할 때 저기 상단에 밥이나 놓고 떡이나 놓고 비는 것이 불교인 줄 알지 마시고, 불교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역시 불교가 아닌 게 없다. 기독교나 가톨릭교 어떤 교라 할지라도 모두가 불교다. 그러니까 한 솥에 죽 끓는 거와 같다 이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 죽 끓는 데에 한 방울이 '이거는 내 방울이다, 네 방울이다' 그래 봤자야 소용없어. 그 솥에 그냥 푹 나왔다 푹 꺼지고 푹 나왔다 푹 꺼져. 그와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한번 넓게 본다면 지구 바깥도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네 자리 내 자리 찾기 이전에 지구 바깥도 벗어나야 지구의 수명도 좀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 자유자재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권! 대권만 알지 마시고 또 도도 거기 겸해서, 그래서 태권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도를 모르면 '태권'도 소용없어. 도를 모르고 어떻게 태권이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도 이것이 마음의 도리, 보는 게 없이 보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고 이러는 팩스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팩스는 한계가 있죠? 아주 자동적으로 한생각이 그냥 그대로…. 저 산호세에도요, 아주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사귀기가 좀 깐깐했죠, 이거 공부하기가. 그런데 웬만큼 그냥 정성이 지극하게 다니다 보면요, "스님!" 하고 전화만 해도 "알았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알았어요." 이러고 말이 나오지 "아이, 정성들이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익어라 이거야. 그만큼 지극해라 이거야. 아니, 자기가 그릇도 만들어 놓지 않고선 담아 달라고 그런다고 "아유, 담아 줄게." 이러나요, 누가? 거지도 깡통을 가져와서 밥을 달라고 그래야 담아 주는 법인데. 그러니까 산호세에서 "스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 "알았어!" 이 '알았어.' 밖에는 몰라요, 나는. 너무 그냥 무식하거든. 그러니까 '알았어' 밖에 모르지.

그래도 그 마음이란 천 리라도, 요기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면서도 요기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스님, 나를 이렇게,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자기가 내가 됐대요, 금방,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되니까 그것이 그냥 다 없어지더라는 거지. 그런 연에 나는 또 거기서 찰나에 나고 자기가 도로 된 거지. 어때요? 이렇게 묘한 법이 바로 이 도리거든.

그래서 32상이 구족하고 32응신이 구족하다. 62견이 또 구족한가 하면 62견도 없느니라. 62견도 없어. 부처는 어디서 나왔느냐? 중생 속에서 나왔지 딴 데서 나왔나? 그럼 중생은 어디 있느냐? 부처 속에서 나온 거라, 또. 그러니 아주 그냥 콤비죠. 부처와 중생은 콤비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때로는 애인이 됐다, 때로는 아내가 됐다, 때로는 그냥 친구가 됐다가, 영원한 친구가 됐다가, 때로는 부처가 됐다, 법신이 됐다 이렇게 그냥 무변하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참 광대무변합니까?

정말이지 사랑, 진짜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도 공부할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묘지가 요기 있고 요기 있으니 요건 아들의 묘지고 요건 아비의 묘지인데, 인제 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 아비가 요리로 오면 아들이 하나가 되고 아들이 요리로 가면 아비가 하나가 되니 그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걸 몰라 가지고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남이 의정을 그냥 강제로 줘서 '이 뭣고?' 하고 있는 거는 아니 되고 정말 자기 스스로 나와서 의정을 내야만이 그것이 진짜 의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 양으로 이거는 이리로 가도 아들이 되고 이리로 가도 아비가 된다니, 그러면 이게 둘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면 하나가 되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가 되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부'가 되는 거야, 그냥. 하나로! 하하하….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밤새도록 이슬을 맞고 앉아 있다가, 그 이튿날도 몰라서 그냥 있다가 보니까는 나중에, '아하!' 그때서야 안 거야. 뭐냐? '아이고, 체는 없지.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열 개라도 하나로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지. 하도 많아서 찰나찰나 돌아가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지.'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옳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무궁무진하구나!' 아비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아비가 될 수 있고, 며느리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달마 대사가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가 돼 가지고, 구렁이 옷을 입고선 저기 멀리 갖다 벗어 놓고 자기 옷을 되입으려고 오니까 옷이 없어졌더래, 글쎄. 그래서 도둑놈이 벗어 놓고 간 옷을 입어서 그렇게 털북숭이라는 거야. 하하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인제 따리를 붙여 가지고 방편으로 낚싯밥을 자꾸 던지는 거야. 왜 달마 대사는 수염이 없느냐 이거지, 또.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난 지난번에 그랬지. 경허 스님 턱에 수염이 안 나는 까닭은 뭐냐고 그랬지, 또. 경허 스님이 상투를 틀고 다닌 까닭은 뭐며, 또 경허 스님이 사계절 빨가벗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닌 까닭은 뭐냐 그랬지. 그랬더니 아무도 말 안 해. "도인만 앉아 있구나!" 그러고 그만뒀지.

지금 우리 부처님들이요, 조마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들께서 질문하시라고 그럴까? 허허. 끝났어? 그러면 오늘 끝내고 참,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어저께처럼 재미있게 좀, 한 30분이고 놀고 가십시오. 그럼 그렇게 알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멀어도 먼 게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게 없다. 내가 이름을 믿겠느냐, 허공을 믿겠느냐, 형상을 믿겠느냐. 나는 오직 나를 형성시키고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주처의 내 주인을 믿겠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바로 맡기고 지켜보는 게 관하는 거고 실험하는 거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8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시간과 함께 춤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병신년 마지막 달. 한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회한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뒤엉킴 속에서 큰 어지러움을 느낀다. 새해로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휘청거린다. 제행무상이라고 하니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새삼 "시간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 묻는 자가 없을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묻는 자가 있어 대답하려니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 등이 시간의 정체를 알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뇌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불교 경전에서도 시간의 문제는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나가르주나는 〈중론〉에서 궁극적으로 시간 자체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현대 과학에서 시간은 대폭발(Big Bang)에 의해 공간과 함께 생겨났고, 언젠가는 다시 대폭발로 파괴되어 블랙홀에 빠져 사라진다고 본다. 이렇게 시간도 생성 소멸하는 존재인데, 이 시간 속에 찰나를 사는 인간이 영원을 희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괴이한 존재다. 시간과 인간은 어떤 관계일까? 바로 연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 삶의 터전은 자연과 역사에 있다. 이러한 두 터전에서 전개되는 인간 삶의 방식에 따라 시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진다. 인간은 태양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태양의 운행에 따라 시간 단위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삶의 양식과 역사를 만든다. 또 여기에 종교도 등장한다. 자연과 역사의 조건, 그리고 종교에 따라 인간은 다양하게 시간을 표상시킨다. 농경문화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지만 사막문화에서는 직선으로 보고, 기독교는 시간을 유일신이 만든 것으로 보기도 하는 등.

시간에 대해 깊이 사유할수록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을 함께 하고,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것 등 인간 삶의 여러 모습은 모두가 시간의 레일 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시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18세기에 기계로 만든 시계가 확대되면서 인간 삶의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계 시계의 침에 이끌려 시간의 덫에 걸려 허둥대고 버둥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인간 삶의 모습이다.

시간과 인간은 연기적 관계에 있기에 시간은 인간이 만든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달걀이 연기적 조건에 따라 생명체의 수정란으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재료로, 또는 약의 원료로 되듯이.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은 시간의 노예선에 납치되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랴, 시간은 결코 노예선의 선장이 아니다. 인간이 스스로 시간의 노예가 된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는 광장을 제공해 줄 뿐이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산다. 그래서 시간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삶의 제일 중요한 열쇠이다. 그 최고의 방법은 시간과 함께 춤을 추고 사는 것이리라. 그런데 시간과 함께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하는가? 인간과 함께 하는 시간은 '체험된 시간'과 '시계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체험된 시간은 '마음의 시간'이고, 시계의 시간은 '몸의 시간'이다. 이 두 종류의 시간이 만나는 지점이 중도의 시간일 것이다. 비약해 보자. 시간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은 '깨달음'과 '자비'의 양 날개를 펄럭이는 율동이 아닌가.

시간에서 무상을 깨닫고, 무상에서 자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늙어가는 아내에게 큰 연민이 생기듯이. 새해가 다가온다. 이제 시간과 함께 멋진 춤을 춰보자. 그런데 어떻게, 어떤 춤을?

기자칼럼

불교 이모티콘 2종뿐인 이유



신성민
취재부 차장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모티콘은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출시된 지는 5년이 지났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이모티콘 스토어 오픈 5주년을 기념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성장 과정과 판매 트렌드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모티콘 시장이 성장하면서 누적 이모티콘 상품은 4천800여개로 5년 만에 800배가 증가했다. 매월 발신되는 이모티콘 메시지 수만 20억 건, 하루 1천만 명의 카카오톡 이용자가 텍스트를 대신해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나눈다.

사실상 이모티콘은 새로운 콘텐츠 소비습관이자 문화이다.

그럼 종교계 이모티콘은 어떨까. 종교계 이모티콘 시장은 기독교(개신교+가톨릭)와 불교로 양분된다. '양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선점했다고 보는 게 맞다. 본 기자가 현재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이모티콘을 분석한 결과 기독교 이모티콘 9종에 달한다.

검색도 용이하다. 기독교는 샬롬, 갓, 은혜, 사랑, 수녀 등을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부분 예수를 캐릭터화 했지만, 글자 도안인 캘리그래피와 POP도 사용되고 있다. 사용의 범주가 넓은 편이다.

기독교 9종… 캐릭터도 다양해

내년부턴 종교이모티콘 입점 無

대중 눈높이 맞는 콘텐츠 내놨나

반면, 불교계는 딱 2종뿐이다. '어라 스님' 캐릭터로 웹툰을 그리는 지찬 스님이 가장 먼저 카카오톡에 입점했고, 뒤를 이어 조계종 포교원에서도 '반야의 야단법석'이라는 이모티콘을 내놨다. 두 이모티콘 모두 스님을 주제로 한다.

하지만, 이제는 종교를 주제로 한 이모티콘은 입점이 안된다. 다음카카오에서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종교 관련 캐릭터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찬 스님의 경우 어라 스님 이모티콘 시즌2를 위해 관련 회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입점이 성사되지 못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입점한 종교 이모티콘은 올해 하반기에 출시한 기독교계 이모티콘 '러블리 마이 갓'이다. 복음의전함에서 만든 이 이모티콘의 수익금은 복음 광고를 위해 사용된다.

종교 이모티콘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방침은 회사의 영업 전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문화 선교 시스템과 관련 회사들이 비교적 잘 구축된 개신교계는 이모티콘이라는 콘텐츠에 빠르게 대응했지만, 불교계는 순수 작가 등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모티콘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 이모티콘 입점을 위해 지찬 스님 등 많은 작가들이 뛰어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어 더욱 그렇다.

여기서 불교계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포교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문화 포교'를 위해서는 빠른 트렌드 읽기와 이를 적용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젊은이들에게는 웹툰이 대세인데, 불교계는 어라 스님과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활동하는 작가는 매우 적다.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 게임 · 음반 · 애니메이션 · 캐릭터상품 · 장난감 · 출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스'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젊은 세대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눈으로 봐야 한다. 수요자 욕구에 맞는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불교계 관계자에게 흡족한 콘텐츠가 아닌 비불자 대중에 눈에 맞춘 콘텐츠를 고민하고 트렌드를 내놔야 한다. 포교는 입교와 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기존 신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社說

民心도 佛心도 '퇴진' 원한다

조계종이 '박근혜 즉각퇴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각 종교계에서 산발적으로 시국선언이 나오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단 차원의 대응이다. 조계종이 그 뒷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독대에서 이미 하야를 권유하는 등 국민을 대신해 입장을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통과 외면 뿐이었단 것이다.

〈초발심자경문〉에는 '사언마어긍수청 성교현장고불문(邪言魔語肯受聽 聖教賢章故不聞)'라는 말이 나온다. 삿된 말을 즐겨 들으면 성현이 바르게 말한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순실과 같은 비선과 충언을 하지 않는 관료들에 둘러쌓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려와달라'는 말이 과연 들릴까.

민심을 바로보지 않는 자, 민중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국정안정을 말할 자격이 박 대통령에게는 없다.

조계종이 호소문에서 밝혔듯,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추운 날씨에 촛불집회로 나서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직위와 한줌 뿐인 권력에 집착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마장, 즉 장애에 부딪혔을 때 가장 쉬운 해답을 제시한다. 바로 '초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의 초심은 무엇일까. 스스로도 밝혔듯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함이다.

이제 국민의 뜻은 확고하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이다. 국민이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원한다.

사찰음식전문가 '토사구팽' 해서야

국내외 사찰음식문화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위촉한 사찰음식 전문위원 스님 전원에게 1년 만에 사임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면에 얽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행정처리에 있어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 문화사업단 내에서 불거진 논란이기에 파급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왜 사임을 요청했는가'다.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전달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원 스님들은 전혀 듣지 못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번 사임 요청 배경을 실무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윗선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재가전문위원은 제외한 채 출가전문위원 5인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에도 지적이 뒤따른다. 또 전문위원 스님이 전해들은 것처럼 현재 직원들도 사표를 낸 채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세간의 눈총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현 전문위원 스님들은 조계종단이 위촉하기 오래 전부터 사찰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해왔다. 그 원력과 실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종단서도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사찰음식문화가 대중적 반열에 오른 지금, 이 같은 논란은 사람들에게 '토사구팽'을 연상시키게 할 수도 있다. 그간의 공적이 있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기관 · 단체의 신뢰도는 능력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중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한번 떨어진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 문화사업단은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이 붙지 않도록 이번 논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1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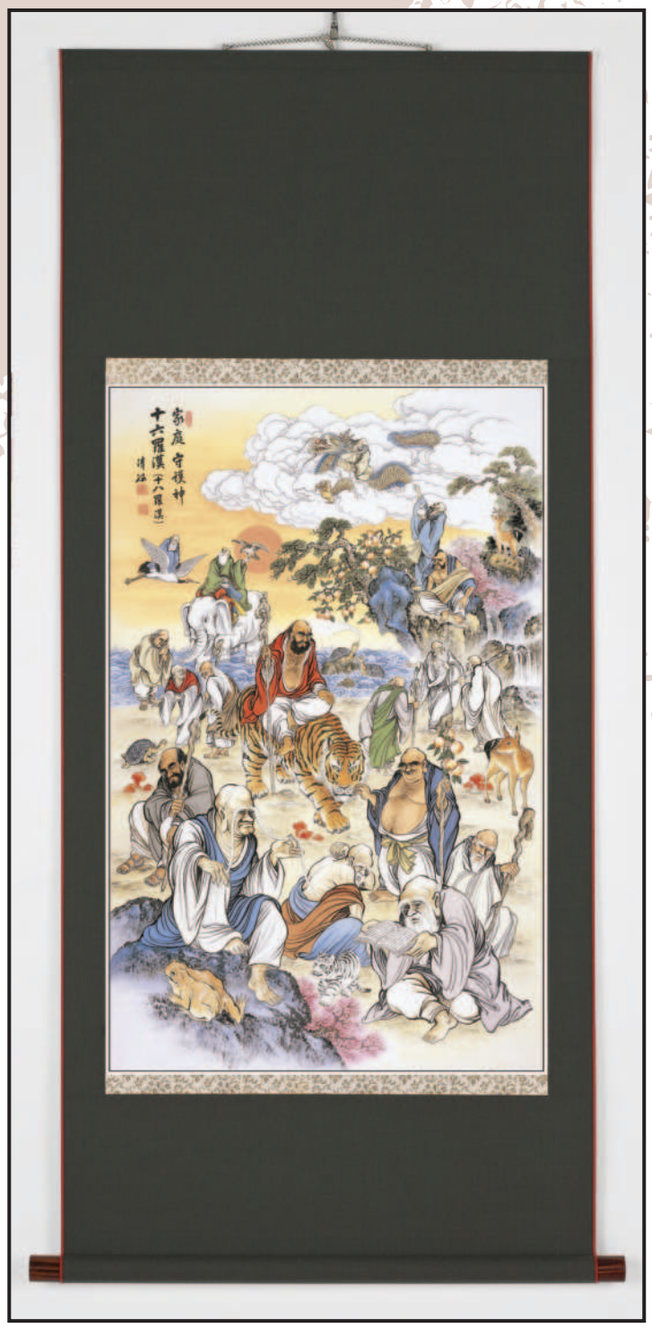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이번에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길이 : 120Cm x 폭 54Cm • 가격 : 각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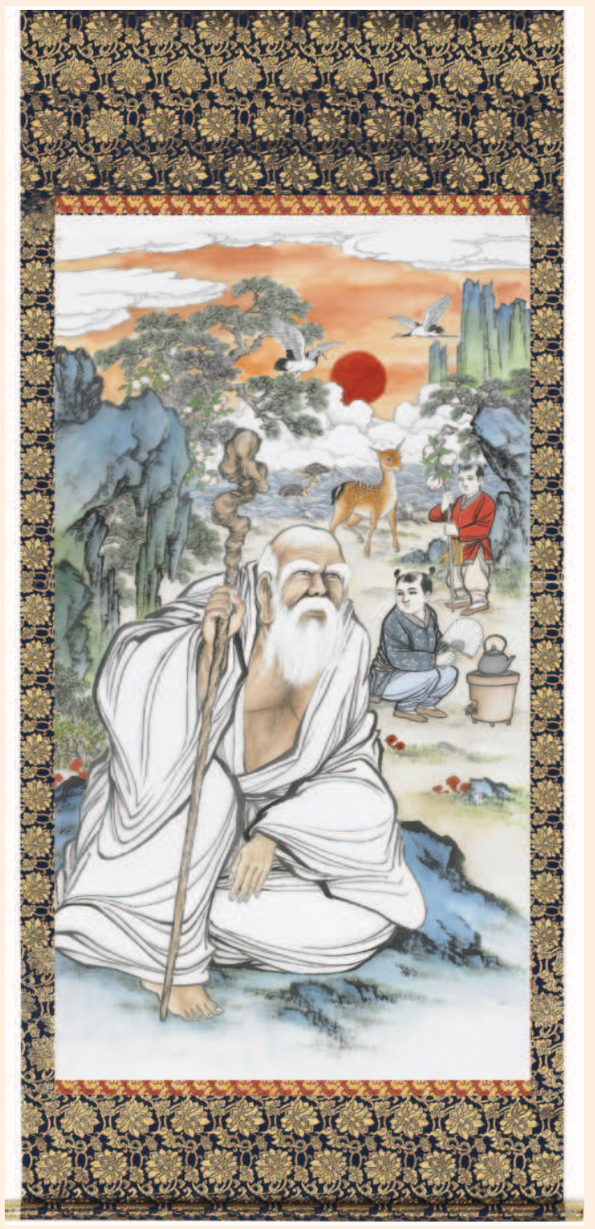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사찰용 십장생 수호신 –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 길이 : 180Cm x 폭80Cm
• 가격 : 각 380.000원







그림마다 십장생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칠성각은 해 대신 무지개를 넣어 제작 하였으며 그림마다 천도 복숭아가 들어가 있고 **전통불교 황금족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